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 2012. 11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

자료집 | 2012. 11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

요약보고서 | 2012. 11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 2012. 11





# 제 출 문

예산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2. 11



원장 박 진 도









##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배경 및 목적	3
1. 과업배경	3
2. 과업목적	5
3. 과업의 주요내용	6
제2절 과업성격 및 범위	7
1. 과업성격	7
2. 과업범위	7
3. 과업의 추진과정	8
제3절 지역순환형 농업의 용어 정의와 필요성	9
1. 용어의 정의	9
2. 지역순환형 농업의 필요성	9
3.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과 편익	11

## 제2장 예산농업의 현황 및 구조분석

제1절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15
1. 농업인구	15
2. 농업의 가치사슬	16
3. 농업의 전후방산업	21
4. 생산과 소비	26
5. 분석결과의 종합	32



---

제2절 예산농업의 구조분석 .....	33
1. 분석개요 .....	33
2. 농업의 규모와 범위 .....	34
3. 재배작물과 농가소득 .....	37
4. 농업경영과 농업고용 .....	39
5. 분석결과의 종합 .....	46
제3절 예산농업의 자원분석 .....	47
1. 향토자원 .....	47
2. 어메니티자원 .....	50
3. 분석결과의 종합 .....	51
제4절 예산농업의 진단과 아젠다 도출 .....	52
1. 예산농업의 일반적 진단 .....	52
2. 예산농업의 정책적 진단 .....	52
3. 예산농업의 아젠다 도출과 관련정책 .....	57

## 제3장 기본구상

제1절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	63
1. 최근의 농업이론 .....	63
2. OECD 농업정책 .....	64
3.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	65
제2절 비전과 목표 .....	68
1. 비전 .....	68
2. 목표 .....	68



제3절 발전전략 .....	70
1. 품목부문의 발전전략 .....	70
2. 영역부문의 발전전략 .....	71
3. 제도부문의 발전전략 .....	72
제4절 주요추진사업의 도출 .....	73
1. 주요추진사업 도출과정 .....	73
2.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74
3. 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74
4. 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75

## 제4장 부문별 발전전략

제1절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	79
1. 현황 및 문제 .....	79
2. 정책환경 .....	80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82
4. 주요추진사업 .....	83
5. 세부추진계획 .....	87
제2절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	88
1. 현황 및 문제 .....	88
2. 정책환경 .....	89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91
4. 주요추진사업 .....	92
5. 세부추진계획 .....	96



---

제3절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	97
1. 현황 및 문제 .....	97
2. 정책환경 .....	101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05
4. 주요추진사업 .....	106
5. 세부추진계획 .....	110
제4절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	111
1. 현황 및 문제 .....	111
2. 정책환경 .....	116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19
4. 주요추진사업 .....	120
5. 세부추진계획 .....	125
제5절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	126
1. 현황 및 문제 .....	126
2. 정책환경 .....	135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40
4. 주요추진사업 .....	141
5. 세부추진계획 .....	145
제6절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	146
1. 현황 및 문제 .....	146
2. 정책환경 .....	148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54
4. 주요추진사업 .....	155
5. 세부추진계획 .....	162



제7절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	163
1. 현황 및 문제 .....	163
2. 정책환경 .....	167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68
4. 주요추진사업 .....	170
5. 세부추진계획 .....	183

## 제5장 투자 및 운영관리

제1절 투자사업비 .....	187
1. 총사업비 .....	187
2. 연차별 사업비 .....	188
3. 세부사업비 .....	189
4. 연차별 세부사업비 .....	193
제2절 재원확보 및 추진방안 .....	198
1. 재원확보방안 .....	198
2. 정책추진방안 .....	201
제3절 성과관리방안 .....	202



## 표 목 차

〈표 1- 1〉 과업의 추진과정 .....	8
〈표 1- 2〉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과 편익 .....	11
〈표 2- 1〉 예산군 소재 공공기관 .....	28
〈표 2- 2〉 예산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	30
〈표 2- 3〉 예산농업 일반현황의 종합 .....	32
〈표 2- 4〉 예산농업 구조분석 표본수 .....	33
〈표 2- 5〉 예산농업 구조분석의 종합 .....	46
〈표 2- 6〉 예산지역의 향토자원 .....	47
〈표 2- 7〉 예산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	50
〈표 2- 8〉 우리 농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조건 .....	52
〈표 2- 9〉 품목별 아젠다와 관련정책 .....	58
〈표 2-10〉 영역별 아젠다와 관련정책 .....	59
〈표 2-11〉 아젠다의 최종 선정 .....	60
〈표 3- 1〉 농업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 .....	64
〈표 3- 2〉 OECD의 농업정책 .....	65
〈표 3- 3〉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주요환경 .....	66
〈표 3- 4〉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의 주요 농업정책 .....	67
〈표 3- 5〉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74
〈표 3- 6〉 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75
〈표 3- 7〉 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75
〈표 4- 1〉 쌀(벼)의 주요 전후방산업 .....	85
〈표 4- 2〉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사업추진계획 .....	87
〈표 4- 3〉 사과(과실)의 주요 전후방산업 .....	95
〈표 4- 4〉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 .....	96



〈표 4- 5〉 예산군 읍면별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현황 .....	99
〈표 4- 6〉 예산군 시설채소 작부체계 .....	99
〈표 4- 7〉 예산군 농정 전체사업 대비 시설채소 관련사업 비중 .....	104
〈표 4- 8〉 예산군 농정유통과 시설채소 관련 사업내역 .....	104
〈표 4- 9〉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시설채소 관련 사업내역 .....	105
〈표 4-10〉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사업추진계획 .....	110
〈표 4-11〉 예산군 농정유통과 친환경농업지원 관련 사업내역 .....	118
〈표 4-12〉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사업추진계획 .....	125
〈표 4-13〉 품목별 지역자급률 순위 .....	130
〈표 4-14〉 2011년 예산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량 상위 품목(금액 기준) .....	131
〈표 4-15〉 2011년 예산 학교급식 가공품 소비량 상위 품목 현황(금액 기준) .....	133
〈표 4-16〉 지자체 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비교 .....	138
〈표 4-17〉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세부추진계획 .....	145
〈표 4-18〉 영농인력 관련 국가단위 정책 .....	149
〈표 4-19〉 예산군 농정유통과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내역 .....	151
〈표 4-20〉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사업추진계획 .....	162
〈표 4-21〉 시군의 거버넌스 관련조직 운영 사례 .....	167
〈표 4-22〉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세부추진계획 .....	183
〈표 5- 1〉 총사업비 .....	187
〈표 5- 2〉 연차별 사업비 .....	188
〈표 5- 3〉 세부사업비 .....	189
〈표 5- 4〉 연차별 세부사업비 .....	193



## 그림 목 차

〈그림 1- 1〉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모델 .....	5
〈그림 1- 2〉 과업의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	6
〈그림 1- 3〉 예산군의 공간구성 .....	8
〈그림 1- 4〉 지역순환형 농업의 개념 .....	10
〈그림 2- 1〉 예산군 인구변화(1980~2010) .....	15
〈그림 2- 2〉 예산군 농가인구 변화(2000~2010) .....	15
〈그림 2- 3〉 예산군 고령인구수와 고령화율 .....	16
〈그림 2- 4〉 식량작물 면적과 생산량 .....	17
〈그림 2- 5〉 과채류 면적과 생산량 .....	18
〈그림 2- 6〉 근채류 면적과 생산량 .....	18
〈그림 2- 7〉 엽채류 면적과 생산량 .....	18
〈그림 2- 8〉 조미채소 면적과 생산량 .....	18
〈그림 2- 9〉 특용작물 면적과 생산 .....	18
〈그림 2-10〉 과실류 면적과 생산 .....	18
〈그림 2-1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19
〈그림 2-12〉 예산군 농산물 가공 비율 .....	20
〈그림 2-13〉 예산군 산업별 종사자 수 .....	21
〈그림 2-14〉 예산군 제조업체 수 .....	22
〈그림 2-15〉 예산군 제조업체 종사자 수 .....	22
〈그림 2-16〉 예산군 제조업체 생산액 .....	23
〈그림 2-17〉 2010년 예산군 산업연계구조 .....	24
〈그림 2-18〉 2000년 예산군 산업연계구조 .....	25
〈그림 2-19〉 예산 농업의 전후방산업 연계구조 .....	26
〈그림 2-20〉 농가인구와 비농가 인구(2010) .....	27



〈그림 2-21〉 도시와 비도시지역 인구(2010) .....	27
〈그림 2-22〉 예산군 주요 농산물 .....	30
〈그림 2-23〉 예산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	31
〈그림 2-24〉 예산군 농가의 규모 .....	34
〈그림 2-25〉 논, 밭 보유 비중 .....	35
〈그림 2-26〉 예산군 친환경 농가 비중 .....	35
〈그림 2-27〉 예산군의 다기능적 농업의 비중 .....	36
〈그림 2-28〉 주요 재배작물 .....	37
〈그림 2-29〉 주요 재배과수 .....	38
〈그림 2-30〉 농가소득의 규모 .....	39
〈그림 2-31〉 예산군 전업농의 비중 .....	40
〈그림 2-32〉 경영주의 농업경영동기 .....	40
〈그림 2-33〉 작목별 영농조직화 .....	41
〈그림 2-34〉 가축분뇨의 처리와 방법 .....	42
〈그림 2-35〉 자가 벼농사 비중 .....	43
〈그림 2-36〉 농기계 보유 여부 .....	43
〈그림 2-37〉 농업고용 및 고용기간 .....	44
〈그림 2-38〉 농산물의 유통구조 .....	45
〈그림 2-39〉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구조 .....	46
〈그림 3- 1〉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의 비전과 목표 .....	69
〈그림 3- 2〉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발전전략 .....	72
〈그림 4- 1〉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개발방향 .....	82
〈그림 4- 2〉 다기능적 예산사와 프로젝트 개발방향 .....	92
〈그림 4- 3〉 전국, 충남대비 예산군 농가당 시설채소 재배면적 비교 (단위:평) .....	97
〈그림 4- 4〉 전국, 충남 대비 예산군 채소류 비중 비교 .....	98
〈그림 4- 5〉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개발방향 .....	106
〈그림 4- 6〉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양식 .....	109



---

〈그림 4- 7〉 우리나라의 농업의 전후방 연계구조(2000) .....	113
〈그림 4- 8〉 우리나라의 농업의 전후방 연계구조(2009) .....	114
〈그림 4- 9〉 농업과 화학의 산업연계 구조 .....	115
〈그림 4-1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개발방향 .....	120
〈그림 4-11〉 농가판로 중 소비자 직거래 비율 .....	128
〈그림 4-12〉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개발방향 .....	141
〈그림 4-13〉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개발방향 .....	155
〈그림 4-14〉 예산군 통합인력센터의 기능 .....	159
〈그림 4-15〉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개발방향 .....	169
〈그림 4-16〉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체계 .....	169
〈그림 4-17〉 예산군 친환경 농정정책협의회 구성(안) .....	171
〈그림 4-18〉 예산군 친환경 농정기획단 구성(안) .....	174
〈그림 4-19〉 농정사업 평가체계(안) .....	182

# 제1장 과업의 개요

---

1. 과업배경 및 목적
2. 과업성격 및 범위
3. 지역순환형 농업의 용어 정의와 필요성



## 제1절 과업배경 및 목적

### 1. 과업배경

#### 1) 지역적 측면

##### ■ 예산군은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임

- 쌀, 사과, 쪽파 등의 시설채소, 축산 등으로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자원이 매우 다양함
- 농업관련 재배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 지속적인 농업분야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은 쇠퇴

- 예산군은 군정 예산 중에서 매년 20% 이상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지역 내 농업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특히 지방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 최근 급변하는 농업정책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역농업발전전략의 수립 필요성

- 최근 선진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기존의 생산위주의 농업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변화하는 농정환경 속에서 예산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지역적 대응전략이 요구됨



## 2) 구조적 측면

### ■ 고비용·고투입의 농업생산구조로 인해 농업의 성과가 농업·농민이 아닌 제조업에 귀착되는 불합리한 모순 발생

- 농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고비용·고투입의 농업생산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즉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 등의 자재를 더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농업생산량은 증가하지만 농업소득은 증가하지 못하는 구조를 야기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량 증가와 소득증대가 농민에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제조업으로 빠져나가는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음

### ■ 예산지역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외지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불합리한 구조 형성

- 예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생산물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대형시장을 경유하여 전국적으로 재분배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역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지의 농산물을 예산지역민이 소비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 재배중심의 단순한 농업, 높은 후방의존도 농업,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역민의 소외 등으로 인해 지역농업과 지역발전이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지 못함

- 예산농업의 성과는 지역내부가 아닌 대도시로, 지역농민이 아닌 제조분야 종사자에게로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함
- 그 결과 예산의 지역경제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도시와 비농업에 더욱 종속되고 있음

## 2. 과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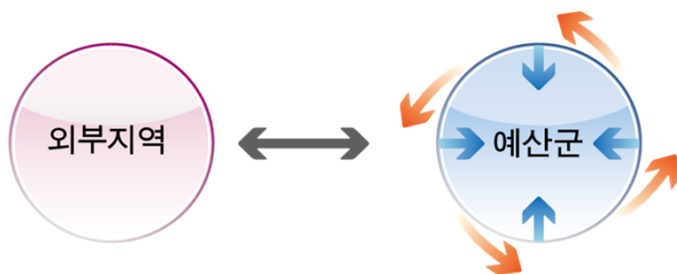
### ■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함

- 농업에 대한 투자가 농업생산을 위한 후방산업에 집중되어서 농업의 자생성을 증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투자가 농업의 후방산업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예산군 농업발전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예산지역에 남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본 과업의 목적은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구축하는 것임

- 예산농업의 발전이 예산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산농업의 발전이 예산지역 내에 귀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산지역의 원심력(판매, 교류)과 구심력(자본, 인력)의 극대화 및 균형화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모델]



〈그림 1-1〉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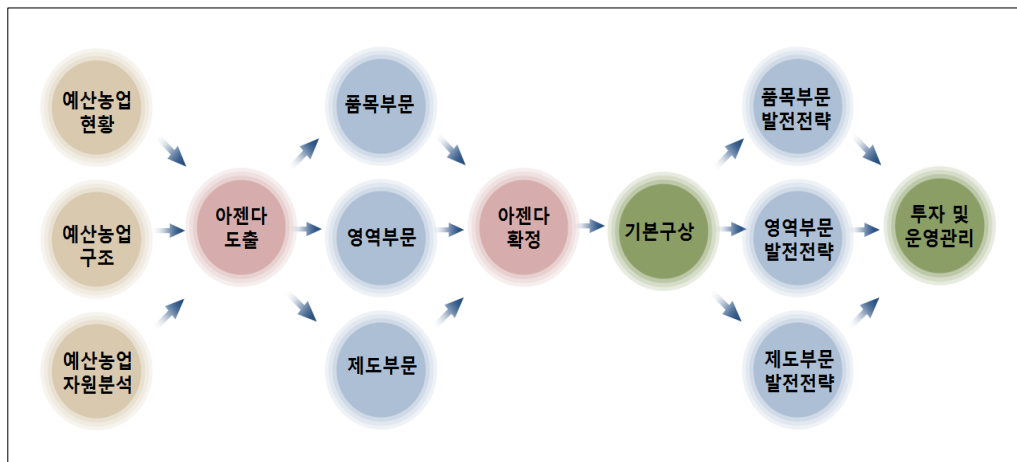
### 3. 과업의 주요내용

■ 본 과업은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직·간접적 해답을 구하기 위한 것임

- 예산군의 농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어떻게 일체화 할 것인가?
- 예산군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을 어떻게 연계화 할 것인가?
-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본 과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 예산농업의 구조분석
- 예산농업의 자원분석
- 예산농업의 진단과 아젠다 도출
- 기본구상
- 품목/영역/제도부문 발전전략
- 투자 및 운영관리



〈그림 1-2〉 과업의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 제2절 과업성격 및 범위

### 1. 과업성격

#### ■ 통합적 계획

- 계획부문 간의 통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 ■ 전략적 계획

- 주요자원, 주요이슈를 위한 합리적 사업 도출

#### ■ 실행적 계획

- 5년 이내 실제 추진 가능한 계획

#### ■ 연계적 계획

- 사업의 패키지화, 타 관련 정책과 연계화

#### ■ 의사소통적 계획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의견 수렴

### 2. 과업범위

#### ■ 과업기간

- 2011. 11. 9 ~ 2012. 11. 2

####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예산군 전역 (542.31km<sup>2</sup>)
- 시간적 범위: 2013 ~ 2017년 (5개년)





〈그림 1-3〉 예산군의 공간구성

### 3. 과업의 추진과정

〈표 1-1〉 과업의 추진과정

추진내용	날짜
계약체결	2011. 11. 9
착수보고회	2011. 12. 13
읍·면별 인터뷰조사	2011. 12. 12 ~ 29
개별 농가 인터뷰조사	2012. 2. 14 ~ 28
정책토론회	2012. 3. 23
1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	2012. 5. 8
실무추진위원 개별 인터뷰	2012. 6. 8 ~ 20
2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	2012. 7. 10
중간보고회	2012. 9. 26
최종보고회	2012. 10. 28

## 제3절 지역순환형 농업의 용어 정의와 필요성

### 1. 용어의 정의

#### ■ 지역순환의 개념

- 지역이란 일정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고, 순환이란 어떤 현상이나 변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순환이란 물질, 에너지, 정보, 상품, 돈 등이 일회적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변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 지역순환형 농업의 개념

- 상기와 같이 지역순환의 개념을 규정했을 때, 지역순환형 농업이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농업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개념은 자원순환과 물질순환 등의 자원/에너지의 사용단계를 연계시키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정보, 상품, 돈의 지역 내 순환을 함께 강조하는 차별성을 가짐

### 2. 지역순환형 농업의 필요성

#### ■ 지역순환형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생산구조와 농업의 잉여가 제조업 혹은 도시에 수탈되는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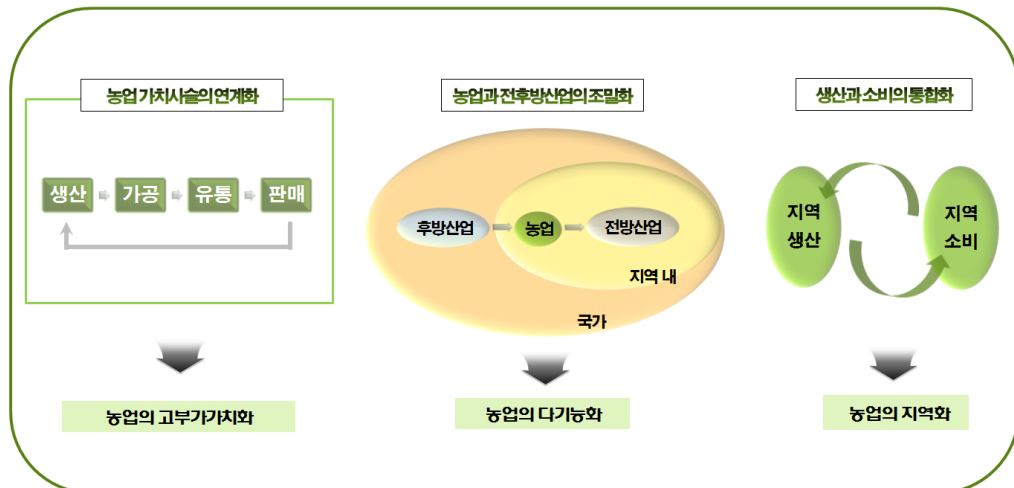
- 지역순환형 농업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지역순환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 즉 과도한 비료와 농약, 그리고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그리고 농업의 잉여가 농업

과 농촌에 귀착되지 못하고 제조업과 도시로 유출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농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산업과 영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음

### ■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3대 발전전략이 필요함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의 다기능화, 그리고 농업의 지역화라는 3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음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농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화 하는 농업가치사슬의 형성으로 농업의 수익구조를 고부가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농업의 다기능화 전략**: 농업을 둘러싸고 전후방 산업 중에서 농업을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방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들 전방산업이 가급적 해당 지역 내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조밀화를 형성해야 할 것임
- **농업의 지역화 전략**: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1-4〉 지역순환형 농업의 개념

### 3.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과 편익

#### ■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

- 자원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필요함
- 다양화: 특정한 활동이 새로운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함
- 영역화: 특정한 자원과 활동이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그 성과가 내재화되어야 함
- 연계화: 특정한 지역의 자원과 활동이 서로 융복합화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해야 함

#### ■ 지역순환형 농업의 편익

- 비용 및 외부의존도 감소
- 경쟁력 있는 주체의 육성
- 성과 및 이윤의 내재화
- 새로운 가치의 창출

〈표 1-2〉 지역순환형 농업의 원칙과 편익

원칙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화</li> <li>- 다양화</li> <li>- 영역화(지역화)</li> <li>- 연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및 외부의존도 감소</li> <li>- 경쟁력 있는 주체의 육성</li> <li>- 성과 및 이윤의 내재화</li> <li>- 새로운 기회의 창출</li> </ul>





# 제2장

## 예산농업의 현황 및 구조분석

---

1.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2. 예산농업의 구조분석
3. 예산농업의 자원분석
4. 예산농업의 진단과 아젠다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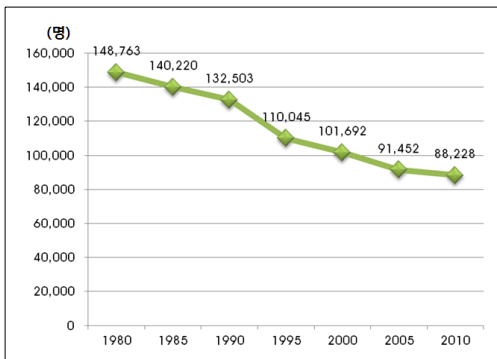


## 제1절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 1. 농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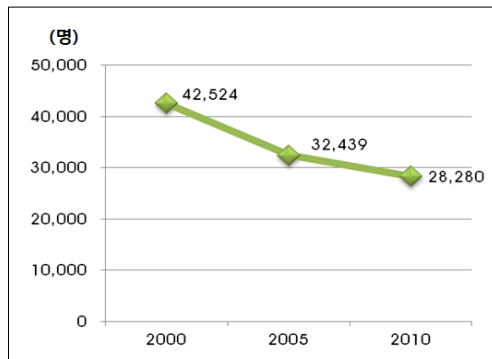
#### ■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1980~2010년까지 최근 30년간 예산군의 인구는 약 50%가 감소하여 2010년 현재 88,228명임
-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인구 역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2000 ~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 농가인구는 42,524명에서 28,280명으로 약 33.5% 감소하였음
- 예산군의 농업인구의 절대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예산군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1〉 예산군 인구변화(198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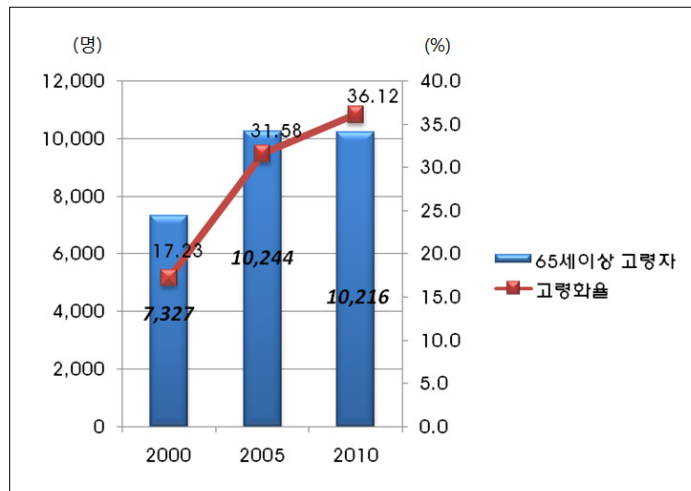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2〉 예산군 농가인구 변화(2000~2010)

#### ■ 농업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

- 예산군의 농업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예산군 농업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7.23%, 2005년 31.58%, 2010년 36.12%를 차지함
- 따라서 지역농업의 활기와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농업을 책임질 영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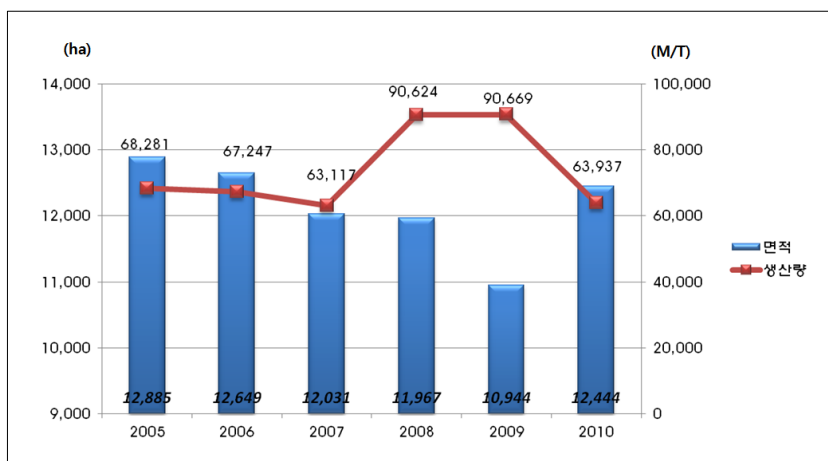
〈그림 2-3〉 예산군 고령인구수와 고령화율

## 2. 농업의 가치사슬

### 1) 2000년 중반 이후 정체하는 지역농업

#### ■ 예산군의 식량작물 면적과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음

- 2005~2010년 간 예산군 식량작물(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의 재배면적은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10년 다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12,444ha에 이름
- 식량작물 생산량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60,000 M/T대로 정체되어 있다 상승하여 2008년과 2009년 90,000 M/T대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2010년 63,937 M/T로 2007년 생산량 수준으로 돌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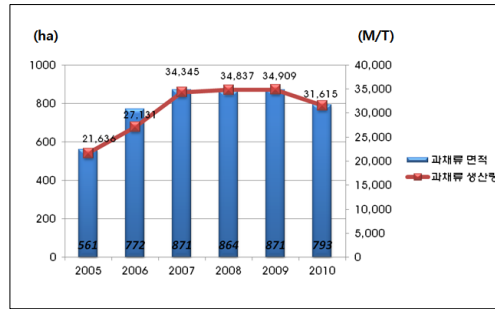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4〉 식량작물 면적과 생산량

### ■ 과채류, 근채류 등 그 외 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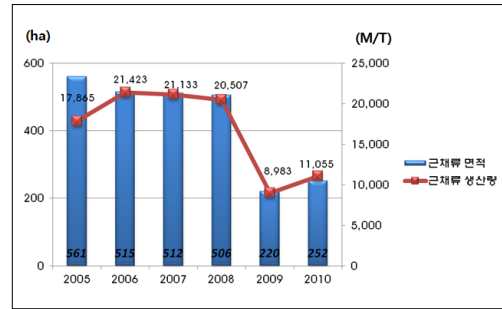
- 과채류와 근채류, 엽채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
- 특히 근채류는 무 생산 감소로 인해 2009년 약 절반가량의 하락세를 보임
- 조미채소는 2007~2009년까지 정체되어 있다가 2010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소폭 상승
- 참깨, 들깨, 땅콩 등의 특용작물은 재배면적이 감소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생산량에 있어 소폭 상승
-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은 2007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지만 생산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패턴을 나타냄. 2010년 과실류 생산량의 감소는 배 생산량 감소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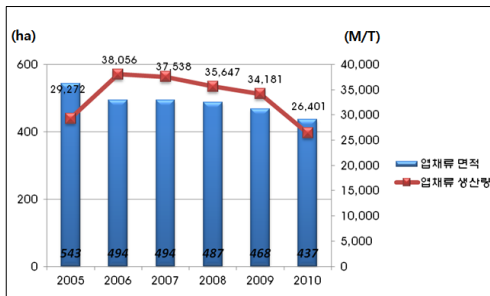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5〉 과채류 면적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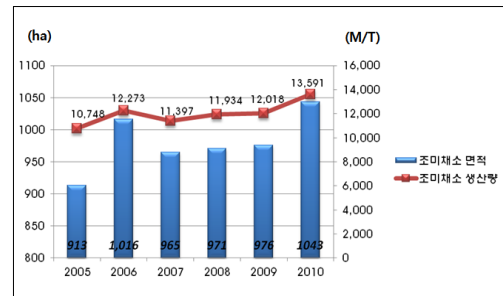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6〉 근채류 면적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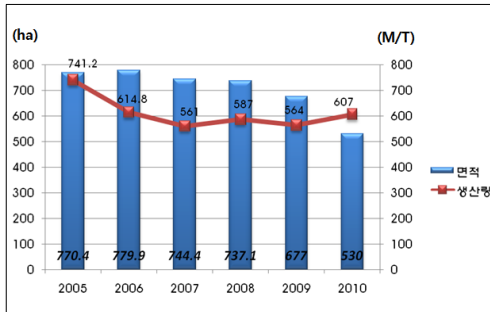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7〉 엽채류 면적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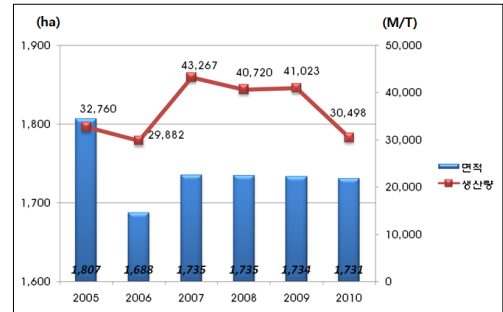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8〉 조미채소 면적과 생산량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9〉 특용작물 면적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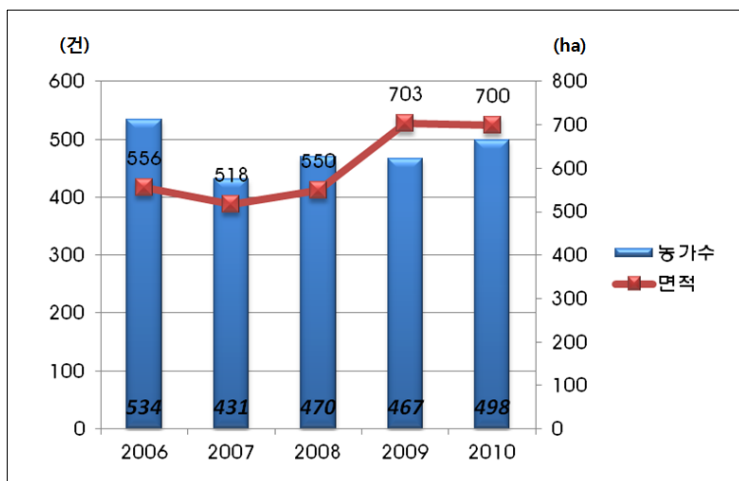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10〉 과실류 면적과 생산

## 2)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완만한 성장

### ■ 예산군의 친환경농업 정책 강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2007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이 매우 저조. 2010년 현재 498농가에서 74건, 700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완만한 성장세는 예산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1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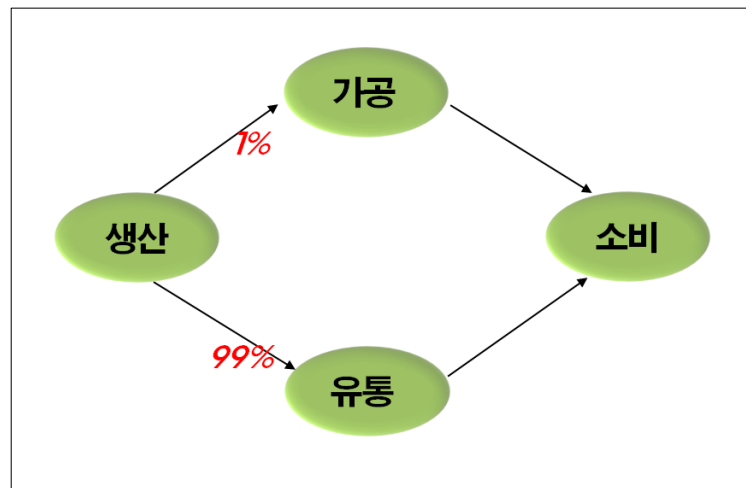
### ■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중 약 절반가량은 저농약농산물에 해당

- 2010년 현재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중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320농가에서 40건, 총 540ha에 달함
-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제외되어 신규인증이 불가하고, 기존 저농약농산물에 대해서만 20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

### 3) 농업의 낮은 부가가치화 구조

#### ■ 예산군 농산물 중 가공 비율은 약 1%로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농산물이 예산군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이중 약 1%만이 가공될 뿐 나머지는 약 99%는 원물 그대로 유통되고 있음
- 가공영역이 미진하여 예산군의 농업구조는 전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으며, 소농에게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님



자료: 관계자 인터뷰로 연구자 작성

〈그림 2-12〉 예산군 농산물 가공 비율

#### ■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공영역 활성화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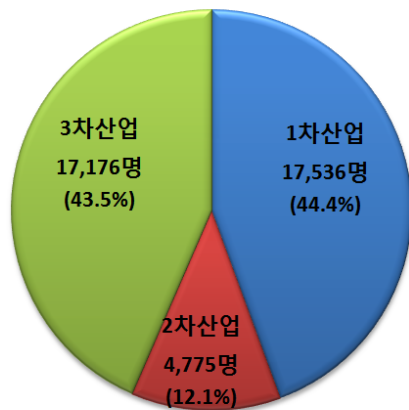
- 원료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DDA,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 폭 증가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군 농가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부문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3. 농업의 전후방산업

#### 1) 1차-2차-3차 산업의 균형적 구성

##### ■ 예산군은 1차, 2차, 3차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달해 있음

-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알려진 예산군의 실제 산업별 종사자 수를 분석해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달해 있음
- 2010년 예산군 산업별 종사자 수는 1차산업 17,536명(44.4%), 2차산업 4,775명(12.1%), 3차산업 17,176명(43.5%)에 이릅니다



자료: 예산통계연보(2011) 및 내부자료

〈그림 2-13〉 예산군 산업별 종사자 수

##### ■ 산업구성의 균형적인 발달은 농업을 통한 소득이 지역 내로 귀착될 수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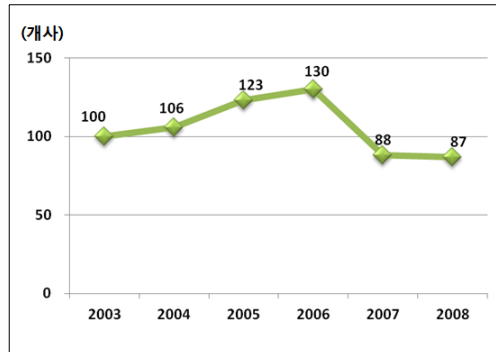
- 약 56%가 비농업 인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을 지역 내로 연결하여 농업소득의 일정부분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전방, 후방산업은 생산흐름에서 산업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의미

- 예컨대 농업의 경우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이 후방산업에 해당되고, 농산물 판매업은 전방산업에 해당됨
- 예산군의 농업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전후방산업의 지역외 의존도가 높으면, 그만큼 농업소득이 지역외로 유출됨을 의미

## 2) 지역기업의 규모와 생산액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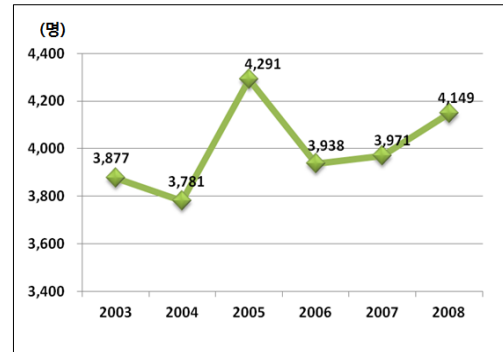
### ■ 2000년대 이후 예산군 제조업체의 규모와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예산군 제조업체 수는 2006년 130개사로 가장 높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7년 88개사, 2008년 87개사가 있음
- 한편,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05년 4,291명으로 가장 높다가 2006년 3,938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4,149명에 이름
- 제조업체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2008년 기준 1조 5,170여 억원의 생산액을 가져옴
- 즉 제조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제조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생산액의 증가도 이를 뒷받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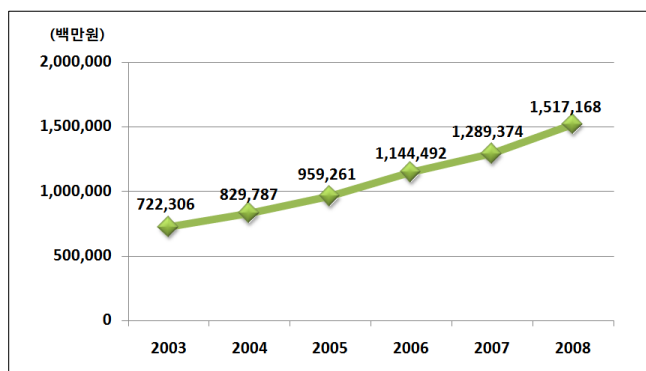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14〉 예산군 제조업체 수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15〉 예산군 제조업체 종사자 수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16〉 예산군 제조업체 생산액

### ■ 예산군 내 제조업체의 성장은 지역 내에서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함

- 예산군에 제조업체가 증가할 경우, 1차적으로 이들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예산지역 농산물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아짐을 의미함
- 뿐만 아니라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산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음식료품 혹은 식당 등이 활성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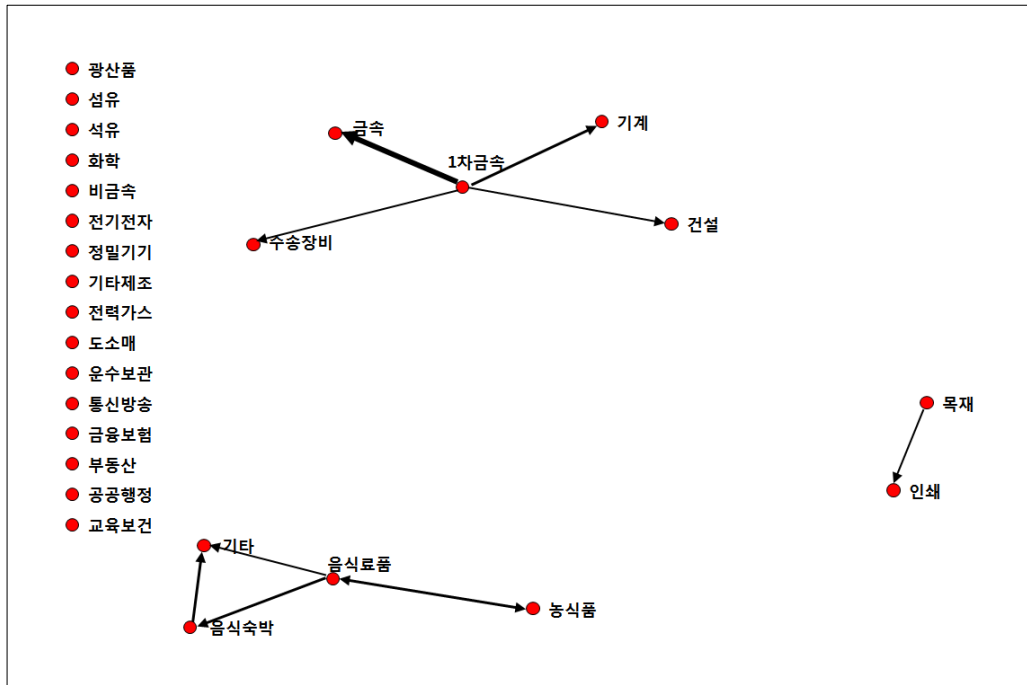
## 3) 농업의 제한적인 전후방 관계 및 약한 네트워크 구조

### ■ 분석자료의 개요

- 2000년과 2010년 산업연관표(28×28부문)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군의 산업연관표를 LQ법에 의해서 작성하였음
- 실제 농업의 전후방 관계분석은 예산군의 투입계수를 UCINET으로 분석하였음

### ■ 2010년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현재 농업은 단순히 음식료품과 산업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다른 산업부문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예산군의 주요 산업은 음식료품, 1차금속, 목재 등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 업종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그림 2-17〉 2010년 예산군 산업연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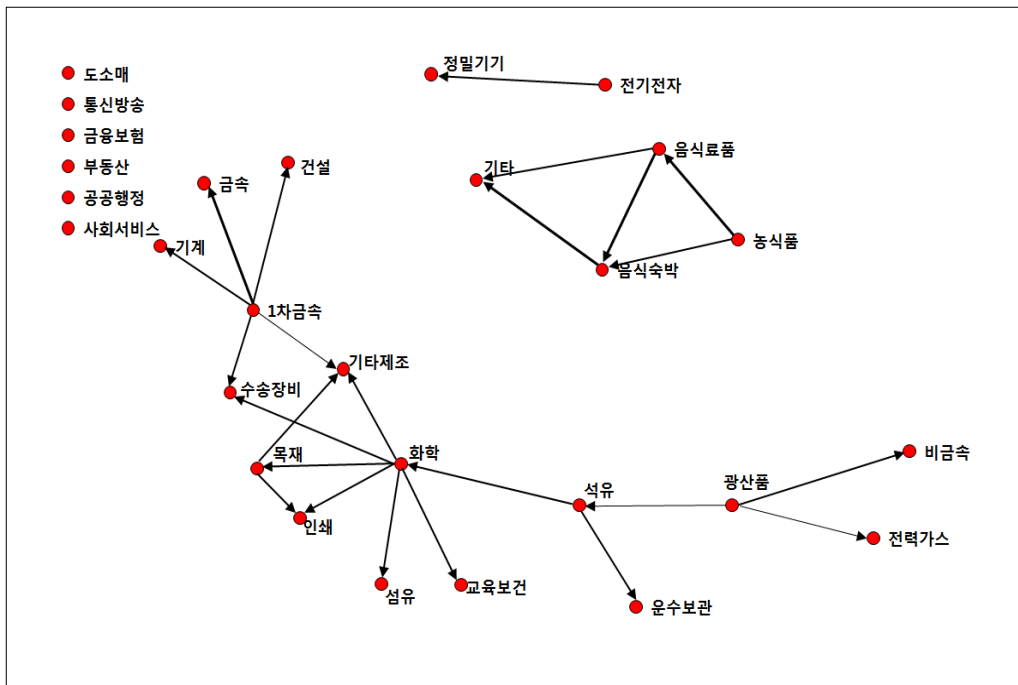
### ■ 2000년 예산군 전후방 산업구조는 2010년에 비해서 발달되었음

- 예산군 농업의 전후방 산업구조는 2000년에 비해서 2010년에 더욱 단순화된 구조, 즉 산업적 연계성이 낮아졌음
- 그러나 농업을 기준으로 볼 때, 농업의 전방산업으로 음식료품과 음식숙박이 형성되었으나, 이것이 2010년에는 음식료품으로 더욱 단순화되었음

### ■ 지역의 산업연계네트워크가 2000년에 비해서 2010년이 더욱 단순화됨

- 2000년에는 3개의 산업연계군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소그룹에는 총 22개의 산업부문이 연결된 반면에, 2010년에는 산업군 3개는 동일하지만 연계된 산업 부문은 11개로 50%가 감소하였음
- 이는 1차금속을 매개로 하여 다른 제조업과 연결된 산업연계네트워크가 2010년도에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결국 2010년의 지역산업네트워크에 존재하는 11개 이외의 17개 산업은 타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8〉 2000년 예산군 산업연계구조

#### 4) 후방산업의 높은 지역외 의존도, 전방산업은 반대구조

##### ■ 농업과 다른 27개 산업(1×27)간의 연계구조로 농업의 전후방산업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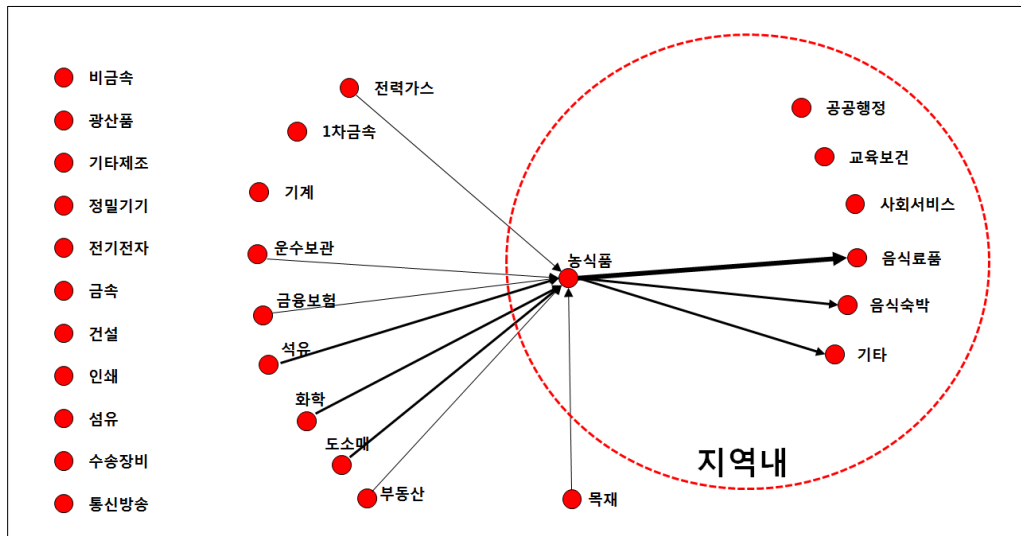
- 28×28부문의 산업연관표로는 농업의 주요 전후방산업을 분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농업과 다른 27개 산업의 산업연관표로 수정하였음

##### ■ 농업의 주요 후방산업은 석유와 화학, 도소매업 외 총 8개 산업임

- 농업의 주요 후방산업은 농업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석유, 화학 등의 농자재이고, 그 외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후방산업은 주로 예산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 농업의 주요 전방산업은 음식료품, 음식숙박, 기타임

- 농업의 전방산업은 음식료품, 음식숙박, 기타로 후방산업에 비해서 미약한 실정. 이는 농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
- 특히 농업의 전방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공행정, 교육보건,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도 농업과 취약한 연계구조를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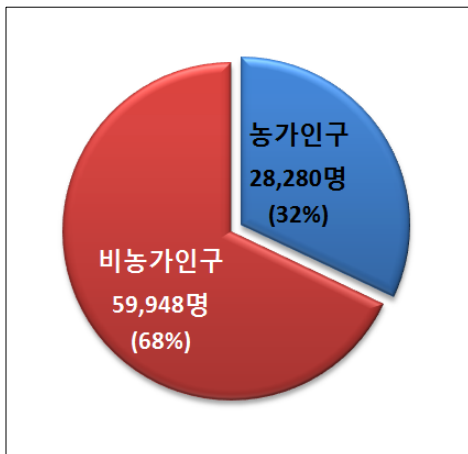
〈그림 2-19〉 예산 농업의 전후방산업 연계구조

## 4. 생산과 소비

### 1)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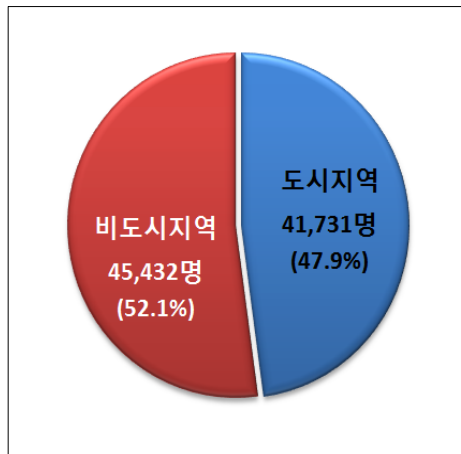
#### ■ 예산군은 농촌과 도시적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

- 2010년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28,280명(32%), 비농업인구는 59,948명(68%)으로 지역인구 중 50% 이상이 농사를 짓지 않음
- 도시적 요소를 지닌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분류해볼 때도 도시지역에 41,731명(47.9%), 비도시지역 45,432명(52.1%)이 거주하고 있어 예산군은 농촌과 도시적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임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20〉 농가인구와 비농가 인구(2010)



자료: 예산통계연보, 2011.

〈그림 2-21〉 도시와 비도시지역 인구(2010)

### ■ 지역내 비농업인구와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할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

- 현재의 농업구조에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서울로 집중이 된 이후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획일적 구조를 갖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아직 농업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농산물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 지역내에서 농가와 소비자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대부분 지역외로 송출되고 있음
- 예산군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더라도 지역외에서 다시 들어오는 유통경로를 거쳐야 함
- 따라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화 시스템이 필요

## 2) 지역내 다양하고 많은 공공기관의 위치

### ■ 400여개가 넘는 다양하고 많은 공공기관이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음

- 주요 관공서, 공법인, 국가유공자단체, 정보통신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종합병원 및 기타 각종단체 등 예산군 내에는 4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더 많은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1〉 예산군 소재 공공기관

<b>● 주요 관공서 17여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군청</li> <li>- 예산군의회</li> <li>- 운전면허시험관리단(예산운전면허시험장)</li> <li>- 예산경찰서</li> <li>- 예산소방서</li> <li>- 충청남도 예산 교육지원청</li> <li>- 도서관(삼교공공도서관, 예산도서관)</li> <li>- 충청남도농업기술원</li> <l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li> <li>- 예산세무서</li> <li>-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예산군법원)</li> <li>- 대전지방법원(예산등기소)</li>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예산출장소)</li> <li>- 예산우체국</li> <li>- 예산국도관리사무소</li> <li>-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li> </ul>	<b>● 언론기관 26여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사 23곳</li> <li>- 방송사 3곳</li> </ul> <b>● 금융기관 39여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2곳(국민은행, 하나은행)</li> <li>- 농협 10곳</li> <li>- 축협</li> <li>- 산림조합</li> <li>- 보험회사 17곳</li> <li>- 상호저축은행</li> <li>- 새마을금고</li> <li>- 신용협동조합 5곳</li> <li>- 증권회사 1곳 (한화증권)</li> </ul> <b>● 교육기관 101여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3곳(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외)</li> <li>- 신학교 1곳(충청연회충청신학원)</li> <li>- 중·고등학교 17곳(고덕중학교 외)</li> <li>- 초등학교 24곳(고덕초등학교 외)</li> <li>- 유치원 27곳(금오병설유치원 외)</li> <li>- 어린이집 27곳(계룡어린이집 외)</li> </ul>
<b>● 공법인 19여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8</li> </ul>	<b>● 종합병원 2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명지병원</li> <li>- 예산삼성병원</li> </ul>
<b>● 정보통신기관 1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 예산지점</li> </ul>	<b>● 각종단체 21여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제조합 외 20개</li> </ul>

### ■ 공공기관을 활용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음

- 지역 농산물을 공공기관 급식과 학교 급식으로 연결 짓는다면 다량의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명절 및 기타 선물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

### ■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예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영역 확보

- 충남도청 등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예산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될 것임
-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에 소재하는 있는 각종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공급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3)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다양한 농업자원의 보유

### ■ 예산군은 다양한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음

- 예산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주요 특산물로는 사과, 한과, 쪽파, 수박, 느타리버섯, 쌀, 파리고추, 토마토, 전통옹기, 애호박, 사과잼과 통조림, 팽이버섯, 오이, 샐러리 더덕, 표고버섯 등 그 종류가 무려 15가지에 이름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특산물은 지역적 명성을 갖지 못하거나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 주산지로서 경쟁력은 없으나 다수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음

-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주요 특정 작물에 비중이 치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농산물이 고루 재배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예산군 농업 구성비는 은행과 사과, 수박이 약 3%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마토와 배, 들깨, 시금치 등이 약 2%대를 차지하고 있음
- 이밖에 땅콩, 쌀, 배추, 고구마, 인삼 등이 1%를 차지

〈표 2-2〉 예산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작목명	재배면적 (평)	2010	2005	구성비 (%)	작목명	재배면적 (평)	2010	2005	구성비 (%)
젓소	15,173	3		3.7	잣	2	25		0.2
은행	12	4		3.3	마늘	86	27	23	0.5
토마토	100	8	17	2.3	참깨	99	28	44	0.9
사과	1,085	9	9	3.3	무	83	28	18	0.5
수박	362	11	9	2.9	육계	1,304,095	29		1.3
배	294	11	9	1.8	화훼	33	29		1
들깨	250	11	3	1.9	딸기	26	32	27	0.5
시금치	126	12		2	오이	31	35	33	0.8
땅콩	34	16	11	1.4	산란계	452,887	39		0.9
사슴	645	19		1.1	호박	35	46		0.7
배추	332	19	28	1.1	고추	335	48	47	0.7
쌀	10,761	20	20	1.3	콩	349	52	71	0.6
토끼	1,761	20		1	매실	29	57		0.4
고구마	214	23	19	0.9	염소	1,739	59		0.7
인삼	193	25	26	1.1	꿀벌	4,843	61		0.6

자료: 통계청(2010, 2005), 농림어업총조사 DB 자료 분석 결과



사진: 예산군청(<http://www.yesan.go.kr>)

〈그림 2-22〉 예산군 주요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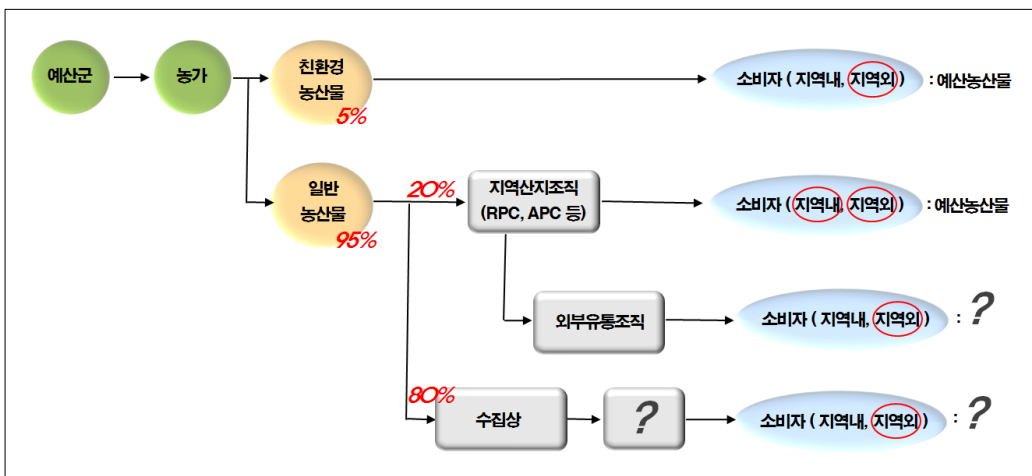
#### 4) 지역농산물의 지역외 높은 송출구조

##### ■ 대부분의 지역농산물은 얼굴 없는 형태로 수집상을 통해 외지로 송출됨

- 전체 생산량의 약 76% 정도는 수집상을 통해서 어디에서 생산된 농산물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시장에 유통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농산물이 수집상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를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 지역산지유통센터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19%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

- 지역산지유통센터의 규모와 자금 등의 제약으로 약 19%만이 처리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 지역산지유통센터를 통할 경우 지역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로를 확보하게 됨. 예컨대 지역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예산쌀이 지역의 상점에 공급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음
- 한편 지역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대형할인점에 공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형할인점의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함으로써 실제 예산농산물을 표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자료: 관계자 인터뷰로 연구자 작성

〈그림 2-23〉 예산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직거래를 통해 예산농산물로 유통됨

- 친환경농산물은 5% 내외에 불과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유통됨으로써 예산농산물임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지 못하고, 도시민들이 주요 고객으로 설정되고 있음

## 5. 분석결과의 종합

〈표 2-3〉 예산농업 일반현황의 종합

#### 【 농업의 가치사슬 】

- ① 2000년 중반 이후 정체하는 지역농업
- ②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완만한 성장
- ③ 농업의 낮은 부가가치화 구조

#### 【 농업의 전후방산업 】

- ① 1차-2차-3차 산업의 균형적 구성
- ② 지역기업의 규모와 생산액의 증가
- ③ 농업의 제한적인 전후방관계 및 약한 네트워크 구조
- ④ 후방산업의 높은 지역외 의존도, 전방산업은 반대구조

#### 【 생산과 소비 】

- ①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
- ② 지역내 다양하고 많은 공공기관의 위치
- ③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다양한 농업자원의 보유
- ④ 지역농산물의 지역외 높은 수출구조

## 제2절 예산농업의 구조분석

### 1. 분석개요

#### ■ 분석자료

- 예산농업의 구조분석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매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마이크로자료를 분석하도록 함
- 예산농업의 구조분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의 자료는 2005년과 2010년의 농림어업총조사로 함

#### ■ 분석내용

- 예산농업의 구조분석을 위해서 농업의 규모와 범위, 재배작물, 농가소득, 농업경영, 농업고용, 농업유통 등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함
- 예산농업의 구조를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차원을 예산군, 충청남도, 그리고 전국으로 구분하도록 함

#### ■ 표본수

- 2010년 데이터의 자료
  - 예산군 11,118농가, 충청남도 151,424농가, 전국 1,177,318농가
- 2005년 데이터의 자료
  - 예산군 12,127농가, 충청남도 163,197농가, 전국 1,272,908농가

〈표 2-4〉 예산농업 구조분석 표본수

(단위: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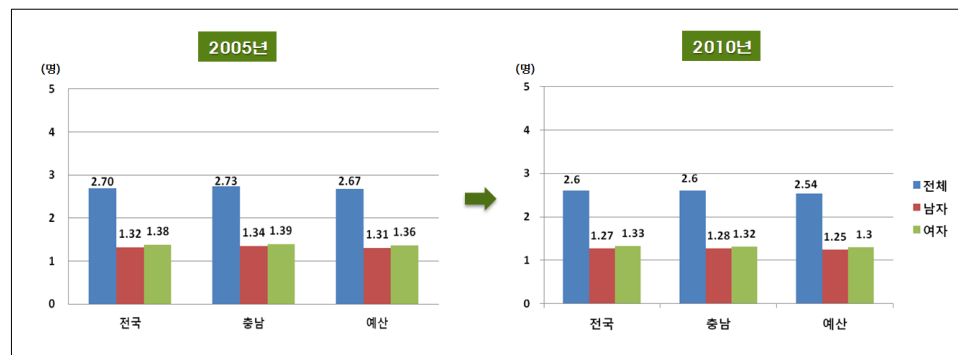
	2005년	2010년
전국	1,272,908	1,177,318
충남	163,197	151,424
예산	12,127	11,118

## 2. 농업의 규모와 범위

### 1) 농업의 규모

#### ■ 전국 평균의 농가규모

- 2010년 현재 예산군의 농가인구는 평균 2.54명이고, 이중 남자는 1.25명, 여자는 1.30명임
- 예산의 농가규모는 전국 및 충청남도의 평균규모인 2.60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남자와 여자의 구성 또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5년과 비교할 때, 예산을 비롯한 충남 및 전국의 농가인구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과거처럼 급속한 감소추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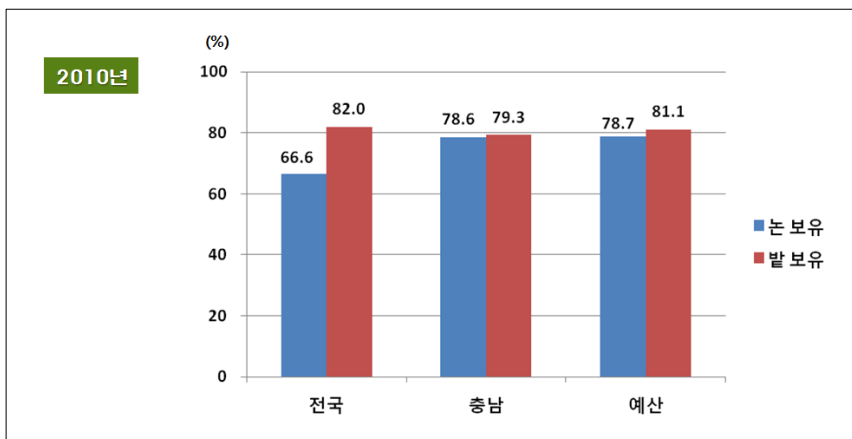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24〉 예산군 농가의 규모

#### ■ 논과 밭의 자가 보유 비중은 전국과 유사 - 대부분 자기 논/밭

- 예산군 농가 중 78.7%는 자기 논을 소유하고 있고, 밭은 81.1%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음
- 예산군에서 자가논과 자가밭의 비중은 전국적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국의 자가논 비중에 비해서 예산의 자가논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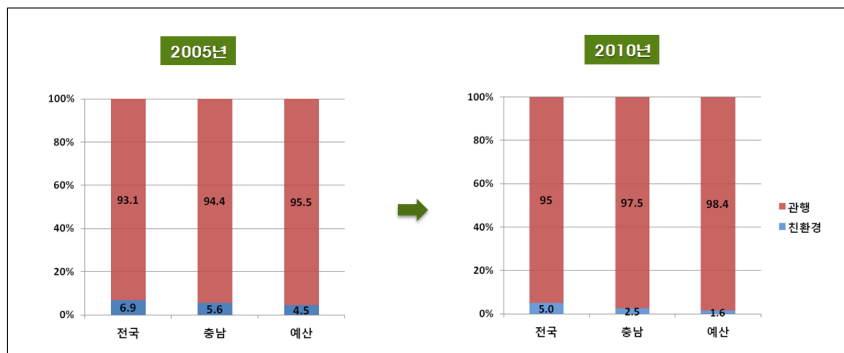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25〉 논, 밭 보유 비중

## 2) 농업의 범위

### ■ 친환경 재배농가가 취약(1.6%) - 친환경 재배농가 감소

- 친환경농업의 농가비중은 1.6%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전국의 친환경 농가 비중 5%와 큰 차이가 있음. 그리고 충남도의 2.5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임
- 2005년의 경우 친환경농가의 비중이 4.5%였지만, 예산군에서 친환경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가의 비중은 2010년에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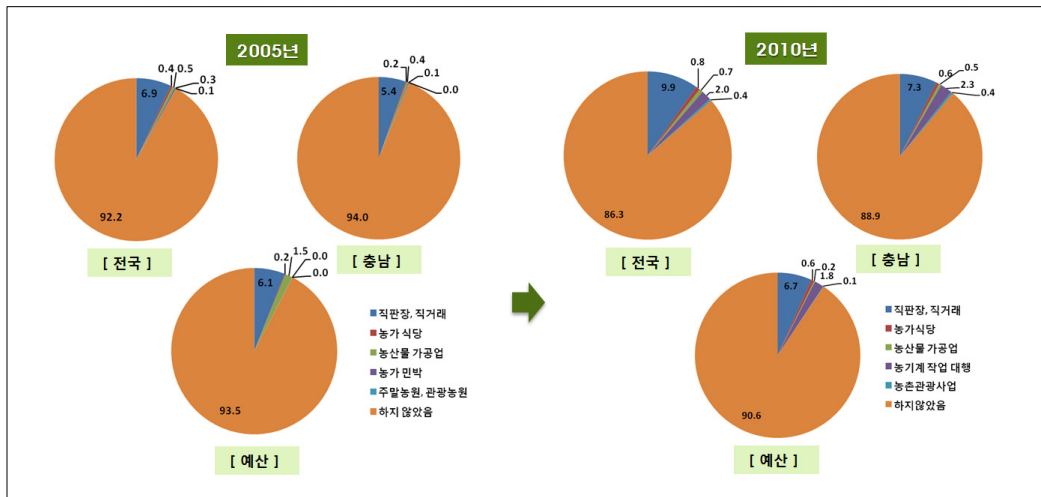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26〉 예산군 친환경 농가 비중

## ■ 재배 중심의 단순한 농가활동(90.6%) - 다기능적 농업 시급

- 농업의 비농업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기능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군 전체 농가의 90.6%는 오로지 농업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직판장/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등 다기능적 농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9.4%에 불과함
- 반면 전국차원에서 볼 때, 오로지 농업활동만을 하는 농가가 86.3%인 것을 고려할 때, 예산은 재배 중심의 매우 단순한 농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2005년의 경우, 예산과 충남, 전국은 다기능적 농업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다기능농업이 활성화 됨. 반면 예산의 경우에는 2005년과 큰 변화가 없었음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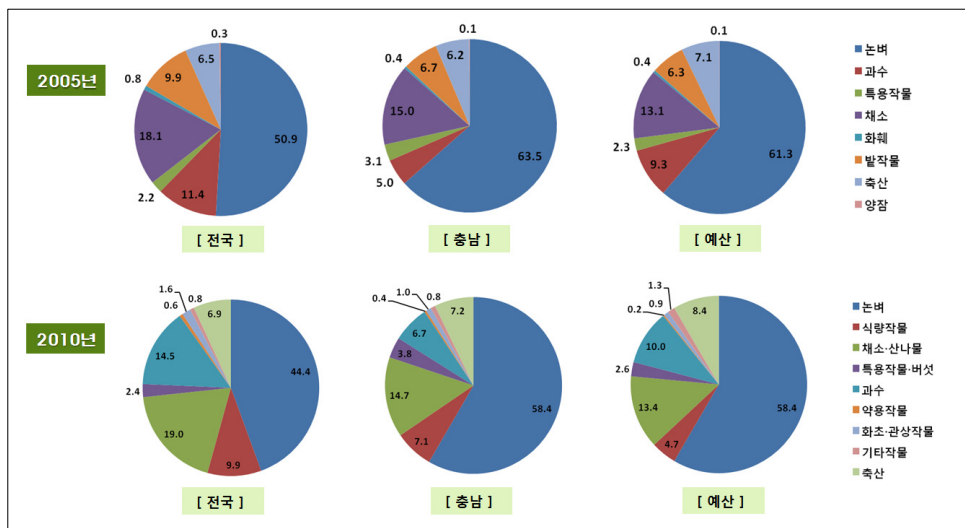
〈그림 2-27〉 예산군의 다기능적 농업의 비중

### 3. 재배작물과 농가소득

#### 1) 재배작물

##### ■ 벼와 채소, 과수 중심의 작물재배 구조

- 2010년 현재 예산의 주요 재배작물은 벼(58.4%), 채소(13.4%), 과수(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난 2005년과 거의 유사한 형태임
- 전반적으로 볼 때, 벼 재배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그 외의 재배작물은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예산과 충남의 경우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벼재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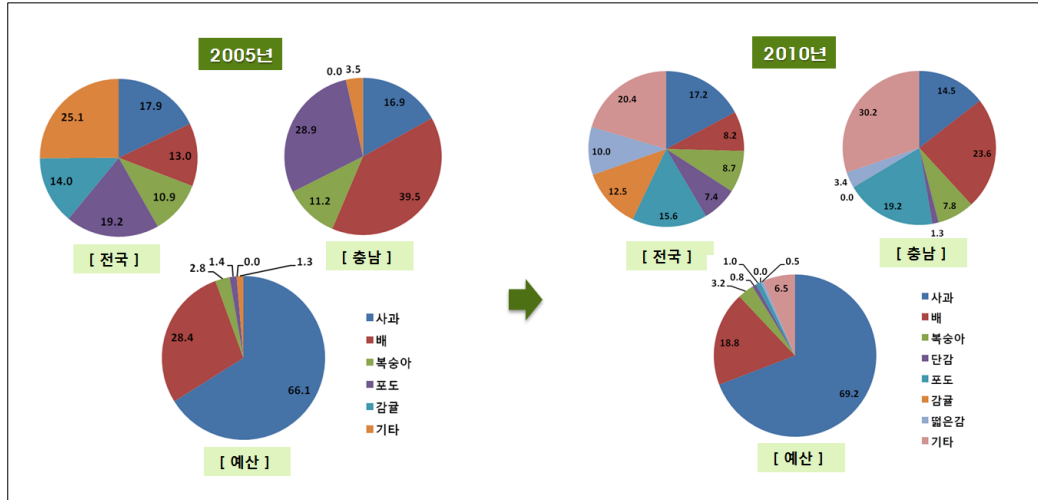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28〉 주요 재배작물

##### ■ 사과 중심의 과수구조 - 배는 감소, 감은 증가

- 예산의 대표적인 과수작물은 사과(69.2%)와 배(18.8%)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5년과 비교할 때, 사과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배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음. 한편 과거에 비해서 감의 재배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남과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 다양한 과일이 재배되는 반면, 예산은 사과와 배, 그리고 감으로 특성화되어 있다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29〉 주요 재배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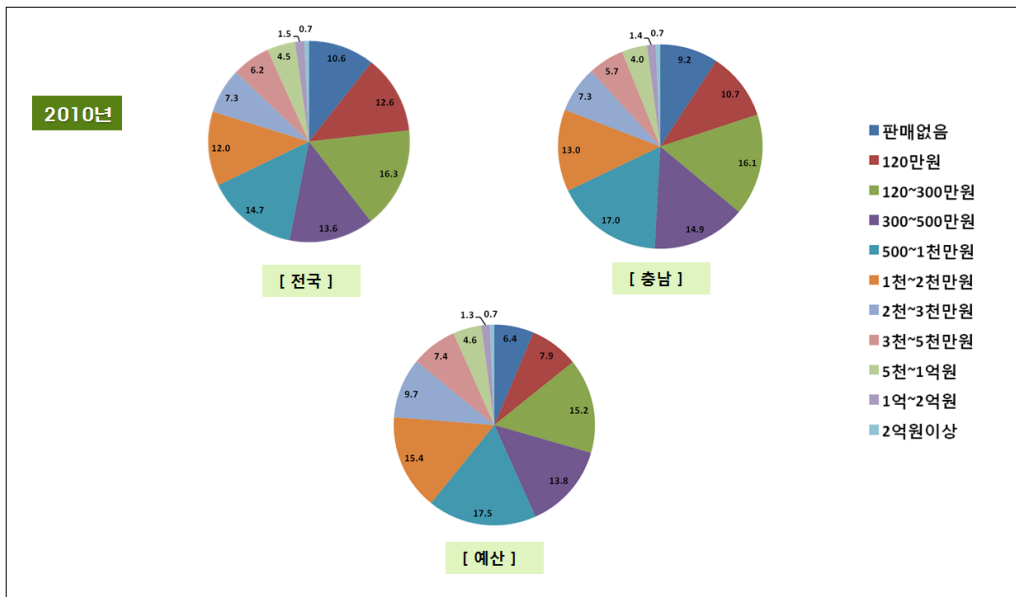
## 2) 농가소득

### ■ 3천만원 이하의 농가가 전체의 85.9%

- 2010년 현재 예산의 농가 중 연간 농작물 판매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농가가 85.9%임. 따라서 대다수의 농가는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1억원 이상의 대농은 2%에 불과한 실정임
- 예산지역 농가의 소득규모는 충남과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갖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소농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사업의 확충이 요구됨

### ■ 농작물 판매규모의 축소

- 2005년 예산군의 농가 중 연간 농작물 판매소득 3천만원 이하는 82.1%
- 지난 5년간 농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늘고 있으나 농작물 판매규모는 축소되고 있음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0〉 농가소득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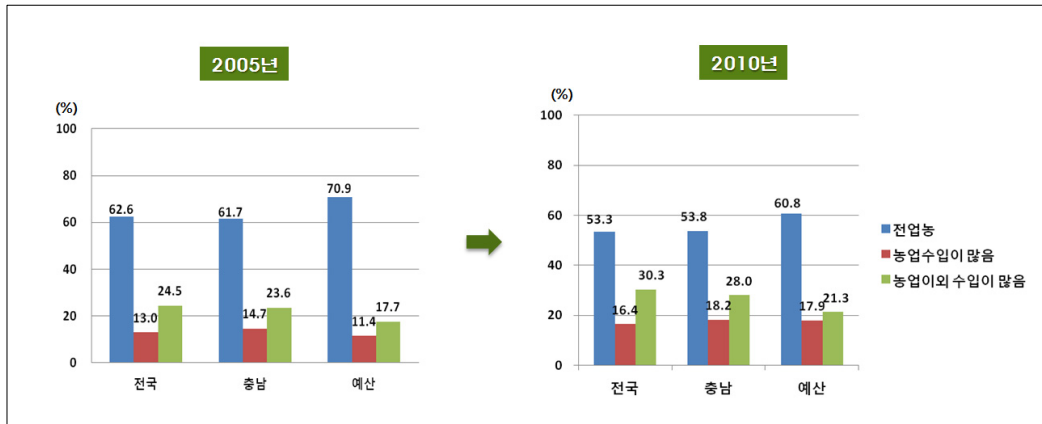
## 4. 농업경영과 농업고용

### 1) 농업경영

#### ■ 전업농 위주의 농가구성(60.8%) - 최근 10% 감소

- 2010년 현재 전체 농가 중 전업농의 비중은 60.8%이고, 농업수입이 많은 경우는 17.9%, 농업이외 수입이 많은 경우는 21.3%임
- 지난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전업농은 대폭 감소된 반면, 비전업농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예산은 전국과 충남에 비해서 전업농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비전업농의 비중은 오히려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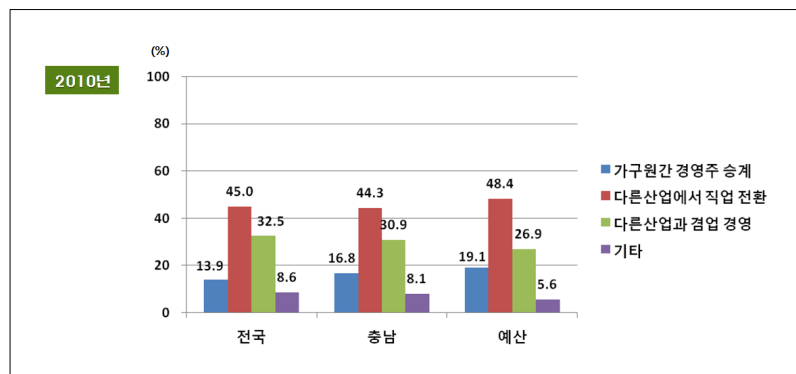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1〉 예산군 전업농의 비중

### ■ 타 산업에서 직업 전환이 다수(48.4%)

-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전체 농가 중 48.4%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농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원래 농업이 가업으로 승계된 경우는 19.1%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예산은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겸업 비중이 26.9%로 충남의 30.9%와 전국의 32.5%보다 낮은 실정임
- 농업의 종사자가 당초 농업을 짓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직업에서 전환 혹은 겸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농정정책에서 귀농귀촌인력을 어떻게 교육·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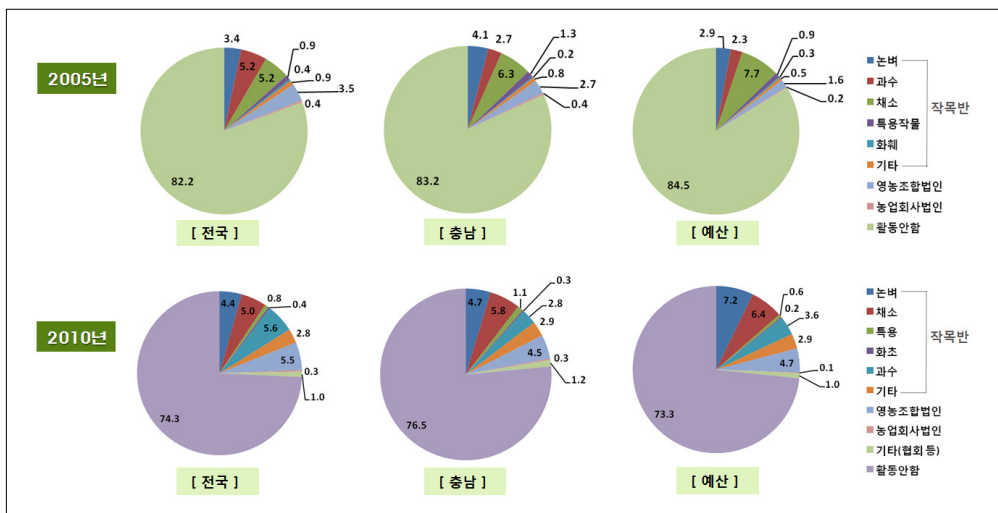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2〉 경영주의 농업경영동기

### ■ 개별 농가 단위의 독자적 영농구조

- 2010년 현재 예산지역 농가의 73.3%는 어떠한 작목반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작물의 영농조직화를 보면 벼가 7.2%, 과수가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에 비해서 영농조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영농조직화가 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친환경벼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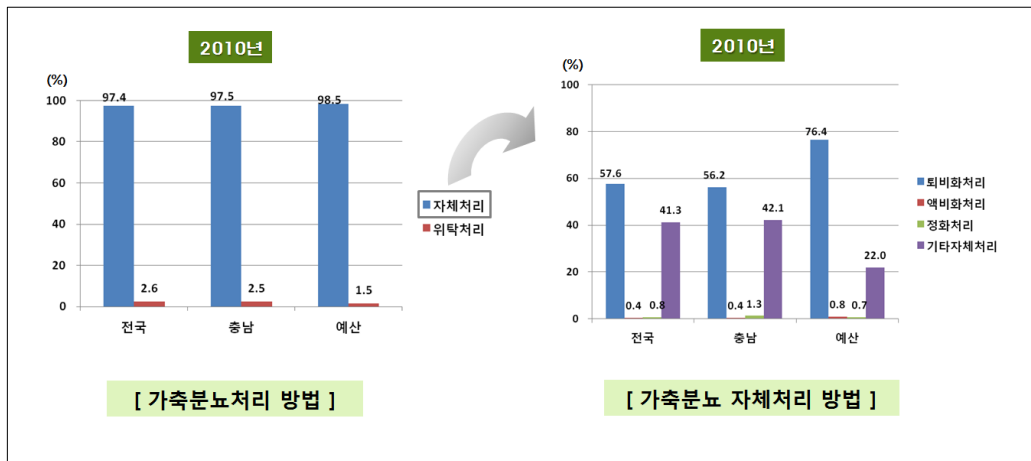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3〉 작목별 영농조직화

### ■ 가축분뇨는 자체처리, 퇴비화 처리 위주

- 2010년 현재 예산지역 농가는 가축분뇨를 대부분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국적 비중과 유사하지만, 전국과 충남의 위탁처리 비중과는 1%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예산지역은 대부분 분뇨를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반면에 충남과 다른 지역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축농업의 메커니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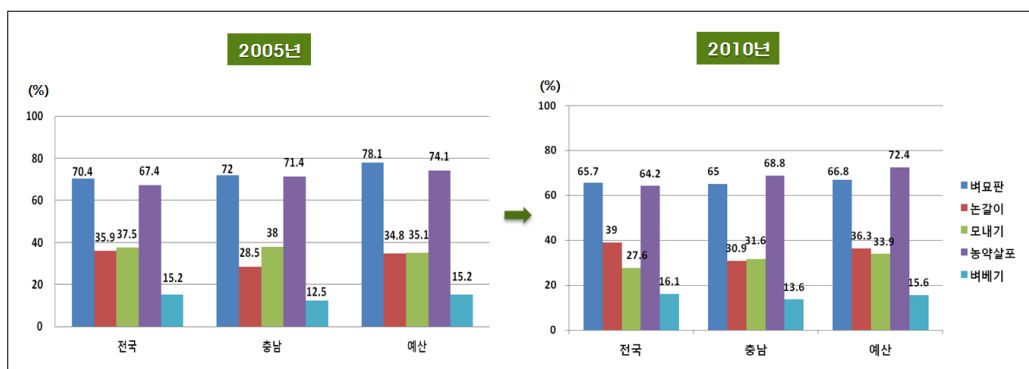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4〉 가축분뇨의 처리와 방법

## 2) 농업고용

### ■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는 다른 사람에 의존

- 벼농사의 경우, 벼모판과 농약살포는 직접 하지만, 그 외 논갈이와 모내기, 그리고 벼베기 등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음
-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벼농사를 짓는 경향은 2005년에 비해서 2010년에 더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벼농사의 경우, 앞으로 영농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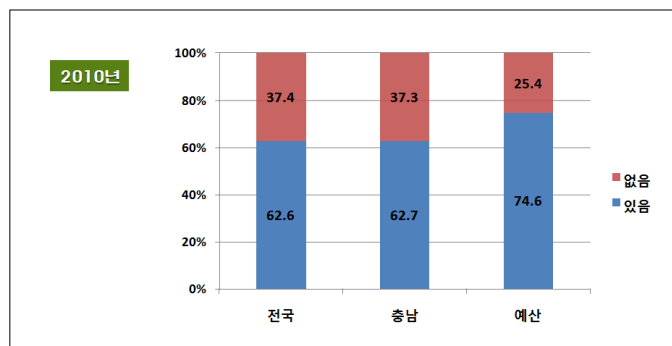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5〉 자가 비농사 비중

### ■ 전국 평균보다 높은 농기계의 보유(74.6%)

- 예산의 경우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농가의 74.6%로, 이는 충남의 62.7%와 전국의 62.6%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는 예산이 비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농기계화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산군은 영농기계화 보다는 영농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농업정책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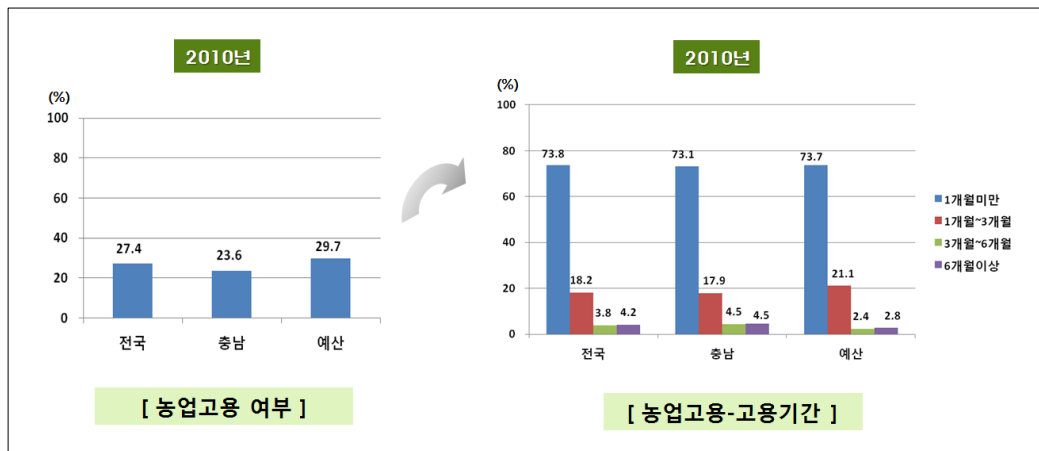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6〉 농기계 보유 여부

## ■ 약 30%의 농가에서 외부인력 고용, 1개월 미만이 다수

- 전체 농가의 29.7%가 1명 이상의 외부인력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전국의 27.4%, 그리고 충남의 23.6%에 비해서 높은 편임
- 농가에서 영농을 위해 자체노동력 이외의 외부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음
- 한편 농가의 고용인력은 1개월 미만이 전체의 73.7%에 해당되고, 6개월 이상은 불과 2.8% 수준임. 이는 전국과 충남과 동일한 형태임. 이는 영농인력이 파종과 수확 등의 일정한 시점에 집중되기 때문임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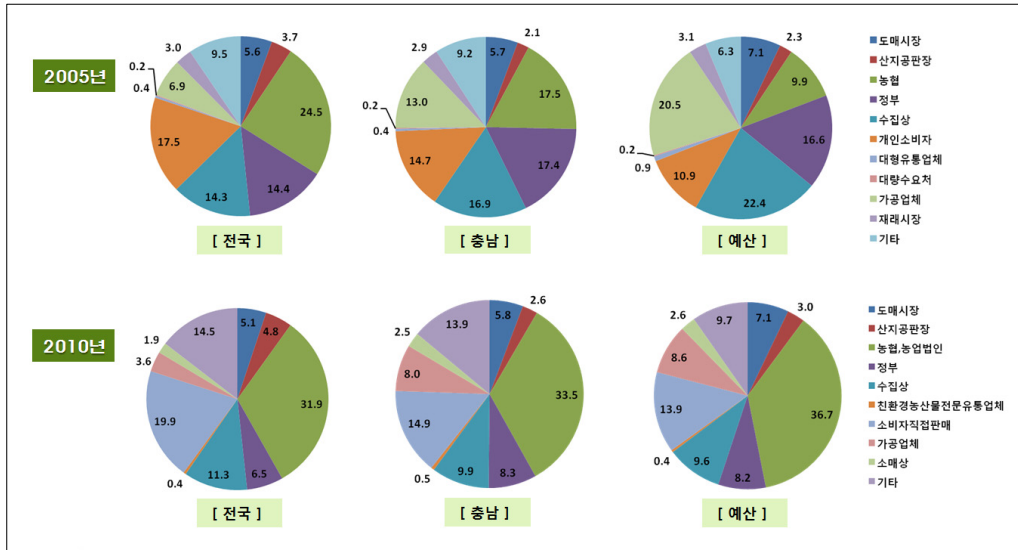
〈그림 2-37〉 농업고용 및 고용기간

## 3) 농업유통

### ■ 수집상과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

- 2010년 현재 예산지역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 산지공판장이 3.31%임. 그 외는 60%는 수집상과 도매시장 등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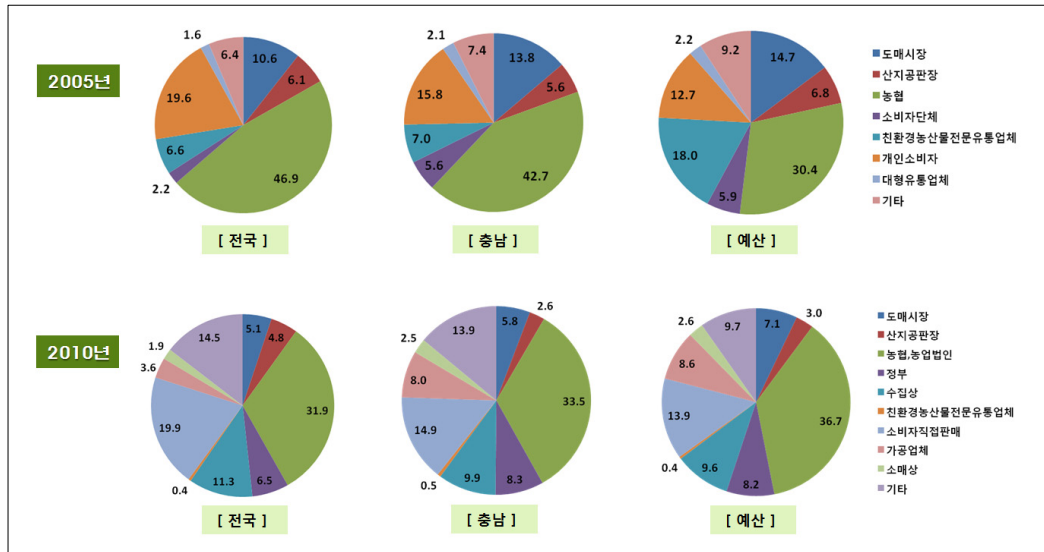
- 그러나 2005년과 비교할 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농협과 산지공판장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임. 한편 최근 들어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그림 2-38〉 농산물의 유통구조

### ■ 농협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36.7%) - 낮은 직거래

-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농협임. 이는 예산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충남과 전국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임
- 반면 직거래의 비중은 10.8% 수준이고, 이는 2005년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임. 따라서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시장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분석결과

〈그림 2-39〉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구조

## 5. 분석결과의 종합

〈표 2-5〉 예산농업 구조분석의 종합

구분	특징
농업규모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평균의 농가규모</li> <li>- 전국과 유사한 논/밭의 자가 비중</li> <li>- 친환경 재배농가의 취약</li> <li>- 재배 중심의 단순한 농가활동</li> </ul>
재배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 채소, 과수 중심의 작물재배 구조</li> <li>- 사과 중심의 과수구조</li> </ul>
농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천 만원 이하의 농가가 대부분</li> <li>- 농작물 판매규모의 축소</li> </ul>
농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 위주의 농가구성</li> <li>- 타 산업에서 직업 전환의 높은 비중</li> <li>- 개별 농가 단위의 독자적 영농구조</li> <li>- 가족분뇨는 자체처리, 퇴비화가 위주</li> </ul>
농업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벼농사 구조</li> <li>- 전국 평균 보다 높은 농기계 보유</li> <li>- 농가의 30%에서 외부인력 고용</li> </ul>
농업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상과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li> <li>-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농협 의존도, 낮은 직거래 비중</li> </ul>

## 제3절 예산농업의 자원분석

### 1. 향토자원

#### ■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에 조사한 예산군의 향토자원은 총 286개임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통기술이 2건, 특산물이 38건, 관광이 96건, 문화가 61건, 물류가 11건, 사람이 10건, 생활이 1건, 시설이 11건, 자연이 52건, 작품이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자원의 활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핵심자원이 3건, 유망자원이 6건임

- 핵심자원으로는 신흥리 삼베길쌈, 봉대민속공방공예품, 전통예산옹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망자원으로는 예산능금, 광시한우고기, 예산5미, 예당저수지, 추사고택, 수덕사 및 대웅전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잠재자원 4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6〉 예산지역의 향토자원

구 분		자 원 명	자원의 특성
총 계		55개	
계		3개	
핵심 자 원 (3)	소 계	1개	
	전통기술	신흥리삼베길쌈	농촌전통테마마을,의생활 전통기술,베짜기 (삼베),체험관 운영(민박체험,짚풀공예, 천연염색등)
	소 계	2개	
	특산물	봉대민속공방공예품	정봉기, 추사체목공예제품, 장인정신(3대) 충남도 우수중소기업
		전통예산옹기	우리고유 전통생활옹기, 명장 황충길, 4대, 우수 수출기업
계		6개	



구 분		자 원 명	자원의 특성
유 망 자 원 (6)	소 계	3개	
	특산물	예산능금	지역농특산물, 황토사과, 2차가공품개발등
		광시한우고기	지역축산물, 한우타운, 암소한우, 뛰어난육질
		예산 5미	지역의 대표음식(전통소갈비, 예당붕어찜, 수덕사산채정식, 삼다리곰창, 민물어죽)
	소 계	1개	
	시 설	예당저수지	전국제일낙시터, 예당관광지, 내수면어업
	소 계	1개	
	문 화	추사고택	문화유적(고택), 예술혼과한국고건축대표 관광지 및 체험장, 1700년중반건립(대갯집)
	소 계	1개	
잠 재 자 원 (46)	관 광	수덕사 및 대웅전	덕숭산의 천년고찰, 국보49호, 고려목조 대표건축물, 대한불교조계장제7교구본사
	계	46개	
	소 계	8개	
	자 연	가야산	지역 명산, 가야봉, 옥양봉, 석문봉
		덕숭산	지역 명산, 명승고적(수덕사)
		금오산	지역 명산, 금빛 까마귀 설화
		봉수산	지역 명산, 임존성, 봉화의 머리 닮음
		무한천	지방하천(32.8km), 국가하천(13.24)
		삼교천	국가하천(31.9km), 예산->당진 합류
		은행나무	지역 고목, 수령 200년이상, 수고 30~40m
	소 계	2개	
	사 랑	이응노화백 및 유적미술관	호 고암, 화가(프랑스 활동), 사적지, 미술관
		이광수	예술가, 사물놀이, 남사당 비나리, 민족음악원
	소 계	1개	
	작 품	한국문인장박물관	경기대학교수이재인, 악어새, 인장 천여점보유
	소 계	7개	
	특산물	황금쌀	예산군 통합 RPC, GAP현대화시설 가공
		미황	예산군 대표 브랜드, 친환경쌀, 피롤농법
		의좋은 형제쌀	대흥 의좋은형제, 특허등록, 공동브랜드
		창소리 쪽파	4계절 시설채소, 물류시설 및 판매망 용이
		삼다리 찜	예산농산, 지역농산물, 수출, 제과공장 납품
		삼다리전통한과	삼교지대 찹쌀, 2대전수, 다이어트식품
		의좋은형제 사과와인	생산, 가공, 판매, 교육, 체험프로그램, 수출
	소 계	3개	
	시 설	고암선미술관	이응노화백 업적, 작품, 수덕사
		윤봉길기념관	농촌계몽운동, 월진회, 항일운동등 업적
		추사기념관	추사 김정희 선생 일대기 및 작품전시
	소 계	13개	

구 분	자 원 명	자원의 특성
문 화	의종은 형제 유적	조선시대 이성만, 이순 형제우애, 효행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
	백제임존성	백제 부흥군 항전지, 위령제, 묘순이바위
	보부상놀이	과거 상거래 유통문화, 예덕 상무사
	임존성백제부흥군위령제	백제부흥군과 민초 넋을 기림
	김한중의사생가기념관	김한중, 독립운동가, 대한광복회
	남연군묘및비문	충남도기념물및문화재,쇄국정책,천주교 탄압
	대련사(원통보전)	충남도문화재, 봉수산, 백제부흥군
	대흥동헌	조선시대 대흥현 관아, 이성만이순 형제비
	대목장(전흥수)	중요무형문화재,한국고건축박물관장, 신지식인선정
	보덕사(극락전)	충남도 유형문화재, 흥선대원군창건
	예산오리동성당	1933년건축, 삼량식건축, 천주교 전파
	덕산온천지구유	1918년개발, 약알칼리성,관광지연계발전
	소 계	12개
관 광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산군산림휴양시설,등산로,저수지등관광지
	(주)리솜리조트	온천스파시설,국가보양온천지정,관광산업
	한국고건축박물관	대목장전흥수,민족생활공간,송례문축소
	김흥경묘역 및 백송	천연기념물 106호, 희귀종, 수령200년
	대흥향교및은행나무	조선교육기관, 문화유적, 600년고목
	향천사	백제 의각스님 창건, 9층석탑, 범종
	삼우갈비	전통맛집,모범음식점, 담백 깔끔 육즙
	소복갈비	전통맛집, 모범음식점, 3대,체인점(홍성)
	할머니네딸 숯불곱창	1964년,친정엄마기술전수,도축장,신선재료
	예산황토사과축제	지역축제(격년제),사과홍보판매,체험행사
	예산옛이야기축제	예산군통합축제,충남우수축제,체험행사
	윤봉길문화축제	지역축제, 매현윤봉길, 충의사, 37년

자료: 충청남도(2012), 충남지역 향토자원 조사 DB를 발췌 재구성

## 2. 어메니티자원

■ 농촌진흥처에서는 행정안전부와는 별도로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수행하여 DB를 구축하고 있음

- 농진청 어메니티자원조사에 의하면, 예산군은 총 31개의 어메니티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메니티자원은 쌀, 고추, 사과 등을 비롯한 농산물과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자원이 어메니티자원으로 선정되었음

〈표 2-7〉 예산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번호	읍면	리	주요품목
1	삽교읍	평촌리	갯러리쌀
2	광시면	장전리	구기자
3	신양면	불원리	국화
4	덕산면	낙상리	금덕농장
5	봉산면	봉림리	짜리고추
6	봉산면	대지리	과리고추
7	봉산면	효교리	과리고추
8	봉산면	고도리	과리고추
9	봉산면	화전리	과리고추
10	봉산면	대지리	과리고추
11	고덕면	상몽리	짜리고추
12	봉산면	화전리	느타리
13	광시면	관음리	딸기
14	봉산면	사석리	딸기
15	봉산면	대지리	벼
16	신양면	대덕리	사과
17	신양면	여래미리	사과
18	봉산면	봉림리	사과농장
19	삽교읍	효림리	삼다리잼
20	덕산면	대치리	새농민농장

번호	읍면	리	주요품목
21	신양면	서계양리	수박
22	보안면	효교리	쌀
23	오가면	오촌리	전통옹기
24	광시면	서초정리	오미자
25	신암면	탄중리	육안농장
26	예산읍	창소리	쪽파
27	신양면	귀곡리	친환경쌀
28	봉산면	고도리	표고버섯
29	봉산면	효교리	국화
30	광시면	광시리	한우
31	덕산면	낙상리	효자사슴농원

자료: 농진청(2012), 농진청 어메니티 DB를 발췌 재구성.

### 3. 분석결과의 종합

#### ■ 다양한 유형의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쌀, 사과, 한우 등의 지역특산물 뿐만 아니라, 전통기술, 자연, 사람,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절대적으로 취약함

- 개별 농업자원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개별 농업자원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경쟁력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특산물과 연계성 부족

- 예산지역에는 문화, 관광 등의 농업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보유자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문화관광자원을 매개로 하여 지역특산물을 스토리텔링하거나 도시민에게 판매·홍보하는 농업의 다기능화가 부족함

## 제4절 예산농업의 진단과 아젠다 도출

### 1. 예산농업의 일반적 진단

- 주산지로서 경쟁력은 없으나, 다수의 농작물이 재배
- 사과와 시설채소가 많아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취약한 구조
- 중앙집중적 농산물 유통구조로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곤란
- 고투입·고비용 중심의 농산물 재배구조로 경쟁력 약화
- 생산중심의 농업구조로 가공과 유통기반의 취약

〈표 2-8〉 우리 농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조건

우리 농업의 문제	경쟁력 있는 농업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 높은 생산비용</li> <li>- 가공: 낮은 시장성(상품성)</li> <li>- 유통: 높은 중앙집중성</li> <li>- 소비: 축소되는 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튼튼한 땅(미생물의 다양성)</li> <li>- 깨끗한 물</li> <li>- 건강한 종자</li> </ul>

### 2. 예산농업의 정책적 진단

#### 1)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예산농업의 진단 및 주요 아젠다 도출

### ■ 조사대상

- 주요 농산물 재배 농가, 가공업체, 유통관계자 등 (총 23명)

### ■ 조사기간

- 2012. 2. 14 ~ 28

### ■ 주요 조사 작물

- 쌀, 사과, 배, 파리고추, 버섯, 쪽파, 토마토, 수박 등

## 2) 친환경농업

### ■ 현황 및 문제

- 쌀, 사과 등 주요 작물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 매우 취약
- 예산군 친환경농업정책은 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초점을 둠
- 다수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지지가 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장이 없음

### ■ 정책수요

-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교육의 확대와 농민들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적절한 공존이 필요함
-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정책에서 저비용·저투입 농업정책으로 전환 필요
-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농가가 직접 농자재를 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별도의 유통구조(직거래, 학교급식, 생협 등)를 확보해야 함

### ■ 기타

- 친환경농산물은 관행에 비해서 수확량이 불량하지만, 저장성은 우수
- 친환경농산물은 관행에 비해서 저비용·저투입의 농업으로 최근 농업환경에 부합
- 친환경은 인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이미지의 문제로 접근

- 친환경은 관행에 비해서 재배비용이 저렴하고 노동력 투입이 적음

### 3) 쌀

#### ■ 현황 및 문제

- 개별 농가단위로 재배되고 있고, 기계화 등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음
- 친환경농업, 계약재배 등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주로 관행농업으로 재배되고 있음
- 관행농쌀은 대부분 정부수매 혹은 산지수집상을 통해 출하되고, 친환경쌀은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음
- 예산쌀의 상당수는 산지수집상을 통해 수도권 등의 타 지역으로 유출(수매가 43,000원, 수집상 55,000원)
- 예산쌀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급쌀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예산쌀의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어 있음
- 예산쌀을 주요 원료로 하는 쌀가공산업이 전무한 실정임
- 예산군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실제 예산군에서 지원한 쌀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 정책수요

- 쌀재배 농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수익성 확보가 필요
- 친환경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 친환경쌀을 위한 별도의 RPC 설립의 필요
- 수매가의 적정화를 통한 외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예: 공공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역 RPC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함)
- 난립한 예산쌀 브랜드의 통합화와 예산쌀의 유통구조(예: 직거래, 학교급식, 지역식당 등)의 다각화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1) 제정에 따른 쌀가공산업기반의 확충

## ■ 기타

- 쌀재배는 실제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바, 친환경 인증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쌀재배 농가 중 다수는 시장에서 유통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재배함

## 4) 사과

### ■ 현황 및 문제

- 후지와 홍로를 주로 재배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품종 식재가 검토 중임
- 친환경사과가 매우 한정적이지만, 관행농 사과의 잔류농약은 없음
- 사과재배농가는 대부분 예산능금협동조합(예산공판장)을 통해 출하하고 있고, 일부 타 지역 공판장을 이용함
- 사과가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재배와 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 으뜨미야, 애플리나, 예산향토사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
- 사과가공업체는 원재료를 주로 예산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계약재배는 이루어지지 않음
- 사과가공의 부산물은 발효과정을 거친 후 축산사료로 활용 가능(현재 축산농가 제공)

### ■ 정책수요

- 친환경 사과재배농가의 확대 및 새로운 품종의 도입
- 재배-가공-유통-체험을 잇는 자기완결적인 사과산업화 프로젝트의 추진
- 취약한 사과가공분야(로컬푸드형)의 중점적 육성 필요(마을기업정책과 연계)
- 사과브랜드 통합화 및 지역기반형 유통구조의 확립



## ■ 기타

- 좋은 품질의 사과는 개인 단위에서 유통하고, 상품성이 낮은 사과가 예산능금조합을 통해서 유통(APC 적자의 요인)
- APC에서는 이마트의 PB상품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음(영주시 자체상품 15,980원(10개), 이마트 PB상품 6,480원(6개))
- APC에서는 상품성이 낮은 사과의 경우 차량용 판매상, 그리고 다른 농협의 가공공장에 판매하고 있음
- 능금협동조합 APC에서 유통되는 것은 예산 전체 사과의 약 30% 정도 수준
- 가로변 사과판매로 인한 소비자 신뢰저하의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5) 시설채소

### ■ 현황 및 문제

- 상대적으로 시설채소가 발달되어 있음. 시설채소에는 쪽파, 수박, 배추, 열무 등이 있고, 보통 4기작을 하고 있음
- 시설채소의 경우 대부분 포전매매를 통해서 재배하고, 유통되고 있음(쪽파 70%, 배추 95%, 수박 95% 등)
- 시설채소의 농산물은 대부분 중간상인을 통해서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음
- 시설채소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작목반이 잘 구성되어 있으나, 친환경 비중과 수용의사가 낮은 편임
- 연작으로 인해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경작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난방비 등의 재배비용 증가가 가장 큰 문제임

### ■ 정책수요

- 시설채소의 연작화 방지 및 친환경 시설채소 기반 확충
- 포전매매를 줄이기 위한 환경개선 및 표준계약체제 구축
- 친환경 업체류와 야채를 중심으로 한 구조고도화
- 시설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동력 인력확충 및 양성사업 추진

- 시설채소의 브랜드화 및 시설채소단지의 공간적 상징화 추진

## ■ 기타

- 포전매매의 이유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불확실성과 수확 시 필요한 인력부족 등에 있음
- 포전매매 시 계약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장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 상인과 농가가 조율이 잘되는 편임
- 시설채소의 경우,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작목반과 영농조직화가 잘되어 있음
- 시설채소의 경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의 정책적 지원을 우선 요구하고 있음
- 시설채소의 경우, 수익이 높지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바, 재배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3. 예산농업의 아젠다 도출과 관련정책

### ■ 예산농업의 일반현황, 구조분석, 자원분석, 그리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 예산농업의 아젠다를 도출하였음

- 예산농업의 주요 아젠다는 예산의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아젠다와 예산농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별 아젠다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음

### 1) 품목별 아젠다

#### ■ 예산농업의 전략적 품종은 쌀, 사과, 시설채소, 그리고 산림자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쌀분야에서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유통구조가, 사과분야에서는 예산사과의 6차산업화, 시설채소에서는 친환경 시설채소 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 사업, 그리고 산림자원에서는 산림자원(은행, 버섯 등)의 산업화사업 등이 주요 아젠다로 선정되었음

■ 예산군은 4가지 품목에 대한 정책투입을 하고 있고, 특히 쌀과 사과에 대한 정책관심도가 높음

- 예산군에서는 쌀, 사과, 시설채소, 산림자원에 대해 모두 다양한 형태의 정책투입을 하고 있음
-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는 쌀에 대한 정책투입이, 그리고 정책의 수적 측면에서는 사과에 대한 정책투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품목별 아젠다와 관련 정책

주요 아젠다	예산군 관련 농업정책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	- 예산쌀 품질고급화 사업
- 예산사과의 6차산업화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예산사과 명소화 -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 뉴질랜드사과 신품종 도입
- 친환경 시설채소 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사업	- 특화품목육성사업(고품질쪽파, 수박, 버섯) - 원예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산림자원(은행, 버섯 등)의 산업화사업	-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

## 2) 영역별 아젠다

■ 예산농업에 있어서 주요 아젠다는 친환경농업, 영농인력, 농업유통구조, 그리고 농정거버넌스의 유형화됨

- 우선 친환경농업은 단순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아니라,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영농인력에서는 차세대 영농인력육성과 지역리더 발굴이, 농업유통구조에서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지역유통구조 확립이, 그리고 농정거버넌스에서는 예산군 친환경 농정거버넌스 및 이미지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군에서도 영역별 아젠다를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예산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유통에 대한 정책적 투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

음. 그러나 친환경농업과 농업유통에 대한 농업정책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군단위에서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 그 외 영농인력과 농정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예산군 차원에서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표 2-10〉 영역별 아젠다와 관련정책

주요 아젠다	예산군 관련 농업정책
- 저비용·저투입(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 차세대 영농인력육성 및 지역리더 발굴사업	- 농업교육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영
-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지역유통구조 확립사업	- 농촌마을 공동기업 육성사업 - 향토음식명품화 - 농산물유통체계개선 - 예산군 농산물 도청신도시 직거래망 구축 - 식자재유통센터 지원사업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 예산군 친환경 농정거버넌스 및 이미지개선사업	- 예산군 브랜드파워 강화

### 3) 아젠다의 최종 선정

#### ■ 도출된 7개 아젠다를 가지고 정책토론회와 2번의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 각 아젠다별 담당사무의 공무원과 지역농민, 그리고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도출된 아젠다의 적절성, 그리고 아젠다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정책토론회와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선정된 아젠다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하였고, 부문적인 수정을 하였음

#### ■ 정책토론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한 아젠다의 수정내용

- 우선 품목별 아젠다 중 산림자원의 경우, 예산지역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략품종을 한정할 필요성 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 영역부문의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농업유통구조, 영농인력 순으로 조정하기로 함

- 그리고 당초 영역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농정거버넌스를 별도의 부문으로 구성하기로 함

〈표 2-11〉 아젠다의 최종 선정

	선정 아젠다	당초 아젠다
<b>품목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li> <li>•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li> <li>•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의 다각화사업</li> <li>• 예산사과의 6차산업화</li> <li>• 친환경 시설채소 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 사업</li> <li>• 산림자원(은행, 버섯 등)의 산업화사업</li> </ul>
<b>영역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li> <li>•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li> <li>•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비용저투입(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li> <li>• 차세대 영농인력육성 및 지역리더 발굴사업</li> <li>•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지역유통구조 확립사업</li> </ul>
<b>제도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군 친환경 농정거버넌스 및 이미지개선사업</li> </ul>

#### ■ 품목부문 아젠다의 설정과 구체화

- 쌀부문의 아젠다는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구조의 다각화로 설정
- 사과부문의 아젠다는 다기능적 예산사과프로젝트로 설정
- 시설채소부문의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로 설정

#### ■ 영역부문 아젠다의 설정과 구체화

- 친환경부문의 아젠다는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구조로 전화으로 설정
- 농업유통부문의 아젠다는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로 설정
- 영농인력부문의 아젠다는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로 설정

#### ■ 제도부문 아젠다의 설정과 구체화

- 제도부문의 아젠다는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정립으로 설정

# 제3장 기본구상

---

1.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2. 비전과 목표
3. 발전전략
4. 주요추진사업의 도출



## 제1절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 1. 최근의 농업이론

#### ■ 농업의 범주, 방식,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농업은 생산중심, 외생적 개발,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 및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농업의 영역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식 또한 외생적 개발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성격 또한 생산성 극대화 및 효율성 향상에서 지속가능성, 자원 및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음

#### ■ 그 결과 농업에 대한 산업적·공간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

- 과거 농업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농어업을, 공간적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내부만을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였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농어업뿐만 아니라 농어촌과 농어업인의 융복합화를 포괄하고 있고, 공간적 측면에서도 농촌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음

#### ■ 농업이론에 있어서 연대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증대

- 과거 농업에서는 대외경쟁력 강화, 행정주도, 하드파워를 핵심적 요소로 강조해 왔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이들 요소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오히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연대의 강화, 민관 및 주체/지역간 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강조 등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과 정책의 연계화가 더욱 중요하게 됨

#### ■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가치로 확대되어야 함

- 과거 농업은 단순히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기지에 불과하였다면, 지금의 농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산업적·공간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비농업적 가치와 농업적 가치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업임

〈표 3-1〉 농업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

구분	최근	과거
<b>범주</b>	가공, 유통, 마케팅	생산기반 중심
<b>방식</b>	내발적 발전	외생적 개발
<b>성격</b>	지속가능성, 자원·자연의 순환	생산성 극대화, 효율성 향상
<b>산업</b>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융복합화	농어업
<b>공간</b>	지역내부 및 외부로의 확대 (다양한 활동 및 영역 포괄)	지역내부
<b>자원</b>	지역연대 강화	대외경쟁력 강화
<b>주체</b>	민관협력 파트너십 주체간, 지역간 네트워크	행정주도
<b>기술</b>	Soft Power	Hard Power
<b>사업</b>	기존 사업, 정책간 연계	신규 사업 도출
<b>가치</b>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기능유지 비농업적 가치와 농업적 가치 연계	농어업 생산기능

## 2. OECD 농업정책

### ■ 농업정책의 목표가 생산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화되고 있음

- 지금 현재 OECD 농업정책의 주요 목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농촌자산의 안정화, 그리고 미사용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과거 OECD에서 평등주의, 농가소득, 농가경쟁력 강화를 초점으로 둔 것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음

### ■ 농업정책의 영역이 농업 자체에서 농촌경제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 과거 농업정책이 단순히 농업생산 그 자체에 있다면, 현재 OECD 농업정책은 농촌관광, 제조업, ICT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 농업정책의 수단이 보조금에서 투자로 무게 중심의 변화

- 과거 농업은 공공영역에서 시장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보조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민간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투자정책으로 변하고 있음

## ■ 농업정책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음

- 과거 농업정책의 주체가 국가와 농가로 이원화된 구조였다면, 현재 OECD 농업정책의 주체는 다양한 차원의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짐

〈표 3-2〉 OECD의 농업정책

구분	현재	과거
<b>목표</b>	-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 농촌자산의 안정화 - 미사용자원의 활용	- 평등주의 - 농가소득 - 농가경쟁력
<b>주요 분야</b>	- 농촌경제의 다양한 분야 (농촌관광, 제조업, ICT 산업 등)	- 농업
<b>주요 수단</b>	- 투자	- 보조금
<b>주요 주체</b>	- 다양한 차원의 공공부문 - 다양한 지역주체	- 국가, 농가

## 3.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 1) 주요 환경변화

- 현재 우리나라 농림수산물부가 농업의 정책환경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글로벌화, 기후변화, 첨단화 및 융복합화, 새로운 가치지향의 5가지 키워드임

- 고령화 측면에서는 농업생산력의 증가 및 둔화, 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청장년 전업농의 주력 형성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고려되고 있음
- 글로벌화 측면에서는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의 구조 조정,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농산물 수입증가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고려되고 있음.
-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아열대화로 식생변화 및 열대과일 재배, 농산물 생산감소와 품질저하, 유지작물, 미세조류 등 확산,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고려되고 있음.
- 첨단화 및 융복합화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농산물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고려되고 있음.
- 새로운 가치지향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농촌어메니티, 농촌관광 활성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고려되고 있음.

〈표 3-3〉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주요환경

주요 환경변화	변화의 영향
<b>고령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력의 증가 및 둔화</li> <li>• 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li> <li>•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li> <li>• 청장년 전업농의 주력 형성</li> </ul>
<b>글로벌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li> <li>•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의 구조 조정</li> <li>•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li> <li>• 농산물 수입증가 및 수출시장 확대</li> </ul>
<b>기후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열대화로 식생변화 및 열대과일 재배</li> <li>• 농산물 생산감소와 품질저하</li> <li>• 유지작물, 미세조류 등 확산</li> <li>•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li> </ul>
<b>첨단화 및 융복합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li> <li>•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li> <li>• 농산물상품화, 유통체계 발전</li> <li>•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li> </ul>
<b>새로운 가치지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li> <li>• 농촌어메니티, 농촌관광 활성화</li> <li>• 귀농귀촌인구 증가</li> <li>•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li> </ul>

## 2) 주요정책

### ■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주요 농업정책 방향으로 쌀가공식품, 기능성식품, 가공식품, 전통주(우리술),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홍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귀농귀촌, 탄소시장과 농업, 기후변화와 농업, FTA와 농업, 해외농업투자, 농식품 수출 등으로 설정하고 있음

### ■ 충남도는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3농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3농혁신정책의 주요 방향은 친환경·고품질 농업, 선진축산업, 산림자원육성·활용, 청정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지역리더양성,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3-4〉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의 주요 농업정책

농식품부의 정책 영역	충남도의 3농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가공식품</li> <li>- 기능성식품</li> <li>- 가공식품</li> <li>- 전통주(우리술)</li> <li>- 로컬푸드</li> <li>- 농식품 소비홍보</li> <li>- 사회적기업, 마을기업</li> <li>- 귀농귀촌</li> <li>- 탄소시장과 농업</li> <li>- 기후변화와 농업</li> <li>- FTA와 농업</li> <li>- 해외농업투자</li> <li>- 농식품 수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고품질 농업</li> <li>- 선진축산업</li> <li>- 산림자원육성·활용</li> <li>- 청정수산</li> <li>-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li> <li>- 살기좋은 마을만들기</li> <li>- 농어업 6차산업화</li> <li>-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li> <li>-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li> <li>- 지역리더양성</li> <li>- 민관협력체제 구축</li> </ul>

## 제2절 비전과 목표

### 1. 비전

####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 새로운 농업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다기능적 농업의 실현
- 예산농업의 성과가 대도시와 타 산업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역과 농업에 귀착되는 순환형 농업발전기반의 구축

### 2. 목표

####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해서 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② 농업의 다기능화, ③ 농업의 지역화의 3대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

#### ■ 목표 1: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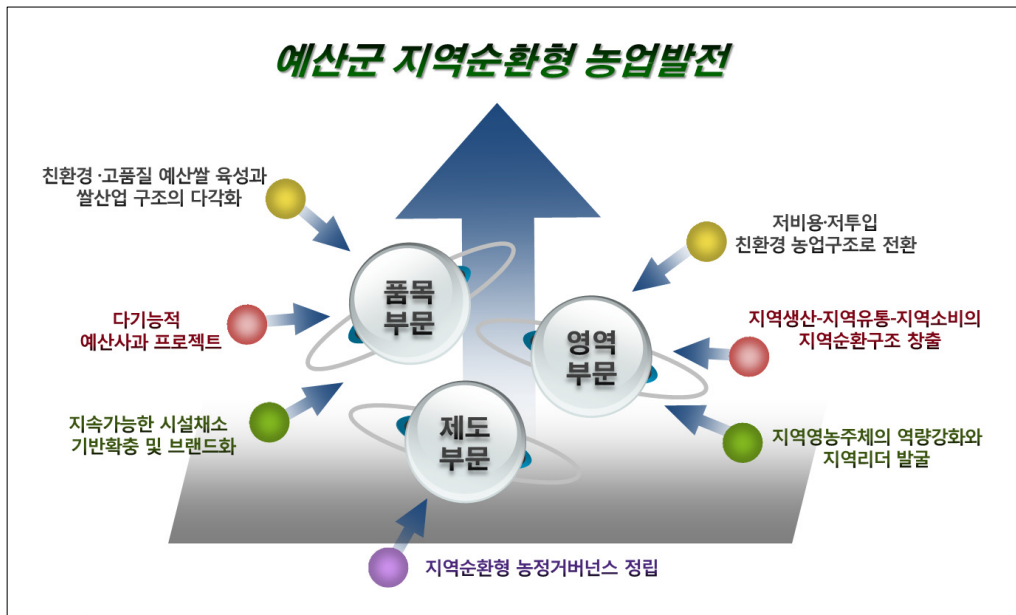
- 농업의 영역을 단순한 생산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가공, 유통, 판매로 확대하고, 이들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가치가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함

#### ■ 목표 2: 농업의 다기능화

- 농업과 관련성이 높은 전방산업을 예산지역내에 육성하여 농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함. 아울러 농업의 후방산업 중 예산지역에서 육성이 가능한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성과가 예산지역에 귀착될 수 있도록 함

### ■ 목표 3: 농업의 지역화 전략

-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과 소비가 예산차원에서 통합화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지역내에 예산의 농산물이 교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기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함



〈그림 3-1〉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의 비전과 목표

## 제3절 발전전략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추진전략은 정책토론회와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3대 부문, 7개 아젠다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의 일관성과 실천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 1. 품목부문의 발전전략

#### ■ 품목부문의 접근 관점 - 농업자원의 전략적 육성

- 품목부문에서는 쌀, 사과, 시설채소 등 예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략적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 품목부문의 3대 추진전략

- 친환경·고품질 예산쌀육성과 쌀산업구조의 다각화
- 다기능적 예산사과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

#### ■ 친환경·고품질 예산쌀육성과 쌀산업구조의 다각화

- 쌀산업은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생산기반의 확충, 예산쌀 브랜드의 통합화와 유통구조의 효율화, 그리고 예산쌀 전후방산업의 육성과 쌀산업의 다각화로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 다기능적 예산사과프로젝트

- 사과산업은 친환경 사과재배의 육성 및 신품종의 도입, 예산사과 유통체제의 선진화 및 지원체제의 통합화, 그리고 다기능적 로컬푸드 예산사과산업의 활성화를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

- 시설채소산업은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충, 얼굴 있는 시설채소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시설채소 브랜드화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2. 영역부문의 발전전략

### ■ 영역부문의 접근 관점 -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영역부문에서는 농업생산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최근의 환경변화와 농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가치발굴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 영역부문의 3대 추진전략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구조로 전환
- 지역순환-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구조로 전환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정책의 도입,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환경의 조성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 지역순환-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 농가 현장직판의 활성화 및 조직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농업육성, 로컬푸드 지역유통 기반의 확충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 농업노동력 확보 및 노동력 공급시스템의 제도화, 전문농업인 및 후계농 양성, 그리고 예산군 지역리더 양성 및 발굴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 3. 제도부문의 발전전략

#### ■ 제도부문의 접근 관점 -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

- 제도부문에서는 새롭게 도입한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예산농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방적 참여가 가능한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 제도부문의 추진전략

-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 ■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농정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농정조직의 통합화 재편 및 농정평가체제의 도입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함

비전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		
목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의 다기능화	농업의 지역화
부문	품목부문	영역부문	제도부문
발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 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li> <li>-다기능적 예산씨과 프로젝트</li> <li>-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비용 · 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li> <li>-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li> <li>-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정립</li> </ul>

〈그림 3-2〉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발전전략

## 제4절 주요추진사업의 도출

### 1. 주요추진사업 도출과정

#### ■ 정책토론회에서 세부 아젠다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1차 의견 수렴

- 농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 1차적으로 7개의 아젠다를 설정하였음
- 정책토론회에서는 아젠다의 적절성과 개별 아젠다별로 반영되어야 할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 2차례의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아젠다별 세부사업의 발굴 및 구체화

- 총 7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의 회의와 분과별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음
- 이를 통해서 7개 아젠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과 예산군의 현 농정과 연계성을 검토하였음

#### ■ 중간보고회를 통한 아젠다와 세부사업의 최종 검토 및 확정

- 정책토론회와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7개 발전전략과 발전전략별 3개의 개발방향, 그리고 3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음. 단 제도부문은 2개의 개발방향과 2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음
- 따라서 총 7대 발전전략, 20개 개발방향, 58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였음

## 2.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3개 발전전략, 9개 개발방향, 그리고 27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음

〈표 3-5〉 품목부문의 주요추진사업

	아젠다	개발방향	세부사업
품목 부문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생산기반의 확충	- 친환경·고품질쌀 작목반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 - 친환경·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 친환경·고품질쌀 체험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쌀 브랜드의 통합화와 유통구조의 효율화	- 예산군 친환경 RPC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건립 - 예산쌀의 통합브랜드화 및 상품수준의 기준 마련 - 예산쌀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의 확립 및 소비 촉진 운동의 전개
		예산쌀 전후방산업의 육성과 쌀산업의 다각화	- 쌀산업의 전방관련산업의 육성 및 판로구조의 다양화 - 소규모 정미/도정업체의 육성 및 쌀가루산업의 육성 - 예산쌀(가루)과 사과산업(가루/액제)의 융복합화 산업의 육성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친환경 사과재배농가의 육성 및 신품종의 도입	- 아름다운 과원조성 및 친환경 작목반의 활성화 -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의 도입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재배기술의 보급 - 과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과원패밀리닥터제 운영
		예산사과 유통체제의 선진화 및 지원체제의 통합화	- 예산사과의 유통체제의 선진화 및 선진과원관리시스템 도입 - 예산사과의 통합브랜드화 및 예산사과의 품질기준 정립 - 저급사과 및 가공부산물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다기능적 로컬푸드 예산사과산업의 활성화	- 예산사과 전방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한 가공용 사과의 확보 -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기술보급 및 사과산업 인큐베이터 설립·운영 - 예산사과와인의 확산 및 식초산업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충	- 저비용/저투입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연구 및 매뉴얼 보급 - 예산군 전략육성 품목 중심의 친환경 GAP 인증 확대 - 원예시설 리뉴얼화 사업 및 시설채소단지 주변 경관개선
		얼굴 있는 시설채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산지중심의 시설채소 종합유통센터 설립 - 시설채소 계약재배 확대 및 포천매매의 행정 감시 강화 - 시설채소 공동작업 체계구축 및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적용
		시설채소 브랜드화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	- 시설채소류 브랜드화 및 연합마케팅 추진 - 시설채소 예산지역 우선공급제도의 도입 - 양념채소류 1.2차 월물가공산업 육성(조미/양념산업 등)

## 3. 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 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3개 발전전략, 9개 개발방향, 그리고 27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음

〈표 3-6〉영역부문의 주요추진사업

	아젠다	개발방향	세부사업
영역 부문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정책의 도입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영농조직화, 공동영농작업 -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평가제 도입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 선포와 무농약 마을 지정, 저투입농법운동 확산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자재 공동수급 및 제조기반의 구축 - 친환경 곡물사료기반 확충과 이모작 경작구조, 경종·축산 순환구조 확립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농촌경관개선 추진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환경의 조성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환경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 소농마을 공동체 마을 조성 및 공동영농기반 조성 - 예산환경학교 및 소농학교의 운영
	지역생산· 지역유통· 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농가 현장직판의 활성화 및 조직화	- 농가직판장의 브랜드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 농가직판 조직화 지원 - 농가가공 활성화를 통한 직판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농업 육성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입 - 텃밭활동 지원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 예산 로컬푸드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로컬푸드 지역유통 기반의 확충	- 로컬푸드 식당지구의 선정 및 창업지원 - 지역내 기업체 및 단체와 지역발전협약 체결(우선구매제 등) - 대형유통업체 내 예산로컬푸드 코너의 운영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농업노동력 확보 및 노동력 공급시스템의 제도화	- 단순농업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 외국인 이주자 노동력 확보 - 마을단위의 영농인력시장의 확보 및 품앗이 수첩 도입
		전문농업인 및 후계농 양성	- 전문교육농장 및 영농감사 발굴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학교의 운영 - 우수 영농인력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배포
		예산군 지역리더 양성 및 발굴	- 지역리더 발굴사업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 지역리더 학습회 조직 및 교류지원 - 예산군 통합인력센터 설립

## 4. 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 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 1개 발전전략, 3개 개발방향, 그리고 6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음

〈표 3-7〉제도부문의 주요추진사업

	아젠다	개발방향	세부사업
제도 부문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기존 농정거버넌스 체계의 정비 및 보완	- 농림수산심의회 운용 개선 - 지역순환 농정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신거버넌스체계 구축	- 지역순환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농정평가체제의 도입	-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예산농정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의 공표



# 제4장 부문별 발전전략

---

1.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2.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3.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4.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5.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6.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7.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 제1절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 1. 현황 및 문제

#### 1) 재배부문

- 대부분 개별 농가단위로 재배하고 있고, 실제 벼농사는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즉 벼농사는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음
- 삽교평야 등 대규모 평야에서는 관행농, 대농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과 계약재배 등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대부분 관행농업으로 재배되고 있음
- 쌀은 친환경으로 재배가 가능하지만, 가격지지가 되지 않아서 농민들은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벼농사에 필요한 육묘와 농자재는 주로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고 있음

#### 2) 가공부문

- 쌀가공업체가 1~2곳 있기는 하지만, 예산쌀을 주요 원료로 하는 쌀가공산업이 예산지역에는 전무한 것이 현실임

#### 3) 유통부문

- 예산쌀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고, 타 지역의 쌀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음
- 관행농 쌀은 주로 정부수매 혹은 현지수집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친환경 쌀은 주로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그러나 예산군에서 재배되는 거의 대부분 중간수집상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유통되는 것이 현실임. 이는 수매가(43,000원) 보다 수집상(55,000원)을 통해 수도권으로 송출되고 있음



- 예산지역의 소매점에서는 농협 RPC에서 공급되는 예산쌀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오히려 다른 지역의 쌀을 찾아보기 힘든 구조임
- 일부 생산단체에서는 친환경쌀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납품을 준비 중에 있음
- RPC에서 쌀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인근의 정미소마저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함
- 지역내의 소규모 방앗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로 벼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2. 정책환경

### 1) 국가·광역의 관련정책

- 우리나라의 쌀 정책은 크게 생산비의 절감, 유통의 효율화, 그리고 가공소비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진흥계획(201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2), 충청남도 식품산업육성계획(2011),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2011)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 예산군의 관련정책

- 현재 예산군에서는 쌀산업정책은 친환경쌀기반 확충 및 고품질벼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예산군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실제 예산군에서 지원한 쌀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 예산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삼광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농약, 기타 농자재 등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음
- 예산군에서는 고품질 쌀 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농협에서는 가격 등의 문제로 수매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주요 정책으로는 광역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 황새마을조성사업, 예산쌀 품질고급화 사업, 친환경 RPC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쌀 정책의 주요 동향]

### ■ (생산비 절감) 들녘별 규모화, 농기계 공동이용, 과학경영 등을 추진하여 생산비 10% 절감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쌀품질 향상

- 들녘단위 50ha 이상 규모로 200개소를 품종통일·공동농업 추진
- 노동력이 많이 드는 공동육묘(20%→60%), 공동방제(30%→80%) 확대
- 세계최고 쌀품질 향상 : ('09) 일본쌀의 85% 수준→('14) 일본쌀 품질수준
- 농기계 공동이용 및 일괄작업 체계확립, 논에 벼 대신 고소득 작물재배를 확대하여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율 향상

### ■ (유통 효율화) RPC통합, 시설 현대화, 벼 사이버 거래 등 직접 마케팅을 강화하여 쌀 유통비용 10% 절감

- RPC 통합확대 : ('09) 262개소 → ('14) 200개소
- RPC 가공시설 현대화(70개소), 건조·저장 시설 확충(1,500개)
- 벼 유통활성화를 위한 선물거래소 및 대형유통회사 설립

### ■ (가공·소비 확대) 쌀 소비감소 최소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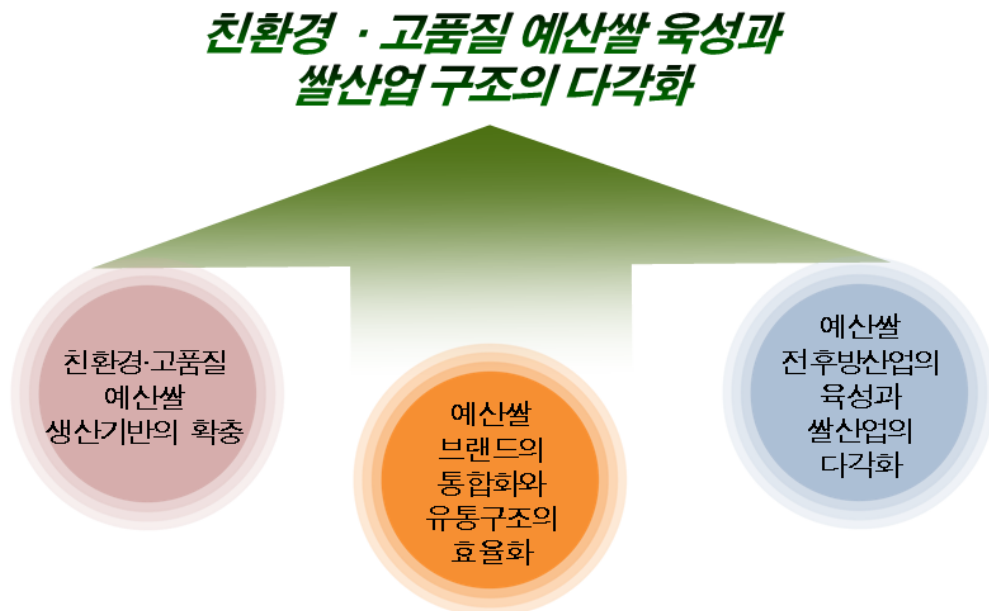
- 「Korea 운동」 연계, 밀가루 제품을 쌀제품으로 대체(10%)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확대 등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 기본전제

- 쌀재배 농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수익성 확보가 필요
- 친환경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 친환경쌀을 위한 별도의 RPC 설립의 필요
- 구매가의 적정화를 통한 외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난립한 예산쌀 브랜드의 통합화와 예산쌀의 유통구조 다각화
- 예산쌀산업 정책을 생산중심에서 가공/유통중심으로 무게중심 전환

#### 2) 개발방향



〈그림 4-1〉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개발방향

## 4. 주요추진사업

### 1)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생산기반의 확충

#### ■ 친환경·고품질쌀 작목반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

-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고품질쌀 작목반을 조직화 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거점형으로 조성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기반을 중심으로 이모작 작부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자원순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

#### ■ 친환경·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 친환경·고품질 벼를 확대하기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체계적 수행
- 농가교육을 통해서 재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쌀 및 고품질쌀의 계약재 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립

#### ■ 친환경·고품질쌀 체험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

- 예산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고품질 영농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우리 전통의 영농기법 및 친환경농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 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함

### 2) 예산쌀 브랜드의 통합화와 유통구조의 효율화

#### ■ 예산군 친환경 RPC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건립

-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쌀 정책과 연계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 기 위해서 친환경 RPC를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별도의 친환경 RPC가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타당성 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예산쌀의 통합브랜드화 및 상품수준의 기준 마련

- 현재 상품수준과 별개로 다양한 브랜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통합브랜드화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상품수준에 따라서 통합브랜드 속에서 차별화된 상표와 마케팅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상품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 예산쌀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의 확립 및 소비 촉진 운동의 전개

- 지역내에 있는 각종 학교 및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쌀을 급식재료로 활용하도록 함. 그리고 지역내 각종 식당 및 리솜 등의 주요 기관에서 예산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협약제도 도입
- 지역적 차원에서 쌀소비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쌀소비량을 증대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 예산지역내의 제과점에서 쌀을 이용한 별도의 제과제빵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구축하도록 함

### 3) 예산쌀 전후방산업의 육성과 쌀산업의 다각화

#### ■ 쌀산업의 전방관련산업의 육성 및 판로구조의 다양화

- 쌀산업의 전방산업인 정미, 주정, 일반음식점, 주류, 빵 및 곡분과자 등을 지역내에서 활성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예산쌀을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각종 전방산업 관련업체를 발굴하고, 계약공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덕산을 중심으로 한 음식점 및 리솜 등에서 예산쌀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전략적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아울러 소규모 도정·정미업체를 지원하도록 함

#### ■ 소규모 정미·도정업체의 육성 및 쌀가루산업의 육성

- 예산지역의 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있는 소규모 정미 및 도정업체에 대한 육성시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정미/도정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예산쌀가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쌀가루를 전략품종으로 선정하고, 예

산쌀가루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재정 및 제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쌀산업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들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요구됨. 이를 위해 비료 등의 공동구매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농림어업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임

〈표 4-1〉 쌀(벼)의 주요 전후방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산업명	유발계수	산업명	유발계수
정미	0.903528	비료	0.070251
주정	0.132293	농림어업서비스	0.060078
일반음식점	0.061850	농약	0.042232
기타주류	0.059505	원유	0.040438
빵 및 곡분과자	0.047730	도매	0.035051
기타 식료품	0.046004	나프타	0.022502
낙농	0.04480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0.020182
가계외소비지출	0.040534	가계외소비지출	0.019741
육우	0.039999	석유화학기초제품	0.016809
기타음식점	0.032957	경유	0.015752
도축육	0.028663	질소화합물	0.013644
기타축산	0.026441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0.010265
양돈	0.025201	기초무기화합물	0.010173
우유	0.024803	도로화물운송	0.010039
장류	0.022187	일반음식점	0.009984
약용작물	0.021992	화력	0.009606
가죽	0.019316	석유화학중간제품	0.009582
소주	0.019146	부동산임대 및 공급	0.009178
분류불명	0.016855	소매	0.008068
제분	0.015637	플라스틱1차제품	0.006554

자료: 한국은행(2011),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재작성

## ■ 예산쌀(가루)과 사과산업(가루/액체)의 융복합화 산업의 육성

- 1차적으로 예산쌀과 사과산업을 독자적으로 핵심선도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예산쌀과 사과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추진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가루와 액체로 융복합화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추진]

#### ■ 쌀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및 민관협의체 구성

- 예산군에서 쌀가공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예산쌀가공산업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전담부서 지정 및 자문·운영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예산군에서 쌀가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부서 방문 및 향후 계획내용 파악 필요
- 예산쌀가공산업을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예산쌀가공공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함

#### ■ 예산 쌀가공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추진

- 쌀가공산업에 필요한 재배품종의 다변화 및 재배기법의 보급
- 쌀가공산업의 기반이 되는 쌀가루산업의 활성화
- 쌀가루 이외 사과 등의 산업과 연계화 추진
- 쌀가루 납품업체의 발굴 및 쌀가루 납품업체에 대한 우선 정책지원
- 예산군내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쌀가공품(빵, 떡, 시리얼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사업의 우선 추진
- 기존 쌀가공산업(쌀국수, 한과, 막거리, 장류 등)의 유통망 정비 및 애로사항 발굴
- 쌀가공상품에 대한 기술보급 및 시제품 상품성 테스트
- 장기적으로 쌀가공 후방산업(조청 등) 육성으로 쌀가공식품의 차별화 도모

## 5. 세부추진계획

〈표 4-2〉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친환경·고품질쌀 작목반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	→	→	→	→	→
친환경·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	→	→		
친환경·고품질쌀 체험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			→	→	→
예산군 친환경 RPC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건립	→	→			
예산쌀의 통합브랜드화 및 상품수준의 기준 마련	→	→			
예산쌀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의 확립 및 소비 촉진 운동의 전개	→	→	→	→	→
쌀산업의 전방관련산업의 육성 및 판로구조의 다양화				→	→
소규모 정미/도정업체의 육성 및 쌀가루산업의 육성				→	→
예산쌀(가루)과 사과산업(가루/액체)의 융복합화 산업의 육성				→	→



## 제2절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 1. 현황 및 문제

#### 1) 재배부문

- 후지와 홍로를 주로 재배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품종 식재가 검토 중임
- 친환경사과가 매우 한정적이지만, 관행농 사과의 잔류농약은 없음
- FTA 및 기후변화 등의 거시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필요
- 특히 현재 우리나라 사과의 60~70%가 후지이고, 중국의 70~80%가 후지인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품종의 도입 및 개발이 요구됨

※ 대다수가 사과는 친환경 재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GAP 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 가공부문

- 사과가공업체는 대부분 예산에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타 지역(경북)에서 조달
-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배농가에서 공급받고 있음
- 예산사과는 가공용(작은 크기, 착색 불량 등)이 경북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편임
- 주스시장은 위험부담이 큰 시장임. 그러나 유기농 주스는 향후 시장성이 있음
- 대기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제과점, 학교급식 등 틈새시장을 이용
- 가공물 부산물은 발효과정을 통해서 축산사료로 활용 가능(현재 무료로 축산농가에 제공)
- 현재 가공용 사과는 생과로 거의 소비가 불가능한 수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가공용은 kg당 300~400원에 불과하지만, 생과는 kg당 3,000원 이상임)
- 사과와인의 경우, 약 15개의 농가에서 사과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작음

### 3) 유통부문

- 좋은 품질의 사과는 개인 단위에서 유통되고, 상품성이 낮은 것이 예산능금조합을 통해서 유통(APC 적자의 요인)
- 사과재배농가는 대부분 예산능금협동조합(예산공판장)을 통해 출하하고 있고, 일부 타 지역 공판장을 이용함. 능금협동조합 APC에서 유통되는 것은 예산 전체 사과의 약 30% 정도 수준
-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 으뜨미야, 애플리나, 예산향토사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
- APC에서는 이마트의 PB상품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음(영주시 자체상품 15,980원(10개), 이마트 PB상품 6,480원(6개))
- APC에서는 상품성이 낮은 사과의 경우, 차량용 판매상, 그리고 다른 농협의 가공공장에 판매하고 있음
- 해외 사과가격의 수준은 국내의 1/3 수준임(외국은 kg당 1,700~1,800원 정도임). 2014년 검역으로 인해 수입이 되지 않던 사과 생과의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사과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취약하게 될 것임
- 가로변 사과판매로 인한 소비자 신뢰저하의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국내 사과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5% 정도의 수출이 요구됨. 주요 시장으로는 일본, 대만, 러시아, 중국 등을 꼽을 수 있음

## 2. 정책환경

### 1) 국가·광역의 관련정책

- 과수와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과수산업발전대책(2011)이 있음. 이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과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산지 권역별로 과실 전문APC 30개소(2010년까지 17개)를 설치하고 과실 유통물량의 30%를 처리하도록 하여 유통구조 개선

-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극적 국내피해 대응에서 공세적 수출 추진으로 신선과실 수출을 207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2010년 84백만달러)하고, 과수산업을 FTA 대응 미래 수출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우량 신품종 육성·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D 지원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사과관련 주요 정책]

### ■ (생산비 절감) 비용절감형 농법확산, 비용절감 생산기반 구축 등

- 사과 M9 왜성대목 밀식재배 등 비용절감형 농법 확산
- 사과 M9 왜성대목 밀식재배로 전정·수확 노력비의 약30%절감(121.4시간/10a → 86.1시간/10a),
- 과수생산시설현대화(2010계획 588억원), 생산단지기반정비(2010계획 198), 우량묘목 생산·공급체계구축 등 비용절감 생산기반 구축
- 우량 무병묘목 공급계획 : (2008) 0% → (2014) 20% → (2017) 60%

### ■ (유통 효율화) 과수유통 전문화·조직화 기반인 거점 APC 확충

- 거점 APC 확충 및 효율성 제고로 출하단계 유통비용 절감
- 거점 APC 가동을 제고를 위한 저장·가공시설 등 시설 보완
-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과실광역 공동 브랜드 육성
- 산지유통조직과 연계하여 과실유통의 중심축으로 육성
- 과실유통의 전문화·규모화로 유통효율화 및 시장교섭력 강화
- 칼라박스 등 과대포장 방지로 소매단계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포장(5kg, 2.5kg등)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등

## 2) 예산군의 관련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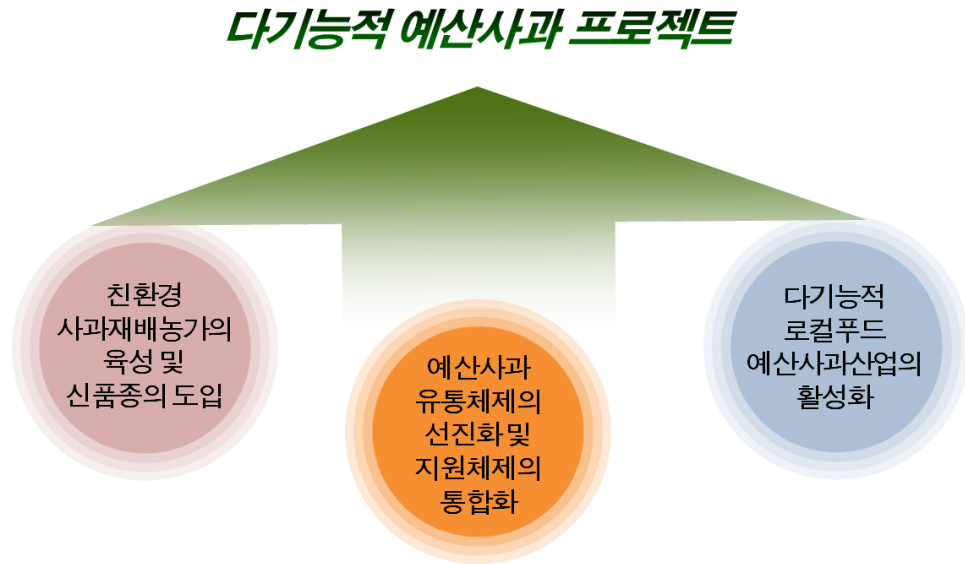
- 예산군의 사과분야 정책은 주로 재배와 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음. 가공은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예산사과세계화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사과 명소화, 예산향토사과 명품화사업, 뉴질랜드사과 신품종 도입 및 수출단지조성 등이 있음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 기본전제

- 친환경 사과재배농가의 확대 및 새로운 품종의 도입
- 재배-가공-유통-체험을 잇는 자기완결적인 사과산업화 프로젝트의 추진
- 취약한 사과가공분야(로컬푸드형)의 중점적 육성 필요(마을기업정책과 연계)
- 사과브랜드 통합화 및 지역기반형 유통구조의 확립

## 2) 개발방향



〈그림 4-2〉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개발방향

## 4. 주요추진사업

### 1) 친환경 사과재배농가의 육성 및 신제품종의 도입

#### ■ 아름다운 과원조성 및 친환경 작목반의 활성화

-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과원조성 및 수출단지 등의 상징성 제고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 농촌경관개선 차원에서 아름다운 과원조성사업 추진 필요
- 무농약보다는 GAP 형태로 친환경사과의 방향 설정하고, 친환경사과 재배의 필요성에 대한 농민교육 강화, 친환경사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함

#### ■ 기후변화에 맞는 신제품종의 도입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재배기술의 보급

- FTA 및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도입
- 대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대 소비자 선호에 부합한 품종의 개발 및 도입하도

록 함. 아울러 각종 사과가공품에 적합한 차별화된 재배 및 수확기법의 보급함.  
특히 향후 급식에서 사과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과 연계 필요함

#### ■ 과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과원패밀리닥터제 운영

- 개별 과원 및 작목반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과원패밀리닥터제를 운영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관계전문가, 농민 등으로 구성된 과원패밀리닥터를 구성하여 교육하도록 함. 1차적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예찰사업과 병행하여 과원패밀리닥터제를 운영하도록 함

## 2) 예산사과 유통체제의 선진화 및 지원체제의 통합화

#### ■ 예산사과 유통체제의 선진화 및 선진과원관리시스템 도입

- 예산사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저급사과의 시장유통금지 등의 유통체제의 선진화가 요구됨
- 한편 농가와 예산공판장의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사과유통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선진과원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단일화해 나가도록 함

#### ■ 예산사과의 통합브랜드화 및 예산사과의 품질기준 정립

- 현재 난립되어 있는 예산사과의 브랜드를 통합화하도록 함. 다만 개별 과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개별 과원을 병행 표기하도록 함
- 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과가 예산사과인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 선별, 포장된 것을 예산사과로 한정하는 등의 품질기준 정립이 요구됨. 예산사과 통합브랜드와 연계하여 소단위 포장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제고

#### ■ 저급사과 및 가공부산물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 저급사과, 예산사과가공 부산물 및 파과를 활용하여 퇴비 및 가축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서 예산사과가공 부산물 및 파과를 예산군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거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함

### 3) 다기능적 로컬푸드 예산사과산업의 활성화

#### ■ 예산사과 전방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한 가공용 사과의 확보

- 사과가공품, 주류, 조미료, 차류, 국수류, 빵 및 곡분과자 등의 전방관련산업의 집중적 육성 필요함. 1차적으로 지역내에 있는 음식료품업체에서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 반면 비료, 농약, 화합물 중심의 투입 지향적 후방관련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사과의 폐기 및 용도전환으로 품질이 우수한 가공용 사과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1차적으로 예산군 및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가공용 사과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이를 위해 각종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수요조사 수행함. 불량한 예산사과의 시장유통 차단으로 예산사과의 이미지 개선 필요

#### ■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기술보급 및 사과산업 인큐베이터 설립·운영

- 예산사과를 활용한 각종 가공기술을 가공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육하도록 함.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사과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예산사과를 가공하는 각종 업체들이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함.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사과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애로사항의 조사가 요구됨. 아울러 각종 예산사과가공품 및 스토리텔링에 관한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 예산사과와인의 확산 및 식초산업의 활성화

- 충청권 와인산업과 연계하여 예산사과와인을 확대를 추진하여 농가형 사과와이너리를 확대 및 활성화하도록 함
- 사과와인의 시장 확대와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와인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사과식초 등의 추가적인 가공품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표 4-3〉 사과(과실)의 주요 전후방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산업명	유발계수	산업명	유발계수
과실 및 채소가공품	0.085258	비료	0.132858
주점	0.042783	농약	0.105320
비알콜성 음료	0.019535	원유	0.076686
기타주류	0.018928	나프타	0.050037
기타조미료	0.01135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0.049840
가계외소비지출	0.009651	석유화학기초제품	0.040733
커피 및 차류	0.008952	도매	0.038087
기타 식료품	0.007515	골판지및골판지상자	0.032573
국수류	0.006274	가계외소비지출	0.028505
아이스크림	0.006251	질소화합물	0.026016
일반음식점	0.005845	경유	0.024159
빵 및 곡분과자	0.003601	석유화학중간제품	0.023079
기타음식점	0.003263	도로화물운송	0.020901
연 및 아연광석	0.002885	기초무기화합물	0.020462
발효 및 합성조미료	0.002626	부동산임대 및 공급	0.017967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0.002431	산업용플라스틱제품	0.017837
유제품	0.002405	화력	0.016902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0.002140	기타원지및판지	0.015442
연 및 아연괴	0.002031	플라스틱1차제품	0.014848
산업및전문단체	0.002014	농림어업서비스	0.014645

자료: 한국은행(2011),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재작성



##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정비]

### ■ 예산사과 가공협의회 구성 및 산학연관거버넌스 구축

- 지역내 사과가공관련업체 및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예산사과 가공협의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하도록 함
- 예산사과 가공협의회를 중심으로 예산사과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함

### ■ 예산사과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 예산사과산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군을 중심으로 농협과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가장 우선적임
- 현재 생산, 가공, 유통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원체제를 1차적으로는 추진단 형태로 통합해야 할 것임

## 5. 세부추진계획

〈표 4-4〉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름다운 과원조성 및 친환경 작목반의 활성화	→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의 도입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재배기술의 보급	→				
과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과원패밀리닥터제 운영			→	→	→
예산사과의 유통체제의 선진화 및 선진과원관리시스템 도입				→	→
예산사과의 통합브랜드화 및 예산사과의 품질기준 정립	→				
저급사과 및 가공부산물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	→	→
예산사과 전방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한 가공용 사과의 확보			→	→	→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기술보급 및 사과산업 인큐베이터 설립·운영			→	→	→
예산사과와인의 확산 및 식초산업의 활성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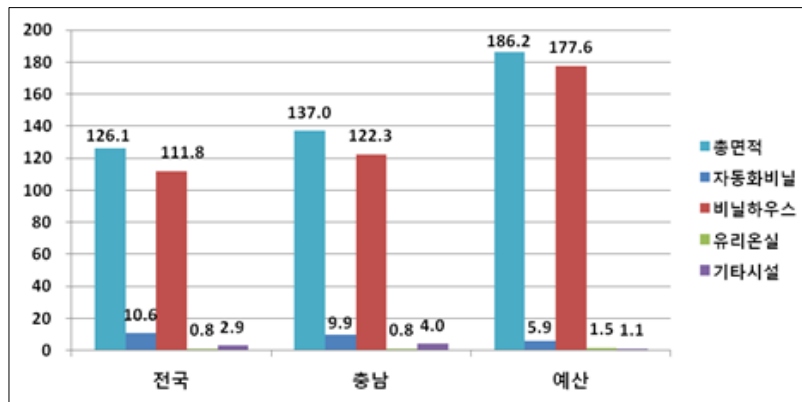
## 제3절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 1. 현황 및 문제

#### 1) 재배부문

##### ■ 전국, 충남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당) 시설채소류 재배면적을 보임

- 총면적으로는 전국평균 126평, 충남 평균 137평, 예산군은 186평 수준
- 그 중에서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가 높은 반면, 자동화비닐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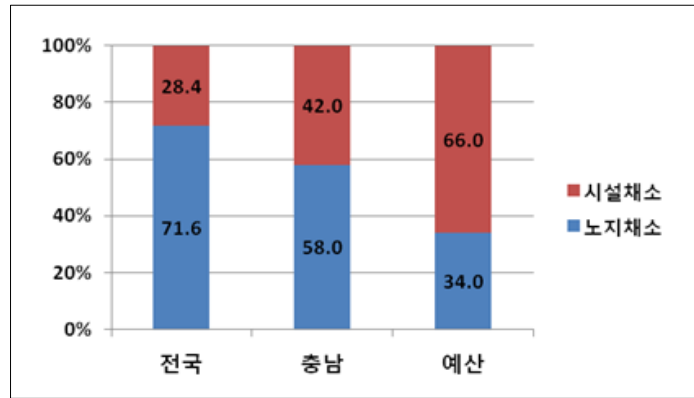


자료 : 농업총조사(2005), 통계청.

〈그림 4-3〉 전국, 충남대비 예산군 농가당 시설채소 재배면적 비교 (단위:평)

##### ■ 시설채소와 노지채소 비교 시, 예산군이 시설채소 비중 높음

- 전국적으로 여전히 노지채소 비중이 72%, 시설채소 비중이 28.4%
- 충남은 전국평균 시설채소 비중보다 약간 높은 42% 비중 차지
- 예산군은 노지채소 비중이 34%, 시설채소 비중이 66%로 시설채소 비중 높음



자료 : 농업총조사(2005), 통계청.

〈그림 4-4〉 전국, 충남 대비 예산군 채소류 비중 비교

#### ■ 예산군의 읍면별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읍면별로 예산읍, 봉산면, 신암면이 80%이상 시설채소, 광시면, 응봉면은 80% 이상 노지채소
- 시설채소 재배유형별 면적을 보면, 예산읍과 신암면이 각각 약 22% 비중 차지, 신양면과 신암면이 각각 11%, 14% 차지
  - 예산읍 : 쪽파, 토마토 등
  - 신암면 : 쪽파, 배추, 토마토 등, 그 외 수박, 열무, 시금치, 친환경 확대추세
  - 신양면 : 수박, 참외 등
  - 오가면 : 쪽파, 수박, 무, 배추
  - 대술면 : 수박

〈표 4-5〉 예산군 읍면별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현황

(단위: %, 평)

구분	노지 및 시설 재배 비중(단위:%)		시설채소 재배유형별 면적(단위:평)				
	노지채소	시설채소	총면적	자동화비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시설
예산	15.9	84.1	467.3(22.4%)	5.6	455.6	5.7	0.3
삼교	45.4	54.6	62.7	9.7	52.9	0.0	0.1
대술	73.2	26.8	100.2	0.0	100.2	0.0	0.0
신양	45.5	54.5	233.4(11.2%)	9.4	214.8	2.0	7.2
광시	80.3	19.7	50.0	2.6	43.4	3.6	0.4
대흥	40.5	59.5	125.5	0.0	119.0	6.5	0.0
응봉	90.6	9.4	59.9	25.4	34.5	0.0	0.0
덕산	69.0	31.0	41.5	2.5	34.2	0.0	4.8
봉산	14.6	85.4	101.2	2.6	98.4	0.2	0.0
고덕	37.3	62.7	70.7	5.1	64.4	1.3	0.0
신암	6.3	93.7	474.2(22.8%)	7.1	467.1	0.0	0.0
오가	23.4	76.6	291.2(14.0%)	0.1	289.7	0.0	1.4
합계	-	-	1,312.4	62.9	1,217.4	19.3	12.8

자료 : 농업총조사(2005), 통계청

### ■ 예산군 주요 시설채소 종류별 작부체계를 살펴보면 거의 연중출하

- 2~5월까지 배추를 시작으로 초여름 4~7월까지 수박 등 과채류, 쪽파는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출하, 토마토는 3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연중 내내 출하

〈표 4-6〉 예산군 시설채소 작부체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배추		◎	◎	◎	◎							
수박				●	●	●	●					
토마토			**	**	**	**	**	**	**	**		
쪽파	▲									▲	▲	▲

자료 : 1. 예산군 읍면별 인터뷰 내용 의거(2011.12.27~2012.2.28)

2. 참외의 경우 수박과 동일시기

## ■ 예산군 시설채소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인력수급 문제 : 지역외 유출, 2, 3차산업(주변 농공단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유출, 타기관(농업기술원 등)으로 유출, 시설채소 노동력 부족으로 노임상승, 경영비 압박
- 연작으로 인한 토양개량 시급 : 쪽파-배추-참외-수박-열무-쪽파 및 시금치 등, 보통 4기작
- 난방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 부담 가중화
- 농업용수 등 수질문제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친환경 농법 불가능한 상황
- 작목반 구성은 잘 되어 있으나 친환경농업 비중과 수용의사가 낮은 편
- 시설노후화로 인한 교체작업 등 원예시설현대화 시급

## 2) 유통부문

- 높은 포전출하/포전매매 비율 : 대규모 단위로 재배하기 때문에 농가 개별단위로 소비처 발굴과 포전작업 한계
- 상인과의 포전계약재배 관행 :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절차 없이 진행함으로써 상호간 불이익 문제 발생, 위험소지 상존
- 중앙집권적이고 복잡한 유통구조 : 중간상인을 통한 가락동도매시장으로 출하, 역유통 실태, 필요 이상의 유통단계
- 농협의 역할 : 실제 사업량은 전무하고 기표만 하는 곳이 대부분, 신양농협의 경우 수박선별장 건립
- 출하량 등락폭에 의해 가격진폭 발생하여 농업소득 불안정
-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간 가격차이 없음
- 저농약인증 및 무농약인증 농산물 가격수준 비슷 :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 저하
- 지역내 유통비율보다 지역외 유통비율 높은 현상, 지역외 유통으로 인해 얼굴없는 먹거리로 변신
- 저급 품질은 관내 유통, 고급 품질은 관외 유통 등 품질에 따른 유통구조 차이
- 유통시설 부족 : 집하장, 저온저장실, 선별 및 포장, 물류, 순회수집

#### 4) 소비부문

- 직거래장터의 현실 : 예산군 관내 농민이 아닌 외부지역 상인중심으로 행해짐
- 가격경쟁력 취약 :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되지 않아서 제대로된 가격보장 안됨.
- APC의 판매사업 능력에 대한 불신, 이용률 저하 : 제값주고 팔지 못하므로 농가들이 출하 기피, 고품질보다는 중·하품질의 물건이 출하되면서 소비처 발굴 애로 등 악순환
-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예산군 대표 브랜드 부재, 브랜드 난립
- 예산군내 쌀브랜드 및 시설채소 브랜드 차별성 부족, 취약
- 예산군 농산물의 이미지 부재

#### 5) 정책부문

- 대농중심의 정책에서 중소농에 대한 정책 필요
- 소농과 대농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농정
- 농정관계자(공무원) 인적 인프라 및 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취약
- 친환경농업과 비친환경농업간 정책지원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제기

## 2. 정책환경

### 1) 국가·광역의 관련정책

#### (1) 국가의 관련정책

##### ■ 시설채소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 생산기술 개발, 생산 규모화, 에너지 대체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 규모화, 현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통 개선 및 수출 촉진
- 가공 활성화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증진

■ 주요 관련정책으로는 시설원예산업의 중장기적 로드맵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이 있음

(2) 광역의 관련정책

■ 시설채소에 대한 충남도 3농혁신정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친환경 농업확대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에 대비 생산기반 확보
- 다수확에서 고급화로 시장요구에 맞는 쌀산업 정책전환

■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주산지 중심 생산기반 구축 ;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시설환경개선, 재배환경 생력화, 연작장해 방제약제 공급)
- 브랜드마케팅 강화

## [채소류 분야의 가격안정 대책]

###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관련 정책의 변화

- 농협 중심의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 : 계약재배, 자조금 조성, 유통협약 및 명령, 농업관측 등 수급안전장치의 제도화
- 시장지향적 정책
-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 체계 강화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는 단기적으로 출하조절, 산지폐기, 저장 및 가공용 수매지원, 비축사업, 중장기적으로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계약재배 확대 등

### ■ 정부가 보는 채소류 가격 불안정 요인

- 생산단계 : 노지채소류 품목별 전국 조직화 체계 미비, 농협과 생산자간 느슨한 조직화 체계
- 저장 및 가공단계 : 가공시설의 부족, 저장 및 가공 관련 전문가 부족
- 소비 및 시장요인 : 표준화되지 못한 개별거래, 투기목적에 따른 시장왜곡, 농협 계약재배의 비활성화 요인 제공, 획일화된 도매시장 거래제도
- 제도적 요인 : 비축규모 산정에 대한 논의 부족, 비축비용의 지속적인 증대, 민간의 TRQ(저울양허관세) 취급 증대, 가격변동의 위험부담과 안전장치 미비, 낮은 계약단가, 농가의 잦은 계약파기, 전문성 부족 및 판로개척 능력 한계

### ■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단체 육성을 통한 경쟁구도 확립
- 저장 및 가공체계 확립으로 단기적 시장실패에 대비
-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체계 구축 : 생산자 조직과 지역농협의 조직화 강화, 농협간 광역적 규모의 조직화 체계 강화
- 농협의 계약재배 활성화 : 계약재배 자금의 관리방식 개선, 계약재배 방식의 다양화
- 산지유통인과의 연계체계 확립
- 산지유통인 법인화 : 산지유통인 제도권 편입
- 비축사업 체계 정비 : 계약재배 물량을 비축사업 대상으로 고려, 국내 시장 가격 하락 및 상승시에 따라 비축사업 운영방식 다양화, 비축사업의 탄력적 운영체계 확립
- 품목별 저장 및 가공 활성화
-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평상시, 위기발생시 대응체계 상이)



## 2) 예산군의 관련정책

■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정 전체사업 규모는 439억원, 시설채소 사업은 35억원, 전체 대비 약 8.1%를 차지

〈표 4-7〉 예산군 농정 전체사업 대비 시설채소 관련사업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정 전체사업(A+B)	—	43,990.9	14,383.7	5,500.7	16,187.8	7,918.7
시설채소 사업(c+f)	—	3,569	870	321	1,046	1,332
비중	—	8.1%	6.0%	5.8%	6.5%	16.8%

자료 : 예산군 주요업무 추진계획(2012), 예산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2012)

주 : 타작목과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시설채소에 해당하는 사업만 추출

■ 2012년 예산군 농정유통과 예산규모는 407억원, 이 중 시설채소 관련 예산은 29억원, 비중은 7.3% 수준

〈표 4-8〉 예산군 농정유통과 시설채소 관련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정유통과(A)	76개	40,737	13,878.5	5,126.9	14,236	7,495.6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a)	-	2,123	248	214	600	1,061
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	10ha	1,241	248	112	261	620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	15ha	270	-	40	95	135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	0.6ha	88	-	13	31	44
시설원예연작장해방지	80ha	112	-	17	39	56
원예농가저온저장고	9동	212	-	32	74	106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	60ha	200	-	-	100	100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b)	-	870	522	35	139	174
지열냉·난방시설 보급	0.6ha	870	522	35	139	174
소계(c=a+b)	-	2,993	770	249	739	1,235
비중(c/A)	-	7.3%	5.5%	4.9%	5.2%	16.5%

자료 : 예산군 주요업무 추진계획(2012), 예산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2012)

■ 2012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32억원, 이 중 시설채소 관련 예산은 5.7억원, 비중은 17.7% 수준

〈표 4-9〉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시설채소 관련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업기술센터(B)	31건	3,253.9	505.2	373.8	1,951.8	423.1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a`)	-	100	50	-	50	-
기반시설 생력화기계 및 친환경농자재보급	5ha, 5농가	100	50	-	50	-
웰빙농산물 생산기반 조성(b`)	-	37	-	-	21.5	15.5
블루베리 방조망시설 고구마큐어링시스템 설치	6개소	37	-	-	21.5	15.5
농업에너지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기술 보급(c`)	3개소	120	-	36	48	36
원예·특용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d`)	8개소	282	50	36	166	30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시범(e`)	6개소	37	-	-	21.5	15.5
소계(f=a`+b`+c`+d`+e`)	-	576	100	72	307	97
비중(f/B)	-	17.7%	19.8%	19.3%	15.7%	22.9%

자료 : 예산군 주요업무 추진계획(2012), 예산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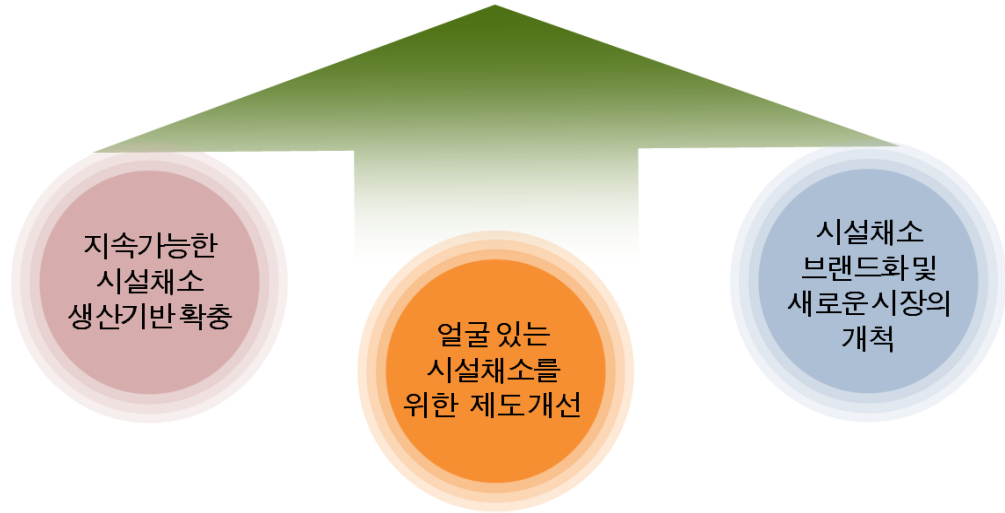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 기본전제

- 생산단계 : 예산군 시설채소 인력수급 문제 해결, 생산 기술향상,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
- 유통단계 : 대규모 시설채소 계약출하방식 전면적 도입, 전반적인 유통기능 개선과 효율화
- 소비단계 : 예산군 시설채소류 브랜드화 구축(예산군 관내 소비자와의 관계형성)
- 전체적으로 지역내외 자원순환체계 구축 원칙
- 충남 내포권의 시설채소류 주산지로서 충청권역 생산중심지로서의 기능 수행

## 2) 개발방향

###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그림 4-5〉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개발방향

## 4. 주요추진사업

### 1)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충

#### ■ 저비용·저투입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연구 및 매뉴얼 보급

- 연작피해, 토양오염 등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군 자체 연구개발 및 보급
- 시설채소류 품목별 전 단계에 걸친 재배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일반관행농법, 친환경농법, 수확후관리기술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변화 연구, 품종개선 노력을 위하여 중앙 연구기관에 예산군 현지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실용적이고 현장적용가능한 연구제안 활동

### ■ 예산군 전략육성 품목 중심의 친환경 및 GAP 인증 확대

- 전략육성 품목으로 김장채소류(쪽파와 배추)와 과채류(수박, 토마토) 지정
- 쪽파와 배추는 전 농가 GAP 인증, 토마토와 수박은 무농약 재배 인증확대 유도
- 유향재배, 효소재배 등 선도적인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수범사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농가에게 보급,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기회 확대

### ■ 원예시설 리뉴얼화 사업 및 시설채소단지 주변 경관개선

- 노후화 시설로 인한 에너지 비효율성, 자본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저하 해결필요
- 원예시설 리뉴얼화 및 현대화사업을 통해 개보수, 교체작업, 첨단시설 시범 실시
- 비닐하우스, 주변에 영농자재 방치 등으로 인한 예산군 농촌경관 이미지 저하 방지와 농가입장에서 깨끗한 작업공간, 쉼터공간으로서의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우선적 과제 해결 필요
- 경관개선 위한 적정기준은 평평한 논지대, 차량진입이 용이, 관배수, 햇빛 잘 들어오는 곳 등

## 2) 얼굴 있는 시설채소를 위한 제도 개선

### ■ 산지중심의 시설채소 종합유통센터 설립

- 시설채소 4대 품목(배추, 수박, 쪽파, 토마토) 규모에 맞는 유통인프라 확충
-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수취가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유통기능(선별, 포장, 저장, 수송), 산지~소비지까지 저온수송 물류체계 확립(cold chain system)기능 수행
- 독농가 및 농가조직에게 시설채소 관련 각종 가격과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으로 생산단계부터 판매와 마케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 ■ 시설채소 계약재배 확대 및 포전매매의 행정 감시 강화

- 계약재배 방식의 다양화, 출하단위 통일(형태, 무게 등), 체계적인 영농작업반 운영, 산지유통 전문가 육성, 산지유통인/법인 등과의 협력, 연계체계 확립

- 포전매매 거래시 표준계약서 서면작성 의무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2012.8.23.)에 의거)와 맞춰서 시설채소 품목별 계약재배사업 확대, 계열화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예산군 단위에서 별도의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전면적인 계약재배 공식화 선언
- 농가-농협 혹은 산지유통인 역할분담 충실히 이행, 가격보전 등은 농협과 지자체에서 대책마련, 손실 보전 기금마련 등 재원확보 필요

#### ■ 시설채소 공동작업 체계구축 및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적용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 장치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단계별 공동작업 체계 구축. 예를 들면, 두레, 품앗이 등 전통과 현대식 노동수급 방식 접목함
- 예산군의 주력 작물인 시설채소 품목(쪽파, 배추) 등으로 품목확대 및 대상재해 범위 확대 적극 건의하도록 함. 아울러 관련 품목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현황, 사례 중심으로 조사 및 대응 준비

### 3) 시설채소 브랜드화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

#### ■ 시설채소류 브랜드화 및 연합마케팅 추진

- 산지 농가조직화, 유통기반 여건 확충, 주체간 역할분담 통한 브랜드마케팅
- 품목별 농가조직 구성, 공동선별, 공동포장, 등급화 등 공동출하체계 확립, 판매처 발굴, 마케팅 전략 수립, 공동정산 시스템 도입, 지역농협(예산농협, 신암농협, 신양농협, 오가농협)의 시설채소 연합마케팅사업 협약
-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접근하여 소비자와 신뢰확보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 특히 지역성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 단계적으로는 예산군 관내 농산물 통합브랜드가 구축된다면 하부단위 품목브랜드로 통합, 예산군 시설채소류 브랜드 매뉴얼 작성, 네이밍, 디자인설계 등 외관은 가장 마지막으로 수행할 사항, 충남내 타지역과 광역규모 조직화 전략구사

#### ■ 시설채소 예산지역 우선공급제도의 도입

- 예산군 관내 자급률에 해당하는 물량수준에서 우선 공급(공공급식, 직판, 관내유통업체 공급)

- 친환경·고품질 상품을 1차적으로 납품, 공급
- 관내 생산되는 물량의 10%를 먼저 관내에 공급, 판매, 소비하는 순환구조 구축

〈그림 4-6〉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양식

###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 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 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갑)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매수인(을)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소재지 :  
품목 : 품종 : 계약면적 : m<sup>2</sup>( 평)  
파종일(또는 정식일) : 20 . . .  
총 매매대금 : 원  
계약일 :  
계약금 : 원 계약금지급일 :  
잔금 : 원 잔금지급일 :  
반출일 :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긴급연락처 :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긴급연락처 :  
특약사항

## ■ 양념채소류 1·2차 원물가공산업 육성(조미·양념산업 등)

- 쪽파, 배추 등 1차 선별과 포장 상품화 사업, 친환경인증 품목부터 상품화 시도
- 배추의 경우 절임배추 확대 보급, 쪽파의 경우 조미 및 양념용 가루(파우더)상품 개발
- 고품질 시판 김치 개발 및 보급, 예를 들면 예산군 쪽파와 배추로 만든 김치

## 5. 세부추진계획

〈표 4-10〉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저비용/저투입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연구 및 매뉴얼 보급	→				
예산군 전략육성 품목 중심의 친환경 및 GAP 인증 확대	→				
원예시설 리뉴얼화 사업 및 시설채소단지 주변 경관개선	→				
산지중심의 시설채소 종합유통센터 설립			→	→	→
시설채소 계약재배 확대 및 포전매매의 행정 감시 강화			→	→	→
시설채소 공동작업 체계구축 및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적용	→				
시설채소류 브랜드화 및 연합마케팅 추진			→	→	→
시설채소 예산지역 우선공급제도의 도입		→			
양념채소류 1·2차 원물가공산업 육성(조미/양념산업 등)	→	→	→	→	→

## 제4절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 1. 현황 및 문제

#### 1) 재배부문

##### ■ 쌀, 사과 등 주요 작물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이 매우 취약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주로 쌀, 일부 쌈채류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 다수의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막연한 불안감 보유

##### ■ 현재 구조는 고비용·고투입의 구조(자재비, 인건비, 노동력 투입정도 높음)

- 농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재, 비료 등에 대한 의존도가 2000년에 비해서 2010년에 더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고비용/고투입의 농업구조 속에서는 농업생산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 예산농업인 대학 수강생 중 귀농인이 많으며, 귀농인이 주로 친환경농업 실시

- 녹비작물로 대체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재배한 지 5년 이후에나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출하시점의 한계, 호응도가 낮아서 확대되기 힘든 측면

#### 2) 유통부문

##### ■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이 높고, 판로가 부족하여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지지가 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장 부재
-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소비하는데, 생산자는 일반 시장에서 차별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충남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가 부족하여 연중공급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실정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기반시설과 판로 부족으로 대량수요처 직거래 환경 제약, 특히 통합RPC에서 품종별 수매하나 친환경농산물 처리를 위한 별도공정시설 전무

## 3) 소비부문

###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관리와 가격유지 곤란

- 예산군 고품질 친환경 쌀이 다른 지역의 브랜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현실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높기에 일반 소비자의 구매가 저조한 상황

###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시장의 확보 및 개척 미흡

- 친환경 시설채소의 재배기술은 검증되었으나 유통 및 소비시장 형성이 관건
- 친환경 시장으로서 예산군 학교급식으로 쌀과 채소를 납품 중이지만 관내 공공 기관 급식으로 확대하지 못한 현실과 지원보조 부족한 상황

## 4) 정책부문

### ■ 예산군 친환경농업정책은 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초점

- 전환유도를 위해서 녹비작물 등 종자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련 작업(파종, 로터리치기 등)은 각자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호응도 떨어짐
- 친환경인증제도의 절차가 까다로워 고령농들이 신청하기에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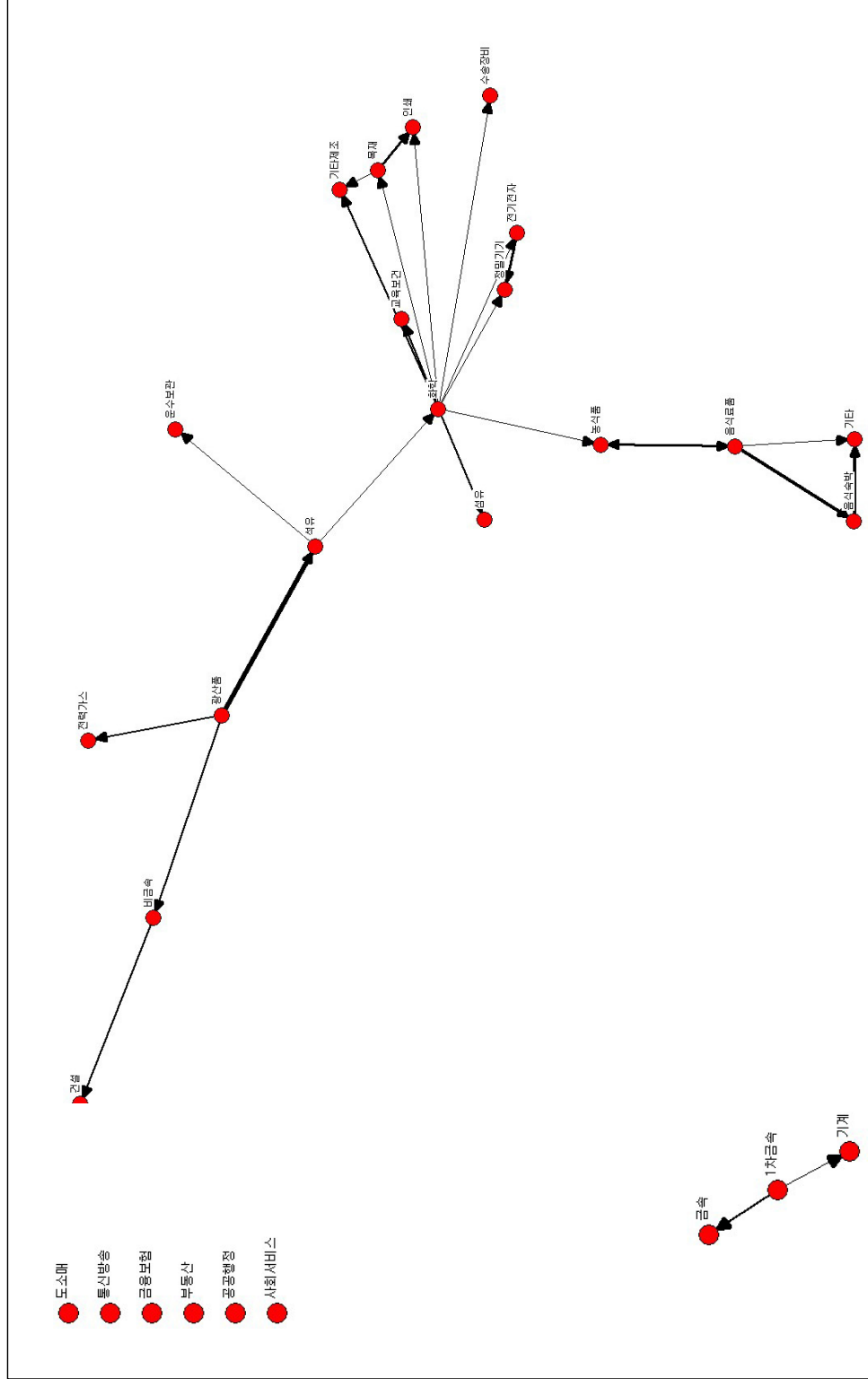
### ■ 불량한 농촌경관과 냄새나는 축산시설, 농약냄새 등으로 인해 친환경 이미지 저해

- 경종과 축산간 자원순환농법 보급 노력 부족

### ■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리 및 계획인력의 부족

- 예산군 농산물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군 농산물의 전반적 평가인식 절하
- 선진국의 다량 보조금 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정책보조는 턱없이 부족





〈그림 4-8〉 우리나라의 농업의 전후방 연계구조(2009)



## 2. 정책환경

### 1) 국가·광역의 관련정책

#### (1) 국가의 관련정책

##### ■ 생산 분야

- 토양지력 증진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재배, 유기질비료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 2010년 저농약 인증 폐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 추진

##### ■ 유통 및 소비 분야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및 유통인프라 강화 :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 확대,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 소비지 유통활성화를 위해 소비지매장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생활협동조합 등 생산자·소비자 연계단체에 소비지매장 설치자금 지원
- 대규모 생산단지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울진, 산청, 완주)와 대형유통업체간 MOU 체결 추진
- 홍보, 판촉 등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지원
- 학교장, 학부모,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대상 특별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수사례집 및 계절별·지역별 식단매뉴얼 제작·보급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지자체, 생산자, 유통단체, 학교급식, 우수관계자 등 시상 기회 마련

#### (2) 광역의 관련정책

#####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2012년 4%)

- 친환경농업조직 및 리더육성

-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 ■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3개) 및 축사시설 현대화(90개소)

- 고품질 축산물생산기반 구축
-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 유통판매시스템 선진화

####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 만들기(166농가, 87.2ha)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 바지락, 갯벌참굴, 김, 해삼 등 4대 대표사업 집중 육성

## 2) 예산군의 관련정책

■ 자재지원(유기퇴비, 녹비작물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시작했을 시기(5년동안)의 수량감소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뤄지고 있음

■ 예산군의 친환경농업지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 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 사업

■ 반면 S/W부분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에 대한 사업은 가장 낮은 실정

■ 친환경정책은 쌀 중심으로만 추진

〈표 4-11〉 예산군 농정유통과 친환경농업지원 관련 사업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광특회계
전체	4,660,032	878,560	978,368	2,403,104	400,000
토양개량제지원	450,504	315,354	67,575	67,575	-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지원사업	239,750	-	95,900	143,850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사업	7,500	-	2,250	5,250	-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	1,839,149	-	551,747	1,287,402	-
친환경농자재지원	129,137	-	18,000	111,137	-
푸른들가꾸기사업	26,412	13,206	3,962	9,244	-
유기질비료지원	770,000	550,000	66,000	154,000	-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지지원	2,880	-	864	2,016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800,000	-	120,000	280,000	400,000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88,700	-	44,350	44,350	-
미량요소복합비료지원	150,000	-	-	-	-
친환경농업실현방안연구용역	130,000	-	-	-	-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 지원	5,600	-	1,600	4,000	-
친환경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	20,400	-	6,120	14,280	-

자료: 예산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2.

###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덕산면 14개리와 봉산면 7개리 등 21개리로 총 면적 1,176ha로, 현재 1,000여 농가 이상이 다양한 종류의 농축산물을 재배 및 사육하고 있으며, 이미 고구마와 오가피, 사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농산물을 비롯해 무항생제 돼지 및 한우와 유기농 돼지 등 축산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곳에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들어서면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친환경산자유토시설, 과역방제기, 수도용 공동육묘장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유기돼지 사육방법을 활용해 자연순환농법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기축사시설과 경축자원화시설, 우렁이양식장을 비롯해 농촌문화관관을 선도할 웰컴센터와 에듀팜 등 교육관광시설 등도 조성된다.

- 박진웅 덕산농협 조합장 인터뷰 기사 中 -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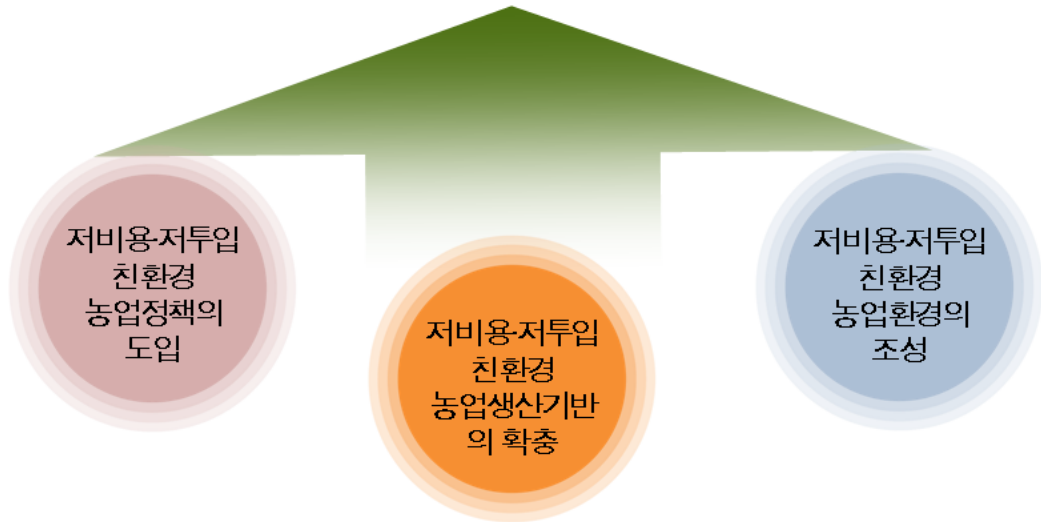
#### 1) 기본전제

- 친환경농업의 개념 전환 : 친환경자재사용이 아닌 ‘저비용·저투입’ 개념으로의 전환
- 저비용·저투입 실천을 위해 지역내 자원간·물질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
- 저비용·저투입 개념의 친환경농정 확립
- 친환경적인 농촌경관의 조성이 필요
- 친환경교육의 확대와 농민들의 조직화
-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적절한 공존이 필요
-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정책에서 저비용·저투입 농업정책으로 전환
-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농가가 직접 농자재를 제조·사용 장려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별도의 유통구조(직거래, 학교급식, 생협 등) 확보



## 2) 개발방향

### 저비용·저투입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그림 4-1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개발방향

## 4. 주요추진사업

### 1)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정책의 도입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영농조직화, 공동영농작업

- 농민 및 귀농자를 중심으로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정책이 예산군 정책과 일체화될 수 있도록 예산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행 필요
- 한계마을 중심으로 영농활동에 필요한 공동작업, 공동구매, 공동기계 이용 사업 지원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공동방제작업(목초액과 전헛수 등), 퇴비생산, 환경보호운동, 폐품수집 등 공동작업이 가능한 것은 모두 공동으로 추진, 퇴비 확보와 벚짖 썰어넣기, 논호맥 재배, 액비살포 등 공동작업 실시

### ■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평가제 도입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은 전원적이고 여유가 있는 대표적인 슬로우시티의 형태이기에 향후 농촌마을사업 등의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의 컨셉을 연계화하도록 함.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토양의 조건과 개별 지역의 토양이 어떠한가에 1차적인 조사 요구, 예당호 및 하천·지하수의 수질 관리프로그램 필요
- 현재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주변지역의 경관개선을 추진, 이를 결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 도입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 선포와 무농약 마을 지정, 저투입농법운동 확산

- 환경농업 확대 실천가능한 마을 단계적 선정하여 예산군에서 집중 육성
- 환경지도단 결성과 환경지도 활동, 유기채배 시범포 운영,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과 토종종자 확보, 민속자료실 개관, 정보화 교육 등 실시(예. 강원도 홍천 명동리(국내 최초 무농약 마을))
- 전통농법 발굴, 복원 및 계승하여 저비용·저투입 농법운동 확산
- 퇴비제조 방법, 축력 및 농업인력 효과적 사용, 토종종자 보존·채종·이용·상품화, 윤작 기초로 한 작부체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2)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자재 공동수급 및 제조기반의 구축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조직을 중심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제조와 가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돈분액비 탱크, 퇴비성형기, 퇴비혼합기, 공동농기계, 잡곡 도정기, 공동퇴비장 설치, 유기농업 위한 액비통 설치, 공동담 재배 등 공동수급 및 제조시설 증설
- 완전 무비용으로 발효시킨 자가제조 방법 보급, 전기투입 미생물 발생시설 등 활용(현재 자가미생물배양시설 보급사업은 활용저하로 신청실적 저조)

- 농업에 필요한 각종 영농자재 등을 마을별, 읍면별 대규모 공동 구매하여 농가들에게 경영비용 절감, 거래협상력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 영농자재 : 유류, 배합사료 및 OEM사료, 소형농기계, 농약, 비료, 포장재 등
- 자가제조 관련 기본적인 인식교육사업이 반드시 병행 수반되어야 효과 극대화 가능,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행착오를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보급하도록 함

#### ■ 친환경 곡물사료기반 확충과 이모작 경작구조, 경종-축산 순환구조 확립

- 유기퇴비 및 녹비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쌀 및 사과가공품의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퇴비를 공급하도록 함
- 이모작 경작구조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녹비작물(헤어로베치, 호밀, 수단그라스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토양개량 가능 및 친환경퇴비의 보급
- 현행 예산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2009년 준공)을 이용하여 볏짚 및 왕겨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개발과 농산부산물 경지환원 순환체게시설 건립, 분뇨 등을 활용한 토양양분과 지력강화, 경쟁력 있는 규모의 농가는 자가시설(개별처리시설), 소규모 농가는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과 유도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농촌경관개선 추진

- 과원, 시설채소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경관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경관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함
- 한편 대규모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악취저감방안을 도입하여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함

### 3)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환경의 조성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환경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 예산군 관내 생산자들과 주민들이 예산군 문제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접근
- 회원들이 자원, 기술, 정보를 공유하여 예산군 생태자원 경제적 효율성 향상

- 자연경관관리 : 환경개선과 수질관리, 통합 식품공급망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 무기물 관리 : 환경부담 비용 절감, 동물복지와 위생개선, 토양은행 설치, 녹색 에너지 생산
- 네덜란드의 VEL&VANLA환경협동조합 사례 벤치마킹

### ■ 소농마을 공동체 마을 조성 및 공동영농기반 조성

- 관내 공공재적 성격 농지 확보, 장기임대방식 검토(종교단체 및 기관간 협의)
- 가족단위 작은 규모로 생태순 환적인 농사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농지 경작권 제공
- 관내 유희지를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실시, 소득작물 재배(약용 및 특작)
- 귀농 희망자에게 자급농사 실습 기회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 기반 및 기회 마련
- 예) 충남 공주 마곡사 ‘소농마을 공동체’ 사업

### ■ 예산환경학교 및 소농학교의 운영

- 친환경농업은 결국 인식의 전환, 마인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교육, 학교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도구이므로 관내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과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환경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필요
-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친환경자가제조에 대한 교육 실시 (예. 홍성군 홍동면 친환경농업교육관 사례)
- 예산군 소농학교 사업을 통해 자급농사실습, 생태순환형 집건축 실습, 농촌생활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협조(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두레배움터 생태건축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네덜란드의 VEL&VANLA 환경협동조합]

### ■ 배경

- 1980년대 말 네덜란드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산성비 취약지역으로 지정, 주요염 원인암모니아 가스 배출과 축산폐수를 감축하기 위해 축산관련 규제를 강화
- 중앙정부의 하향적 환경규제책은 지역 낙농업 및 자연생태계의 현실과 많은 괴리
- 농민들의 상향적 자율규제와 대정부 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 관관리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을 통한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VEL과 VALNA이 설립

### ■ 운영구조

- 회원농가의 다양한 개별적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하여 공동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결사체 또는 부가가치형 네트워크
- 회원들이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회원 공동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회원농장은 일정의 회비를 내고 조직의 사업목표와 규율에 대한 준수의무를 갖게 되며 공동의 사업성과를 참여수준에 따라 배분
- 유럽연합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LEADER에서 지원하는 지역행동그룹과 유사한 운영구조
- 2004년 지역내 4개 환경협동조합과 함께 연합회 조직인 NFW결성

### ■ 주요 활동 : 크게 자연경관 관리와 무기물 관리 분야로 나뉘어짐.

- 자연경관관리 : 환경개선과 수질관리, 통합적 식품공급망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 무기물 관리 : 환경부담 비용 절감, 동물복지와 위생개선, 토양은행 설치, 녹색에너지 생산

### ■ 성공요인 : 지역생산자들과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접근

- 회원들이 자원, 기술,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생태자원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
-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
- 지역 낙농가들이 상향적 농촌개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후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이른바 “매개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 중앙정부, 시민사회, 농민단체, 관행적인 영농기술 및 과학계와 많은 마찰이 있었으나 조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소

자료: 최용주(2008), 농업농촌 발전모델의 전환과 농업협동조합의 과제, CEO Focus 214호, 농협경제연구소

## 5. 세부추진계획

〈표 4-12〉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영농조직화, 공동영농작업	→	→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평가제 도입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 선포와 무농약 마을 지정, 저투입농법운동 확산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자재 공동수급 및 제조기반의 구축		→	→		
친환경 곡물사료기반 확충과 이모작 경작구조, 경종·축산 순환구조 확립		→	→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농촌경관개선 추진		→	→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환경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	→	→
소농마을 공동체 마을 조성 및 공동영농기반 조성		→	→		
예산환경학교 및 소농학교의 운영	→	→	→	→	→

## 제5절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 1. 현황 및 문제

#### 1) 농가 현장직판의 취약

##### ■ 농가 현장직판의 중요성

- 농가 측면에서는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공활동의 증진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을 가능케 하며, A급상품 이외의 B품 판매를 가능케 함: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과의 안정적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단골 확보를 가능케 하며(사후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효과), 가공, 체험, 교육, 음식, 관광 등 농업 관련 다른 활동들(6차산업화)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소비자 측면에서는 관광지에서의 즉석 구매를 통해 그때 그때 수확하는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 가공품을 추가 유통비용 없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함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일본과 유럽의 로컬푸드 직판장(농가, 도로변, 마을 등)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농민장터(farmers' market) 등이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종합적 현장직판의 취약

- 관내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의 소비자 직거래 비율이 20% 미만임: 봉산면, 덕산면, 예산읍, 응봉면 이외 지역
- 현재는 5일장만 있음(예산역전, 예산읍, 고덕, 광시, 덕산, 삽교, 신양): 하지만 5일장은 농업인들의 직판을 위한 장소라고 보기엔 한계가 많음. 상인들과 농민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지역산이라는 신뢰를 얻기엔 한계가 존재함
- 주요 관광지에서의 직판활동이 매우 취약함: 일부 특산물 판매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예: 덕산스파캐슬),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직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예: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의 경우)

- 예산군의 핵심적인 관광지인 덕산면과 대흥면 조차도 마을이나 면중심지에서의 체계적인 직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다만 최근 대흥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슬로시티 대흥장이 2011년부터 월1회 열리면서, 대흥면에서는 직판활동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로컬푸드 직판의 효과]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로컬푸드 구매액 100원의 지역소득창출효과가 250~266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일반 식품의 경우 140원에 불과 => 1.79배 더 큼)(국회사무처, 2007)
- 일본의 지역농산물 직판장 경우, 소비자 수취가격 대비 15%를 매장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수취가격의 약 80%를 생산자가 수취할 수 있음: 일반 유통 대비 2배의 소득효과 발생(윤병선, 2011)
- 우리나라에서는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월 30~100만원선의 추가적 고정소득 발생(언니네텃밭 참여농가의 경우 상업경작 이외의 텃밭경작분, 홍성의 귀농자 개인꾸러미 사례의 경우 정기적 월소득 발생)
-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의 경우, 공판장 납품에 비해 100%, 유기농 전문매장 납품에 비해 50~70% 소득증가 효과 발생: 생산자가 소비자 수취가격 대비 10%의 수수료만 농협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한겨레신문, 2012.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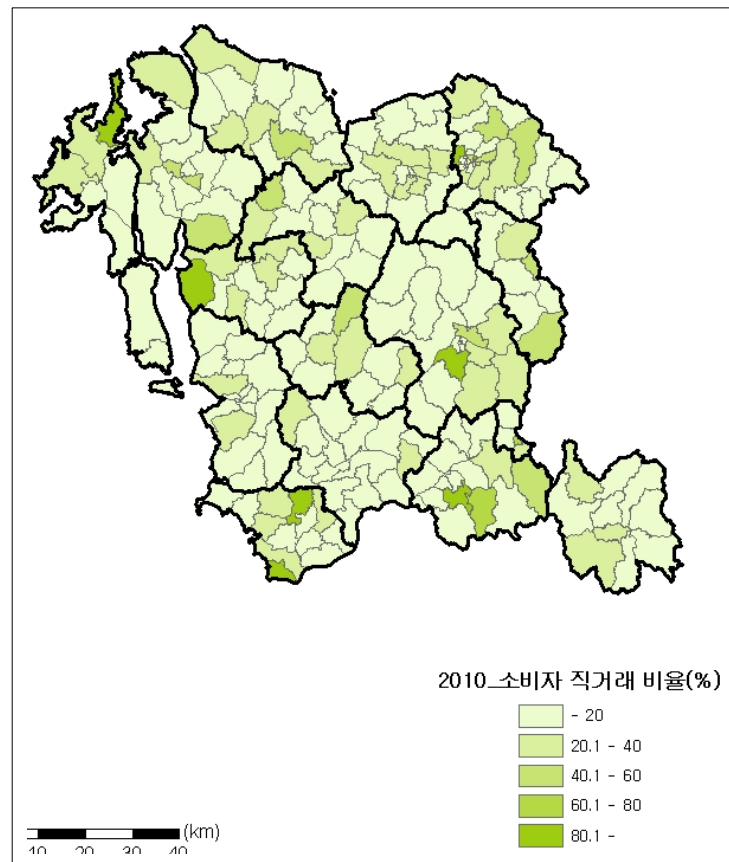
### ■ 현재 도로변 직판장의 취약성

- 예산군 특산 농산물을 위한 도로변 직판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사과 중심)
-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그 때문에 실제로 농가가 운영하는 직판장이라는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부여하기엔 한계가 존재함



## ■ 농가 현장직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결여

- 현재까지의 농산물 유통정책상 농가 현장직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결여 문제: 산지유통 규모화와 개별 농가단위의 현장직판 억제 유도정책
- 이 때문에 예산군 생산 농산물은 예산 관내에서 직판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서울과 수도권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음
- 관광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함: 종합적 정보제공 등



자료: 농림어업총조사(2010)

〈그림 4-11〉 농가판로 중 소비자 직거래 비율

## 2) 지역농업과 지역 내 소비주체 간의 연계 미약

### ■ 지역농업이 지역 외부 판매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탓에, 지역 내부 수요와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군 주력 생산품목의 경우에는 자급률이 1천%가 넘어서고 있음: 사과, 수박, 한우, 파, 배, 돼지
-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들의 상당수는 예산 지역에서의 생산이 매우 취약함: 특히 잡곡류(콩, 녹두, 보리, 팥, 옥수수, 수수, 메밀), 과일류(참외, 딸기, 포도, 자두, 감), 채소류(양파, 양배추, 가지, 풋고추)
- 옥수수나 양파는 소비량이 상당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생산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 간의 미스매치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심하지 않은 편으로 볼 수 있음: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이 지역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기 때문

### ■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지역 주민과의 소비 간의 연계가 취약하다는 점은 지자체 농업정책에 대한 비농업 지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역농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투입이 비농업 지역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 간의 연계가 강화되면 지역농업 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생산물이 지역민들에게 소비되는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지역 내 소비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홍보, 교육활동의 효과

〈표 4-13〉 품목별 지역자급률 순위

품목	생산량(톤) 2010	1인 1일 소비량(g) 2009	예산 연간 소비량(톤) 2009	자급률(%)
사과	23267.0	20.16	649	3583.9
수박	24402.0	25.48	821	2973.9
한육우	21817.0	25.47	820	2659.9
파	9101.0	17.65	568	1601.2
배	6727.0	16.38	527	1275.3
돼지	17853.0	49.91	1607	1110.8
배추	25478.0	92.48	2978	855.5
쌀	59415.0	222.62	7169	828.8
무	10922.0	46.01	1482	737.1
호박	2741.0	15.88	511	536.0
닭	3539.0	20.60	663	533.5
고구마	2012.0	12.68	408	492.7
토마토	3010.0	19.04	613	490.9
생강	114.0	0.74	24	478.4
시금치	565.0	4.04	130	434.3
버섯	792.0	8.05	259	305.5
참깨	96.0	1.04	33	286.6
오이	1462.0	16.07	518	282.5
조	10.0	0.11	4	282.3
마늘	1345.0	15.58	502	268.1
땅콩	124.0	1.81	58	212.7
감자	1642.0	24.86	801	205.1
복숭아	504.0	8.55	275	183.0
상추	293.0	6.60	213	137.9
콩	675.5	21.36	688	98.2
녹두	7.3	0.34	11	66.7
보리	70.7	3.37	109	65.1
당근	133.0	7.43	239	55.6
팔	13.9	1.57	51	27.5
양파	316.0	60.65	1953	16.2
양배추	65.0	12.89	415	15.7
옥수수	31.2	64.52	2078	1.5
수수	0.1	0.34	11	0.9
메밀	0.0	0.28	9	0.0
참외	0.0	8.20	264	0.0
딸기	0.0	8.82	284	0.0
가지	0.0	1.61	52	0.0
풋고추	0.0	10.04	323	0.0
포도	0.0	13.31	429	0.0
자두	0.0	2.93	94	0.0
감	0.0	7.39	238	0.0

##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로컬푸드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는 영역임

- 신선함이라는 지역 농산물의 강점을 급식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예산은 충남의 중심지역으로 거주인구에 비해 공공기관의 수가 더 많음
- 향후 내포신도시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존재함

〈표 4-14〉 2011년 예산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량 상위 품목(금액 기준)

순위	대분류	작은 분류	물품	구입금액 (원)	비중 (%)	순위	대분류	작은 분류	물품	구입금액 (원)	비중 (%)
1	농산물	주곡	일반백미	268,223,384	24.5%	26	농산물	채소	숙주나물	9,406,012	0.9%
2	농산물	잡곡	일반참쌀	99,574,155	9.1%	27	농산물	나물	삶은고사리	8,944,618	0.8%
3	농산물	서류	감자	43,975,146	4.0%	28	농산물	과실류	딸기	8,666,808	0.8%
4	농산물	채소	마늘	37,430,694	3.4%	29	농산물	잡곡	수수	8,315,168	0.8%
5	농산물	채소	호박	34,342,874	3.1%	30	농산물	채소	얼갈이	8,249,361	0.8%
6	농산물	채소	양파	34,116,170	3.1%	31	농산물	채소	아욱	8,061,647	0.7%
7	농산물	채소	당근	32,179,998	2.9%	32	농산물	채소	수박	7,793,251	0.7%
8	농산물	채소	콩나물	29,126,990	2.7%	33	농산물	과실류	포도	7,782,216	0.7%
9	농산물	채소	오이	23,806,534	2.2%	34	농산물	채소	풋고추	7,695,211	0.7%
10	농산물	채소	무	21,129,697	1.9%	35	농산물	채소	브로콜리	7,357,506	0.7%
11	농산물	채소	시금치	17,926,510	1.6%	36	농산물	종실류	참깨	7,024,566	0.6%
12	농산물	채소	파	17,812,099	1.6%	37	농산물	채소	새송이버섯	6,881,112	0.6%
13	농산물	채소	생표고	17,571,143	1.6%	38	농산물	채소	근대	6,641,676	0.6%
14	농산물	잡곡	기장	14,868,943	1.4%	39	농산물	주곡	무농약백미	6,496,000	0.6%
15	농산물	서류	고구마	14,514,030	1.3%	40	농산물	과실류	배	5,838,214	0.5%
16	농산물	채소	깻잎	14,139,894	1.3%	41	농산물	과실류	바나나	5,585,721	0.5%
17	농산물	채소	양배추	13,528,495	1.2%	42	농산물	두류	검정콩	5,401,605	0.5%
18	농산물	채소	느타리버섯	12,665,732	1.2%	43	농산물	채소	팽이버섯	5,309,235	0.5%
19	농산물	채소	피망	12,432,580	1.1%	44	농산물	채소	참외	5,188,391	0.5%
20	농산물	과실류	사과	11,898,186	1.1%	45	농산물	과실류	파인애플	4,641,434	0.4%
21	농산물	과실류	금귤	10,430,156	1.0%	46	농산물	채소	생강	4,554,455	0.4%
22	농산물	채소	양송이	10,351,349	0.9%	47	농산물	채소	부추	4,229,226	0.4%
23	농산물	과실류	귤	10,329,010	0.9%	48	농산물	채소	상추	3,982,222	0.4%
24	농산물	나물	도라지	10,119,918	0.9%	49	농산물	두류	땅콩	3,914,101	0.4%
25	농산물	채소	방울토마토	9,990,288	0.9%	50	농산물	잡곡	기능성쌀	3,759,476	0.3%

자료: 예산군 관내 초등학교 24곳 중 17곳(70%), 중학교 11곳 중 3곳(27%), 고등학교 7곳 중 4곳(57%)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학교급식

- 예산 관내에 대학과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음:  
상당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음
-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한 방식: 국내산  
사용 분위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산 사용 및 유통구조는 전혀 갖춰지  
지 못함. 즉, 구매자인 학교 영양교사와 생산자인 예산 농업인 간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
- 이 때문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  
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그 뿐 아니라 학교텃밭이나 농  
촌체험 같은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식생활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함
-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 중에서 상당한 양이 소비되는 양파, 당근의 경우  
지역생산이 미흡한 품목임
-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다양한 1차 가공품들(김치류, 두부, 고춧가루, 참기름, 들  
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이 현재는 지역 생산물이 공급되고 있지 못한 현  
실: 향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공급시 상당한 시장 창출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예산의 대표적 생산품목인 사과와 경우, 구입금액 기준 충남 전체에서는 16위  
(1.5%)인데 비해 예산에서는 20위(1.1%)로 오히려 낮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  
며, 수박, 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역 특산물이 지역 급식에 제대로 공급되  
고 있지 못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가공품의 경우에도, 사과주스는 충남 전체에서는 15위(1.1%)인데 비해 예산에  
서는 33위(0.6%)에 불과함(홍성은 19위(1.3%)임): 그 조차도 예산사과를 사용  
했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임

〈표 4-15〉 2011년 예산 학교급식 가공품 소비량 상위 품목 현황(금액 기준)

순위	대분류	작은 분류	물품	구입금액 (원)	비중 (%)	순위	대분류	작은 분류	물품	구입금액 (원)	비중 (%)
1	가공	반찬	김치류	249,111,445	21.4%	26	가공	양념	볶은참깨	8,541,827	0.7%
2	가공	기름	콩기름	54,537,429	4.7%	27	가공	떡	떡볶이, 떡 꼬치용	8,378,456	0.7%
3	가공	두부	두부	47,391,973	4.1%	28	가공	반찬	탕수육	8,295,432	0.7%
4	가공	반찬	튀김	42,959,196	3.7%	29	가공	냉동	생선가스	7,874,664	0.7%
5	가공	가루	고춧가루	37,024,831	3.2%	30	가공	냉동	치킨가스	7,867,584	0.7%
6	가공	냉동	만두	34,746,248	3.0%	31	가공	떡	꿀떡	7,657,572	0.7%
7	가공	장류	고추장	31,827,424	2.7%	32	가공	가루	전분류	7,286,168	0.6%
8	가공	음료	요구르트	29,673,046	2.5%	33	가공	음료	사과쥬스	7,275,798	0.6%
9	가공	떡	가래떡(흰떡)	27,502,839	2.4%	34	가공	음료	포도쥬스	7,139,455	0.6%
10	가공	빵	핫도그	26,154,708	2.2%	35	가공	소스	케첩	7,100,499	0.6%
11	가공	기름	참기름	24,212,084	2.1%	36	가공	두부	순두부	6,688,511	0.6%
12	가공	냉동	돈가스	20,816,455	1.8%	37	가공	유제품	치즈	6,075,962	0.5%
13	가공	기름	들기름	17,036,849	1.5%	38	가공	음료	오렌지쥬스	5,916,253	0.5%
14	가공	어묵	어묵	16,832,826	1.4%	39	가공	면류	스파게티면	5,456,620	0.5%
15	가공	반찬	햄스테이크	16,236,648	1.4%	40	가공	술	청주	5,349,783	0.5%
16	가공	냉동	미트볼	14,571,896	1.3%	41	가공	묵	녹두묵	5,261,954	0.5%
17	가공	장류	양조간장	14,297,815	1.2%	42	가공	과자	쿠키	5,237,690	0.5%
18	가공	냉동	냉동완자	13,767,232	1.2%	43	가공	면류	국수	5,100,778	0.4%
19	가공	장류	된장	12,780,019	1.1%	44	가공	빵	슈크림	4,986,605	0.4%
20	가공	두부	두부기타	12,561,388	1.1%	45	가공	냉동	너겟	4,950,940	0.4%
21	가공	면류	당면	12,195,954	1.0%	46	가공	반찬	오이지	4,817,840	0.4%
22	가공	묵	도토리묵	12,012,807	1.0%	47	가공	반찬	장아찌	4,664,545	0.4%
23	가공	면류	생면	8,900,954	0.8%	48	가공	음료	식혜	4,473,969	0.4%
24	가공	양념	물엿	8,884,684	0.8%	49	가공	냉동	떡갈비	4,457,777	0.4%
25	가공	빵	케이크	8,545,850	0.7%	50	가공	소스	자장소스	4,421,640	0.4%

자료: 예산군 관내 초등학교 24곳 중 17곳(70%), 중학교 11곳 중 3곳(27%), 고등학교 7곳 중 4곳(57%)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공공급식과 공공조달

- 관내에 중앙정부, 충남도, 예산군 산하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예산군이 지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상당한 수  
요를 형성하고 있음

- 군청: -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 결식아동 방학중 중식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급식비 지원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영유아 대상 식품지원사업)

- 하지만 공공급식이나 공공조달에 있어서 예산지역 농식품의 우선구매제도가 실현되고 있지 못함: 관행적으로 식재료 유통업체들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

## ■ 외식업

- 예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체들이 고객(특히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예산의 맛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지역 내의 분위기도, 자체적인 노력도, 정책적인 노력도 없음
- 그 결과 일부 농촌지역(예당저수지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의 예산 농식품 사용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덕산온천과 수덕사 인근 식당들의 경우 특히 문제임
- 특히 예산 관내 농업인과 외식업체 간의 안정적 신뢰관계 하에서의 직거래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됨

## ■ 유통

- 대형마트는 아직 입점하지 않은 상태: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중소형 마트와 5일장, 재래시장을 통해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지만, 예산지역 생산물이 아니라 대부분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역유입된 것들임
-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지역 내 중소형 마트에서도 예산지역 생산물을 별도로 의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음

### 3) 로컬푸드 사용의 지역적 분위기와 지원정책 결여

■ 자산지소의 실현을 위한 지역적 분위기와 정책적 노력이 매우 강한 일본의 각 지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로컬푸드 사용을 통한 지역 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달성을 위한 지역적 분위기 조성이나 지원정책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여되어 있음: 다양한 지역 내 민간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 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의 노력은 존재함: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육성조례를 제정한 원주, 완주, 평택, 김제, 강진, 청송 등의 사례

## 2. 정책환경

### 1) 국가·광역의 관련정책

■ 중앙정부는 직거래장터, 6차산업화를 필두로 하여 점차 로컬푸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음

- 아직까진 종합적인 정책계획을 준비하고 있진 못함
-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정책추세를 감안했을 때, 차기정부에서 공식적인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직거래 관련〉

■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협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장터 활성화 유도 및 지원 계획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aT, 2011)

- 관내에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5천만원 지원(국고 100%): 시설 설치 비용 및 홍보비용 등



- 2012년에는 중단된 상태임

###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자금(aT)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매장 임대보증금, 매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융자사업
  - 금리: 연 3.0%(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5년 이내(2년거치 3년상환)
  - 사업의무액: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이상
  - 지원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 ■ 직거래매취자금 지원(aT)

- 소비자생협,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상으로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입 자금(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을 지원하는 사업
  - 금리: 연 3.0%(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1년 이내
  - 사업의무액: 지원금액의 125% 직거래 매입
  - 상환방법: 일시상환

## 〈6차산업화 관련〉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광특)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도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사업유형 1)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유형 2)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유형 3) 체험·전시 지원, (사업유형 4)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aT)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자부담비율 : 대출액의 25% 이상
  - 용도
    - 시설자금 :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자금
    - 운영자금 :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지원(aT)

- 창업을 준비하는 농어업인 대상으로 소규모식품업체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이내
  - 자부담비율 : 대출액의 25% 이상
  - 지원용도
    - 시설자금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사업장 건축비용 및 기계기구, 물류장비 구입
    - 운영자금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 충남도는 3농혁신정책의 추진

-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3농혁신의 핵심사업 중 하나
-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관련 사업: 농민장터 지원사업, 도농교류 지원사업, 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사업 등 2012년부터 진행
-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기본계획 수립(2012년 하반기): 충남도 및 시군 관련사업 발굴 계획

〈표 4-16〉 지자체 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비교

	원주	원주	청송
명칭	원주푸드	원주 로컬푸드	청송 로컬푸드
목적	농촌환경 보존 시민 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 보전 주민 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 보전 주민 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
로컬푸드 정의	지속가능한 방법 원주지역 생산·가공 직거래/2단계 이하 유통단계 거친 식품	동일	동일
기본 이념	-도농상생의 나눔과 연대의 범 시민적 지역공동체운동: 농촌경 제자립, 시민 식량주권 확보 목 표 -농촌환경보존 도시주민 건강증 진 기여: 생명농업과 건강도시 구현 -식생활교육 통한 안전하고 환 경친화적 식생활실현	-도농상생, 순환관계 확립 목적 의 범주민적 지역공동체운동: 농촌경제자립, 주민 식량주권 확보 목표 -다품목소량생산 특징인 가족소농/ 지역공동체 참여 보장: 지속가 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 -식생활교육 통한 안전하고 환 경친화적 식생활실현 -먹을거리 이동거리 최소화: 저 탄소 녹색성장 실현, 지구환경 보전 기여	동일
계획수립	육성 지원계획(매년)	육성 지원계획(5년)	육성 지원계획(5년)
위원회 구성	위원회 -25명(부시장) -분과위원회	위원회 -15명(부군수)	위원회 -15명(부군수)
인증	-식품, 음식점 인증 -인증지원센터 설립 -판매장 지정	-식품, 음식점 인증 -인증지원센터 설립	-식품, 음식점 인증 -인증지원센터 설립 -판매장 지정
센터	종합센터 설립 운영 -전처리, 가공, 유통, 교육, 복지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기획생산지원 -직거래유통 활성화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식문화교육 및 생산자·소비자 교류활성화사업 -캠페인, 홍보, 교류협력사업 -통합물류센터, 전처리센터, 전통 발효식품단지, 프레시푸드단지, 교육센터 시설설치 -민간단체 위탁운영가능	로컬푸드센터 설치운영 (동일) -민간단체 운영
생산	농업생산관련 정책수립 시행	다품목 소량생산 조직화 -친환경농업지원, 품목별 기획 생산단지, 특수목적 기획생산단 지, 노인복지 기획생산단지(두 레농장), 안심축산물 기획생산 단지 조성	동일
가공	가공단지 조성 가능	농민가공조직화 방향 권역별 농민가공지원센터 설치 가공단지 조성가능	동일
유통 (직판)	임시시장 지원	농민장터 개설 운영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 공동체지원농업 지원	동일
유통 (급식, 외식)	학교급식, 청소년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 배려계층급식 우 선소비	학교급식 지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노력 모독/복지시설 우선사용 로컬푸드판매업소 차액지원	동일
식품산업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농식품산업시설 설치, 농식품소 기업 유치	x
터발활동	공동농장 조성	x	x
정보 시스템	전용 홈페이지 제작 운용 등	동일	동일
제휴푸드	x	o	o

	김제	평택	강진
명칭	김제 로컬푸드	평택 로컬푸드	강진푸드
목적	농촌환경 보존 시민 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공익 적 기능 증진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 농촌주민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촌환경 보존 군민 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
로컬푸드 정의	동일	평택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 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	동일
기본 이념	-도농상생, 순환관계 확립 목적 의 범시민적 지역공동체운동: 농촌경제자립, 주민 식량주권 확보 목표 -다품목소량생산 특징인 가족소 농/지역공동체 참여 보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 -식생활교육 통한 안전하고 환 경친화적 식생활실현	x	-도농상생의 나눔과 연대의 범 시민적 지역공동체운동: 농촌경 제자립, 군민 식량주권 확보 목 표 -농촌환경보존 도시주민 건강증 진 기여: 생명농업과 건강도시 구현 -식생활교육 통한 안전하고 환 경친화적 식생활실현
계획수립	육성 지원계획(5년)	기본계획 수립	육성 지원계획(매년)
위원회 구성	위원회 -25명(부시장) -분과위원회	정책협의회 -20명(부시장)	위원회 -13명(부군수) -분과위원회
인증	-식품, 음식점 인증 -인증지원센터 설립 -판매장 지정	x	-식품, 음식점 인증 -인증지원센터 설립
센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기획생산지원 -직거래유통 활성화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식문화교육 및 생산자-소비자 교류활성화사업 -캠페인,홍보,교류협력사업 -통합물류센터,전처리센터,전통 발효식품단지,프레시푸드단지, 교육센터, 복지센터 시설설치	지원센터 설치운영 -홍보교육, 연결사업, 직거래지 원 -비영리법인 위탁가능	종합센터 설립 운영 -전처리, 가공, 유통, 교육, 복지
생산	동일	기획생산단지 조성지원	다품목 방식 농업생산관련 정책수립 시행
가공	가공단지 조성 가능	마을 농산가공품 생산 지원 농업인가공 센터 설치	가공단지 조성 가능
유통 (직판)	임시시장 지원	직거래장터개설지원 상설판매장설치지원	임시시장 지원
유통 (급식, 외식)	학교급식, 청소년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 배려계층급식 우 선소비	학교,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관 급식 지원	학교 급식, 보육시설 및 복지시 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 우선 소비
식품산업	식품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x	식품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텃밭활동	공동농장 조성	x	공동농장 조성
정보 시스템	동일	x	동일
제휴푸드	x	x	x

자료: 허남혁, 2011

## 2) 예산군의 관련정책

### ■ 예산군에서는 아직까지 로컬푸드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최근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정책은 기존의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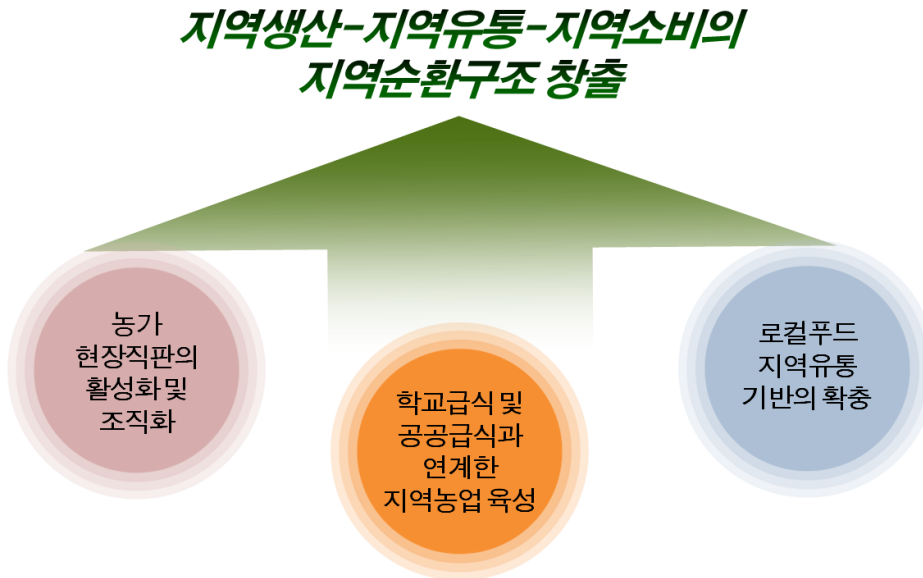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 기본전제

### ■ 관계유통, 지역유통 등 ‘얼굴있는 농식품 유통’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예산의 맛을 지역민과 소비자에게 제공함

- 기존 유통체계 내에서 유통과정 중에 원산지가 소멸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 지역산지로서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얼굴있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 단골을 상대로 신뢰관계 하에서 진행되는 안정적 관계유통, 지역 생산물의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유통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제고
- 직판, 가공, 관광, 체험, 교육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부가가치 및 수취소득 제고

## 2) 개발방향



〈그림 4-12〉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개발방향

## 4. 주요추진사업

### 1) 농가 현장직판의 활성화 및 조직화

#### ■ 농가직판장의 브랜드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 농민장터, 직판장, 꾸러미, 농가식당, 분양사업 등 직판 활동의 조직화 및 복합화 지원
- 예산군 차원의 통합 브랜드화 및 이미지 제고, 인증시스템 구축
- 기존 재래시장 및 5일장의 농민 직판 활성화 지원: 농민 직판 코너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모색(예: 예산장 및 역전장의 농민 직판 코너 도입 -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목적 달성)
- 직판 활동의 조직적 전개 유도: 읍내, 관광지, 마을, 도로변 등

- 다양한 분양사업의 활성화 지원: 과수류, 장류, 콩류, 보전지역농지 등 도시민과 지역민을 상대로 하는 분양사업의 조직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
- 직판 활동의 지역적 연계를 통한 활성화 유도: 농민장터·직판장과 인근 식당의 식재료 구매 간의 연계 지원 등
- 직판 농산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품목 소량생산농가 발굴: 고령농의 텃밭 경작 활성화, 노인일자리형 농장 조성, 귀농자 지원 등

- 농민장터: 원주 새벽시장
- 직판장: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 꾸러미: 공주 공생공소
- 농가식당: 예천 지보참우식당
- 분양사업: 보은 황토사과나무 분양, 공주 밤나무 분양, 청산도 구들장논 트러스트

#### ■ 농가직판 조직화 지원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조직적 형태와 지역적 범위를 활용한 직판 지원: 직접 생산물, 예산군 내 생산물, 충남 생산물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물품군 확보 방안

#### ■ 농가가공 활성화를 통한 직판 활성화 지원

- 농가 가내가공의 활성화: 농가 가내가공품의 직판을 통한 신규판로 확보 및 직판 물품군의 다양화 전략을 위한 방안(예: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가내가공품 판매)
- 농민위탁가공센터 설립: 농가가 자신의 생산물을 갖고 와서 가공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각종 인허가 대행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공센터의 설립 (예: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
- 전통음식과 조리방법, 전통적 식재료의 발굴을 통한 슬로푸드의 활성화

## 2)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농업 육성

###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입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과 공공조달에 있어서 예산 농식품의 사용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함
- 이를 통해 예산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과 가공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로컬푸드 구매를 선도함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전 단계로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을 통한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지역가공품의 학교급식 공급사업 시작(합천, 함안, 옥천 등의 사례)
-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과일간식을 제공함: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에 대한 입맛을 길러주는 미각교육과 병행
- 관내 대표 품목의 경우에는 충남 광역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직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더 나아가 가공품 제조 공급의 활성화 도모(예: 사과주스)

### ■ 텃밭활동 지원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 학교텃밭 및 주민텃밭, 노인일자리텃밭(예: 완주군 두레농장) 활성화 지원
- 다양한 대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 ■ 예산 로컬푸드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 예산 로컬푸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 이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들을 제도화하고, 예산군과 전 군민의 로컬푸드 활성화 참여를 독려함
- 예산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립: 생산자-구매자/소비자 간 관련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의사소통의 지원, 조직화 지원 및 컨설팅, 교육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



##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역할]

### ■ 관련 정보 제공

- 지역내 생산자-지역 내외 구매자 간 정보제공 및 매칭
-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예산 농특산물 지도, 예산 로컬푸드 먹거리 가이드북 제작 및 관리

### ■ 조직화 지원 및 컨설팅(생산, 유통, 가공)

### ■ 교육 활동: 소비자 교육, 학생 교육, 생산자 교육, 외식업체 교육, 가공업체 교육, 학교영양사 교육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

### ■ 주체간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 증진: 생산자-외식업체, 생산자-영양사 간 생산지방문 행사, 시식행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행사 진행

## 3) 로컬푸드 지역유통 기반의 확충

### ■ 로컬푸드 식당지구의 선정 및 창업지원

- 예산 로컬푸드 식당 인증제 등의 도입(특히 관광지 중심)
- 로컬푸드 식당 지구의 선정
-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 빵집 등의 창업 지원

### ■ 지역내 기업체 및 단체와 지역발전협약 체결(우선구매제 등)

- 복지, 관광, 유통 등 소비주체들의 예산 농식품 사용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농특산물을 비롯한 타 영역에서의 통합 브랜드 사용 유도: 특히 관광부문(외식, 숙박 등)

## ■ 대형유통업체 내 예산로컬푸드 코너의 운영

- 지역 내 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 내 예산 로컬푸드 코너(삽인삽) 입점을 위한 협력 모색 (예: 당진 홈플러스 사례,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사례, 이마트 사례 등)

## 5. 세부추진계획

〈표 4-17〉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세부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가직판장의 브랜드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				
농가직판 조직화 지원	→				
농가가공 활성화를 통한 직판 활성화 지원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입	→				
텃밭활동 지원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				
예산 로컬푸드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				
로컬푸드 식당지구의 선정 및 창업지원		→			
지역내 기업체 및 단체와 지역발전협약 체결(우선구매제 등)	→				
대형유통업체 내 예산로컬푸드 코너의 운영	→				

## 제6절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 1. 현황 및 문제

#### 1) 예산군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 ■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2010년 현재 예산군 농업인구는 28,280명으로 전체 예산군 인구 88,228명의 약 32.1%가 농업에 종사 → 농업의존도가 높음
- 그러나 2000년 42,524명이었던 농업인구는 2005년 32,439명, 2010년 28,280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33.3%의 농업인력이 감소함

##### ■ 심각한 농업인구의 고령화

- 농업인구 중 청장년층(15~64세)은 2000년 28,643명에서 2005년 19,206명, 2010년 15,79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노년층(65세 이상)은 2000년 9,128명(21.5%), 2005년 10,244명(31.6%), 2010년 10,216명(36.12%)으로 그 비중이 증가
- 현재까지의 추이를 반영해볼 때, 2020년 예산군 농업인구는 22,319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청장년층(15~64세) 10,048명(45.02%), 노년층(65세 이상) 10,633명(47.6%)으로 노년층이 청장년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업의 핵심인력인 20~49세는 4,449명(19.94%)으로 전망되고 있음(충청남도(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참조)

#### 2) 지역 내 단순농업인력 절대적 부족

- 단순농업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노동 생산성이 높은 40~50대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 ■ 단순농업인력 부족의 원인

-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이며, 더 안정적이고 수월한 인근의 농업기술센터 및 농공단지 등에서 근로하거나 농업분야 외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고자 함
- 또한 농업분야 노동의 상대적인 저임금 때문. 공공 근로직이 많아지면서 기대 임금수준이 상승한데 비해, 작황 및 농산물 가격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농업분야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어려움
- 예산군 내 지역적으로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업노동 수요가 같은 시기에 중복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 노동 요구량이 높은 시설재배의 경우 포전매매가 성행

## 3) 미진한 귀농·귀촌인 유입과 지역사회 부적응

### ■ 미진한 귀농·귀촌인 유입

-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충남지역 귀농·귀촌자의 수는 1,770명이며, 지난 2011년 727명이 귀농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충남 내에서는 서천군, 공주시, 논산시 등이 비교적 귀농인의 수가 많으며, 예산군은 계룡시, 아산시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귀농인의 수가 미진함
- 예산군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57명이 도심으로부터 이주해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설채소와 과수, 논농사에 종사하고 있음

###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부적응

- 농산물 값의 하락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과 토착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냉대 등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역귀농을 고려하는 귀농인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 따라서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역 내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입한 귀농·귀촌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4) 역량있는 지역리더와 농업인 부족

##### ■ 타 지역과 비슷한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차별성이 부족함

- 한편, 지역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지역 문제점 발견 및 해결 능력, 주민·조직 간의 협력, 자발적 학습 능력 등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군 농업인의 역량도 미흡하다고 판단됨

##### ■ 예산군은 관행농이 많고, 친환경 및 선도 농업인이 수적으로 열세함

- 중소농은 농업 혁신에 소극적이며, 대농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지가 약함

##### ■ 농업관련 교육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는 군과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것 외에 전무한 실정이며, 농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미약함

## 2. 정책환경

### 1) 국가·광역의 관련정책

#### ■ 영농인력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부처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임

- 농식품부는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취업농어가 인력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력지원사업,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인력육성사업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지역 벤치마킹 모델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에서는 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18〉 영농인력 관련 국가단위 정책

주관	과정명
농식품부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②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③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④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농촌진흥청	① 인력육성 교육
	농업인 대학
	새해영농실용교육
	청 교육기관 운영
농어촌공사	②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지역 벤치마킹 모델 육성
	① 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교육
	리더양성과정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 ■ 충남도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다야향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1~2014년, 4개년 간 농어촌 희망 프로젝트 ‘3농혁신’ 을 통해 11개 분야 347개의 시책에 총 4조 3,090억 원을 집행할 계획
- 3농혁신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과 이를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농어업인, 그리고 이들이 더욱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
- 3농혁신 계획 중 농업인력 양성과 관련된 시책은 ‘지역리더양성교육’, ‘3농혁신대학 운영’,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 세 가지
- 지역리더양성교육
  - 추진기간 : ‘12. 7~12월말
  - 세부계획 : 40명×15시군(1인당 300천원)
  - 대상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마을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지역지도자 중심
  - 교육내용 : 공동체 함양, 갈등관리, 자원개발 계획수립 등 정책사업 희망마을 대표 위주의 성공추진을 위한 교육
  - 교육주체 :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3농혁신대학 운영

- 사업목표 및 사업비 : 2014년까지 1,440명, 186백만원( '12년 62, '13년 62, '14년 62)
- 주요내용 : 3농혁신 주체자 중심 리더교육
- 기대효과 : 3농혁신의 주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마련
- 3농혁신대학과정 운영 : 480명 / 62백만원
- 기간 : '12. 1~12(매월 넷째주 금·토)/농업기술원
- 대상 : 3농혁신 주체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 쌀 산업 발전반</li> <li>• 3월 : 농업협동조합반</li> <li>• 5월 : 선진 축산인반</li> <li>• 7월 : 청정 수산인반</li> <li>• 9월 : 농어업6차산업화반</li> <li>• 11월 : 마을가꾸기 지도자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 농촌체험관광반</li> <li>• 4월 : 산림자원 육성반</li> <li>• 6월 : 친환경리더반</li> <li>• 8월 : 착한소비자반</li> <li>• 10월 : 경영인혁신리더반</li> <li>• 12월 : 친환경급식반</li> </ul>
---	---

•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

- 사업목표 : 2014년까지 귀농·귀촌 1,600호 유치
- 사업비 : 500백만원(2012년 180, 2013년 160, 2014년 160)
- 주요내용 : 귀농대학,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 설명회, 귀농현장으로지원단 운영
- 기대효과 : 귀농 귀촌 유치확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 2012년 중점 추진계획

▪ 귀농대학 확대운영	- 4개 학과 60명 (일반학과 30명, 가공·과수·농기계실습학과 각 10명)
▪ 민간 귀농지원센터 연계 귀농 귀촌 설명회	- 2개소 400명 - 서울, 대전 등 대도시로 찾아가는 귀농 설명회+현장투어
▪ 충남 귀농 귀촌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귀농 귀촌자 동향파악, 유형분석, 지원방안 모색 등
▪ 귀농 현장으로 지원단 운영	- 도 및 시군 등 16개소 100명 - 3년 이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 귀농현장체험교육 및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 4개소 - 귀농인 농업기술교육 및 귀농 희망도시민 귀농현장교육
▪ 귀농 유입 촉진을 위한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	- 충남 귀농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상담

## 2) 예산군의 관련정책

### ■ 예산군의 전문농업인 육성 정책으로는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지원, 농업인 복지 증진, 그리고 귀농정착지원 등이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은 농업인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순농업인력의 공급 및 농업리더육성에 관한 정책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표 4-19〉 예산군 농정유통과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내역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농업인교육 및 단체 지원	198,022	24,000	4,800	11,200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4,000	24,000	4,800	11,200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48,000	-	-	-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50,000	-	-	-
농림정책 운영	60,022	-	-	-
농업인 복지 증진	1,160,980	112,200	222,262	540,924
자녀 학자금 지원	653,000	-	130,600	322,007
농가 도우미 지원	69,300	-	10,395	29,788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03,890	-	14,490	33,316
신문구독 지원비	110,390	-	33,117	77,273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224,400	112,200	33,660	78,540
귀농정착지원	25,000	-	-	-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25,000	-	-	-

자료: 예산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2.



## [주요 선진국 농업 후계인력정책]

### ① EU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 농촌 정착 보조

-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처음 농촌에 정착하는 시기에 최대 55,000유로(한화 8,500만원)를 보조금 또는 대출 형태로 제공

#### ■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

- 55세 이상 또는 은퇴가 10년이 남지 않은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장을 이양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조기 은퇴하는 농장주들에게는 평균적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매년 18,000유로를 지원하며, 농장 근로자 또한 매년 4,000유로를 지원함

#### ■ 청년농업인을 위한 세금혜택

- EU 회원국들에게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한 사례
  - 훈련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세금(인지세) 혜택 : 100%
  - 영농전환 후 4년간 훈련된 청년 농업인들에게 100% 자본금(자산증가분) 혜택
  - 친분 관계가 없는 55세 이상의 농업인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 공제
  - 55세 이상의 농업인들은 자본 증여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음

### ② 미국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 연방정부의 농업 후계자 육성법

- 영농신용법
  - 농업과 농촌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농업인들에게 신용을 바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자립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 법안은 신용 대출과 함께 농민들이 일정한 영농기술교육을 이행해야 하며, 대출 지원 이전 5년 동안 농가가 성공적인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야 함

- 농업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
  - 영농에 직접 종사하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지원함
  -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음
  - 농장운영 방식 컨설팅
  - 농장 운영에 의해 나타난 농산물 판로 확보
  - 농장운영에 필요한 장비, 토지, 운영비, 신용 등 지원

#### [ 영농신용법 핵심 조항 ]

- ① 후계자와 목장주에게 영농 설비의 대여 혹은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지원행정기구 수립
- ② 후계인력들의 새로운 농지구입에 대한 지가 대여 지원
- ③ 농업후계자의 대여 신청시 신속한 처리 절차 수립
- ④ 농업인의 부채 지원을 필요 수준 지원 수립
- ⑤ 공인된 대출 프로그램 수립
- ⑥ 농업후계자 지원을 위한 연방과 주간 협력체계의 수립
- ⑦ 농가지원 행정기구에 의한 보증된 재정 지원자에게 대부 차용 촉진

#### ■ 창업자나 가족규모 농가를 위한 농업자금 지원

- 농무성 농장지원부서를 통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구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보증해 줌
- 농업을 시작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농장 구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또는 그 자금에 대한 보증 실시

### ③ 일본 농업후계인력 육성 정책

#### ■ 신규영농취농과 영농후계자 육성으로 구분된 신규 인력 확보 사업

- 신규취농자(65세 미만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기술습득, 농지확보, 자금확보대책으로 나누어 지원
  - 선진농가への 현지 연수, 취농준비, 시설 및 농지구입, 경영자금 등의 다각화된 지원
  - 대부분이 무이자 자금 지원으로 지원종류와 수준이 높음

-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은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한 상태로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 농업후계자 육성 자금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 사업대상자는 농업사로 인정하여 농촌지역의 리더역할 부여

####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통한 전문농업인 인증

- 도도부현, 시정촌의 계획에 기초하여 농업인 스스로 세운 농업경영개선계획이 평가기구에 인정을 받게 되면, 농업생산에서 수위탁, 가공, 판매 사업을 지원받고, 자금 한계와 규제가 완화됨
  - 이중 경영이 우수하고, 지도역할이 가능한 농업인은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청년 육성원활화를 위해 지도농업사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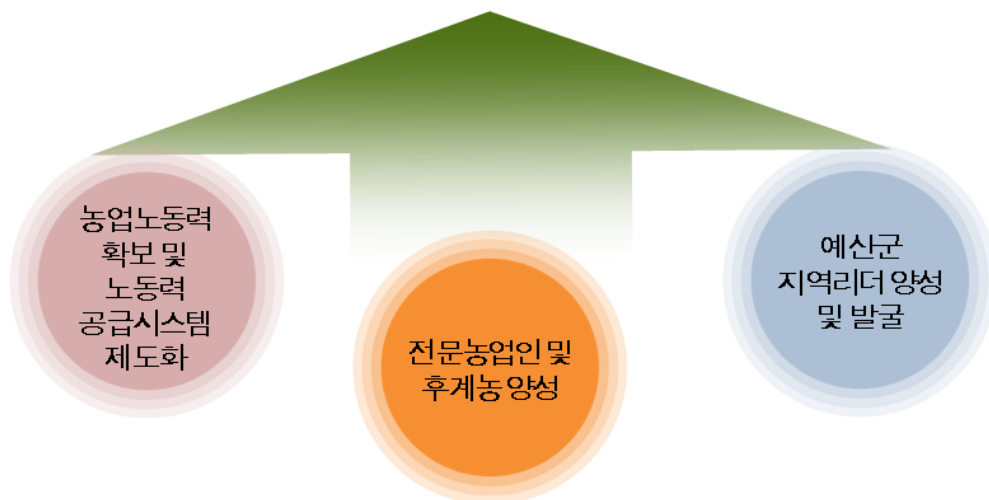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 기본전제

-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농업·농촌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 예산군 농업·농촌인에 대한 현황 진단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단순히 농업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산군 내 지역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모색
- 지역 내 농업·농촌인은 단순노무인력, 전문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리더 등 네 유형으로 분화
- 결과적으로 예산군 농업인 환경을 둘러싼 대외적·대내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네 가지 농업인 유형별로 세부사업 추진전략을 모색

## 2) 개발방향

###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그림 4-13〉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개발방향

## 4. 주요추진사업

### 1) 농업노동력 확보 및 노동력 공급시스템 공식화

#### ■ 단순농업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 지역별·시기별 노동수요량 및 공급량을 조사하고 전망하는 사업 실시
- 노동력 공급 가능 인력을 D/B화하여 수급 관리 필요
- 예산읍 인근 및 예산군 내 비농업 유휴인력 활용 방안 모색
- 농촌 봉사인력 풀(인근 학교, 공공기관 등)을 구성하여 연중 스케줄 조정 및 계획
- 공공근로 및 제조업 대비 낮은 농업 노동력의 임금 보조 정책

### ■ 외국인 이주자 노동력 확보

- 증가하고 있는 예산군 내 외국인 이주자 추이를 반영해볼 때, 향후 이들을 농업 인력으로 활용 가능함
- 결혼이주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마을 사람들과 농작업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이주노동자: 보수에 따라 이탈율이 심한 이주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 위해 숙소를 마련해주고 최저 소득보존을 지원해줌

### ■ 마을단위의 영농인력시장의 확보 및 품앗이 수첩 도입

- 노동력 공급시장의 공식화는 ‘지역 노동력 공급 인정제도’ 시행을 통해 현실화함
- 지역 내에서 노동력을 공급한 지역민들에게(인력 도우미 포함) 노동 공급 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품앗이 수첩을 제공하여 공급일자, 공급농가, 공급농가의 확인 필을 기록
- 노동 임금과 별도로 읍·면사무소에서 품앗이 수첩을 확인한 후, 보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2) 전문농업인 및 후계농 양성

### ■ 전문교육농장 및 영농강사 발굴

- 1차적으로 자발적 운영을 원하는 교육농장과 강사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가능 현장 및 인적자원을 확보하도록 함
- 교육농장과 강사들에 대해서는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학교의 운영

- 농촌과 농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군이 지향하는 농업가치인 친환경 교육을 시행

-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 월별 농사 프로그램 개설
  - 농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단기(일주일)·중기(1~3개월)·장기(3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
  - 영농일지 작성 및 교사와 반성적 평가 피드백
  - 교육생의 실질적인 지역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창구 마련
- 귀농인 친환경 교육
  - 농업경험이 전무한 귀농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친환경 교육을 제공하고, 향후 이들이 친환경 농업의 리더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저비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 및 비료의 자가제조 교육
  - 귀농·귀촌인들의 체험 수기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영농일지 제작 및 교육
  -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직판과 생협 판로 등을 확보하는 방안
  - 귀농인 친환경 교육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한 일회적, 소모적 교육 방지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귀농인에게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보조금 지원

#### ■ 우수 영농인력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배포

- 예산군 내 읍면별, 작목별 우수 영농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영상물과 스마트폰 어플, 소책자로 제작
  - 영상물 콘텐츠는 성공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영농의 성공과정을 면밀히 담을 수 있도록 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외지인들에게는 예산군 농업을 홍보하고, 지역농업인들에게는 다양하고 적합한 영상 콘텐츠 및 정보들을 제공
- 홍보물은 군 관련 행사 개최시, 영농교육 진행시, 귀농·귀촌인 방문 및 문의시 적극적으로 배포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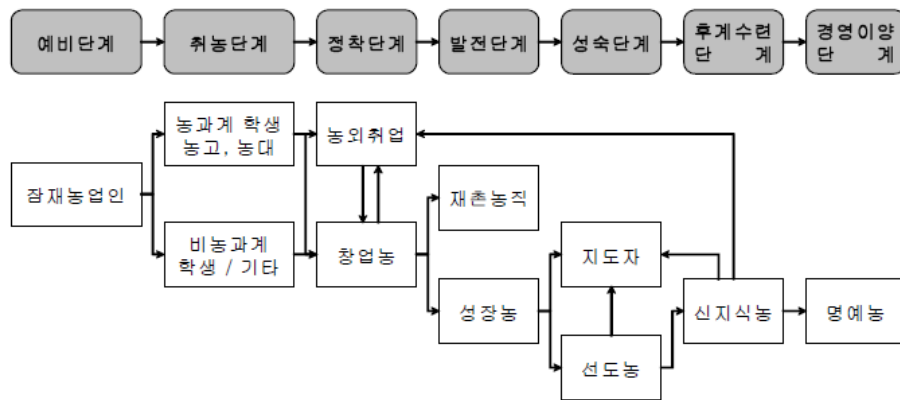
### 3) 예산군 지역리더 양성 및 발굴

#### ■ 지역리더 발굴사업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 지역리더 발굴사업
  - 지역리더 풀 구성: 기존 예산군 지역리더 교육자 및 현 교육신청자의 명단 확보 및 DB화

- 지역리더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하여 매년 우수 지역리더 선발 및 시상
- 주기적인 mapping을 통해 지역리더 부재지역 점검
- 고급수준의 지역리더 양성교육
  - 어메니티자원의 발굴과 활용, 도농교류/농촌관광의 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 business)의 활성화 등을 주도해 나갈 지역리더를 양성
  - 충남 지역리더 교육정책과 연계하되, 군단위에서 사후관리 교육 실시
  - 예산군 농업인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군 농업발전의 지속성을 위하여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단순인력, 귀농·귀촌인력, 전문농업인 및 지역리더를 함께 고려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함
  - 지역리더 양성 교육은 농업교육 통합 프로그램의 최상위과정으로 개발할 수 있음. 예컨대 단순인력반, 귀농·귀촌인반, 전문농업인반 교육생이 교육 이수 후 상위 코스로 지역리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력의 발달 단계]



자료: 강대구의, 2005, p.125

### ■ 지역리더 학습회 조직 및 교류지원

- 지역리더 학습회는 지역주민과 지도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조직
- 정기적인 학습회 개최를 군에서 지원
- 매년 우수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학습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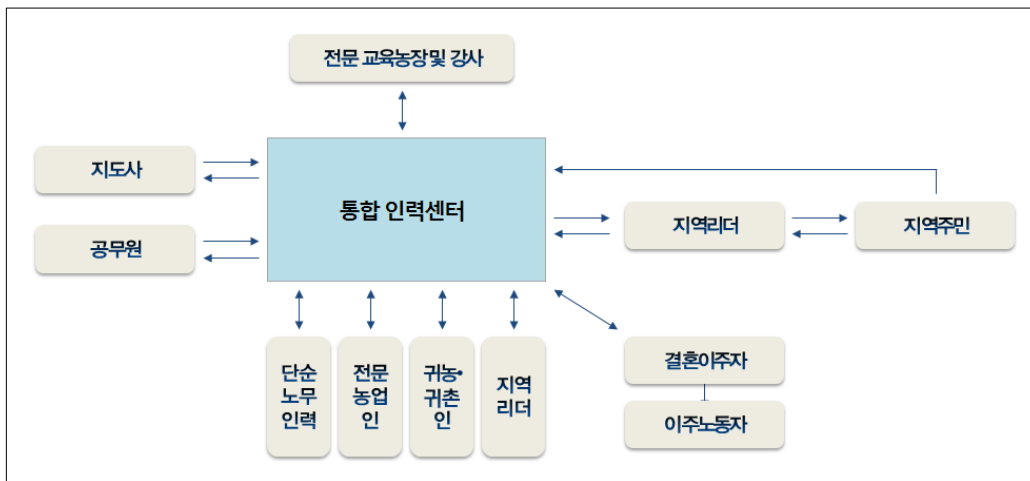
- 지역리더 간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공유
- 마을 추진사업과 정책연계사업 등을 공유

### ■ 지역리더 개념 정리

- 집단목표의 달성과 집단의 유지를 위한 집단 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집단구성원의 행동을 집단목표 달성에 지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최재율, 김희승, 1994)
- 민주적 환경에서 지역 문제의 해결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개인이나 소수집단(Hustedde, 1991)
-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혹은 집단(지역재단, 2004)

### ■ 예산군 통합인력센터 설립

- 교육 지도사 및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리더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 운영
- 자체 사업보다는 원활한 행정업무, 사업 처리, 지원, 소통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과 관련된 군 내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함
- 단순노무인력, 전문농업인력, 귀농·귀촌인력, 지역리더 등 인력 유형별로 농업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담당업무를 분화하고 전문화함



〈그림 4-14〉 예산군 통합인력센터의 기능



## [슬로시티 대흥 귀농체험 프로그램]

### ■ 월별 농사 프로그램



월	농사일		생활체험
	파종	수확	
3월	감자		자연밥상 자연미술 술체험 논체험 마을체험 놀이
4월	옥수수		
5월	콩, 참깨, 땅콩	매실	
6월		마늘, 감자	
7월	고구마	옥수수	
8월	김장거리	참깨	
9월			
10월		감, 호두, 배	
11월	마늘 심기, 들깨 수확, 김장배추	고구마, 사과	
12월	김장		

### ■ 단기·중기·장기 코스

#### 단기 코스

3일~7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농사와 시골살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파종을 해보고 거두어 보고  
마을회관에서 동네분들과 어울려 보고  
장터에도 나가 구경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단기간 동안 현실과 똑같은 농사체험을 합니다.



#### 중기 코스



1개월 ~ 3개월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농사와 시골살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파종을 해서 거두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푸성귀, 옥수수, 감자 등 시기에 맞는 작물을 파종해서 수확까지 해볼 수 있는 농사 체험입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농사의 참맛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 코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농사의 품고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파종한 것을 수확해서 나의 먹거리로 만들가는 과정에서 얻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동네 일에도 참여하시고 마을에서 동화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순창군 지역리더 아카데미]

### ■ 교육목표

- 농촌지역 발전을 주도할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필요
- 체계적인 리더십 육성과정 개설운영으로 지도역량 강화

### ■ 교육방식

- 집합교육(강의와 토론 병행), 현장교육(사례연구)

### ■ 교육대상

-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임원 및 회원, 시민단체 임원 및 단체, 지역사회 지도자 등 40명

### ■ 교육운영

- 교육기간 : 3월~11월(10개월)
- 교육횟수 : 30회(집합교육 20회, 현장교육 10회)
- 사후 마을개발 시범사업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 커리큘럼

- 자기혁신 및 리더십 개발, 농촌발전의 이해, 지역농업 조직화, 관계형성 및 파트너십, 우리지역의 가치 발전과 미래비전 구상

### ■ 시사점

- 교육기간이 3개월~10개월로 장기간이며 합숙교육을 병행하고 있음
- 지역의 문제를 수강생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기주도학습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공급자 위주의 지식전달 방법을 탈피, 지역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도입
- 수강생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커리큘럼이 아닌 자기혁신, 지역농업 조직화, 지역자원활용 등 다양한 테마별 커리큘럼을 구성
- 이론적 강의보다는 현장, 사례중심의 교육 실시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

## 5. 세부추진계획

〈표 4-20〉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순농업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				
외국인 이주자 노동력 확보			→	→	→
마을단위의 영농인력시장의 확보 및 품앗이 수첩 도입			→	→	→
전문교육농장 및 영농강사 발굴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학교의 운영		→	→	→	→
우수 영농인력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배포	→				
지역리더 발굴사업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				
지역리더 학습회 조직 및 교류지원		→	→	→	→
예산군 통합인력센터 설립				→	→

## 제7절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 1. 현황 및 문제

#### 1) 현황

##### ■ 행정조직

- 예산군청 : 농정유통과(농정, 농산, 유통지원, 과수특작, 특사경)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기획, 인력, 경영정보), 친환경기술(작물환경, 경제작물, 경영정보), 자원개발(기술개발, 생활자원, 과수기술)

##### ■ 심의·의결조직 : 예산군 농림수산심의회

- 구성 : 예산군수(위원장), 부군수(부위원장),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대표, 생산자 단체장, 지역농업 품목별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
- 역할 :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 및 농촌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역할 담당
- 회의는 연 1회 개최

##### ■ 유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산출장소, 충청남도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국화시험장,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 ■ 협동조합

- 농협 :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 고덕농협, 광시농협, 덕산농협, 삼교농협, 신암농협, 신양농협, 예산농협, 오가농협,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
- 기타 :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예산군산림조합, 예산연초생산조합

##### ■ 농업인단체협의회

-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회, 농심회, 더생농,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연맹, 새농민회, 작목별 연구회 협의회, 쌀전업농, 한우협회, 비육우협회, 양돈협회, 예산인삼연구회

## ■ 친환경 농산물 생산 · 유통조직

-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유기작목반, 구름골능금작목반, 대출친환경수박작목반, 덕봉영농조합, 두레작목반, 두배드림연구회, 마전수박작목반, 새실작목반, 신암사과작목반, 애플마켓작목반, 예당무농약쌀작목반, 예당사과작목반, 예산고구마연구회, 예산군친환경사과연구회, 예산자연농회유기작목반, 예산자연농회은사리지회유기작목반, 예산친환경수박영농조합, 예산친환경영농조합, 예산친환경인삼영농조합, 예산황토작목반, 옥골사과영농조합, 자연농회무농약작목반, 증실골사과작목반, 청솔사과작목반, 친환경배연구회, 친환경생골사과작목반, 태극친환경영농조합, 한마을사과연구회, 한울사과작목반, 흙실천수답영농조합

## 2) 문제점

### ■ 다양한 농정 관련조직의 거버넌스체계 미흡

-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조직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행정기관이 지역농정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
-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 야기
- 각 조직들 간의 연계 · 협력체계 부재

### ■ 농업인의 농정 참여 시스템 미흡

- 농정심의회가 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능 또는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형식적인 통과절차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제로 농업인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며, 참여기회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선진국 농정거버넌스]

### ①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농업회의소

- 공법에 의해 설립된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으로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직업교육 등 대농민 서비스 수행
-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독일 농업을 지키는 첨병으로 경작허가제 등 쿼터제 등을 통한 생산량조절, 농자금, 농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적 자체농업을 수행하고 있음
- 유럽 각국의 농업회의소 기능
  - 독일 : 일부 주에 설치되어 대의기구의 성격을 갖지 못함, 고유업무 외에 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집행업무 대행
  - 오스트리아 : 전국적 조직을 갖고 대의기구 성격을 가짐, 고유업무 외에 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집행업무 대행
  - 프랑스 : 단일법에 의해 전국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대의기구 성격을 가짐, 농정자문기구의 성격으로 농정파트너십 형태로 참여

### ② 프랑스 도농업지도위원회(CDOA)

- 프랑스 지방농정은 도 단위의 농정기관인 도농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는 별개로 지방농정의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 도농업지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도농업지도위원회는 5년마다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금의 배분과 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여하고 있음
  - 도 지역농업발전계획은 도농업청 주관하에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통해 작성되고, 도농업지도위원회가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제출하면 도농업청과 중앙정부가 이 계획안을 토대로 재정확보 방안 검토

- 또한, 도농업지도위원회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농가들이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역할 수행

■ 도농업지도위원회는 도지사 등 도를 대표하는 자가 의장을 맡고, 도내 농업·농촌 관련 각 직능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자 등 농업계 전체를 망라하는 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법에서 설정한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가짐

③ EU의 LEADER 프로그램

■ 농촌지역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혁신적인 소규모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업·농촌 관련 거버넌스 구축기반으로 활용

■ LEADER 프로그램의 예산지원 분야

- 실천1(Action 1) : LAG(Local Action Group)\*에 의한 통합적, 시험적인 농촌발전전략의 개발 및 이행
- 실천2(Action 2) : 국내 또는 외부 LAG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사업
- 실천3(Action 3) : 네트워킹

※ 지역활동그룹(LAG) : 공공과 민간(또는 비영리)섹터 멤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말하며, 프로젝트개발, 보조금신청 준비, 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LEADER 프로그램은 농촌공동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양성할 수 있음

## 2. 정책환경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정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농어업회의소 설치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양한 국내·외 농어업단체를 아우르고 대표하는 법적 대의기구로서 농어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회, 국민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농어업에 대한 비전제시, 법적 이익활동조직, 정부의 농어업정책 참여와 자치농정조직, 지역농어업의 주체, 농어업 관련 조직 및 농어민단체와의 역할분담 등의 기능을 가짐
- 현재 1차 시·군 회의소로 평창군, 진안군, 나주시가 있고, 2차 시·군 회의소로 거창군, 고창군, 봉화군 등 6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음

### ■ 시·군 차원에서 자체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사례 증가

- 농정혁신조직으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및 농촌활력과, 최근 홍성군 농정기획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형태로는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임실군의 농업농촌활력센터를 사례로 들 수 있음

〈표 4-21〉 시·군의 거버넌스 관련조직 운영 사례

유형	형태	특징
농정혁신조직	농촌발전기획단(장수, 2003) 농정기획단(홍성, 2011) 농업농촌발전기획단(완주, 2008) 농촌활력과(완주, 2010)	조직과 정책의 혁신을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 태스크포스 조직 (시작단계)
중간지원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완주) 농업농촌활력센터(임실)	지역내 다양한 사업체 활성화와 컨설팅, 혁신정책 시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성숙단계)
상설 거버넌스 기구	농어업회의소(평창, 진안, 나주, 거창, 고창, 봉화 2012)	농어민(조직)의 정책참여와 협치 위한 거버넌스 기구 (완결단계)
비상설 거버넌스 기구	농업발전위원회(옥천 2006, 천안 2011, 횡성 2011) 농업발전대책위원회(순창 2003)	농어민(조직)의 정책참여와 협치 위한 비상설적 거버넌스 기구 (시작단계)



- 상설 거버넌스기구로는 평창군, 진안군, 나주시, 거창군, 고창군, 봉화군 등의 농업회의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중에 있음
- 비상설 거버넌스기구로는 순창군, 옥천군, 천안군, 횡성군 등에서 농업발전위원회 또는 농업발전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3. 기본전제와 개발방향

#### 1) 기본전제

##### ■ 기존 농정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

- 기존의 농정거버넌스 관련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제로 예산군의 농정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개선
- 농림수산심의회 운용 개선 혹은 새로운 지역순환 농정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의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주체가 되어 예산군과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가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
- 농업인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예산군 농정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행정-농업인의 중간조직으로서의 민간조직 활성화함
- 지역순환 농정기획단 구성·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추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업농촌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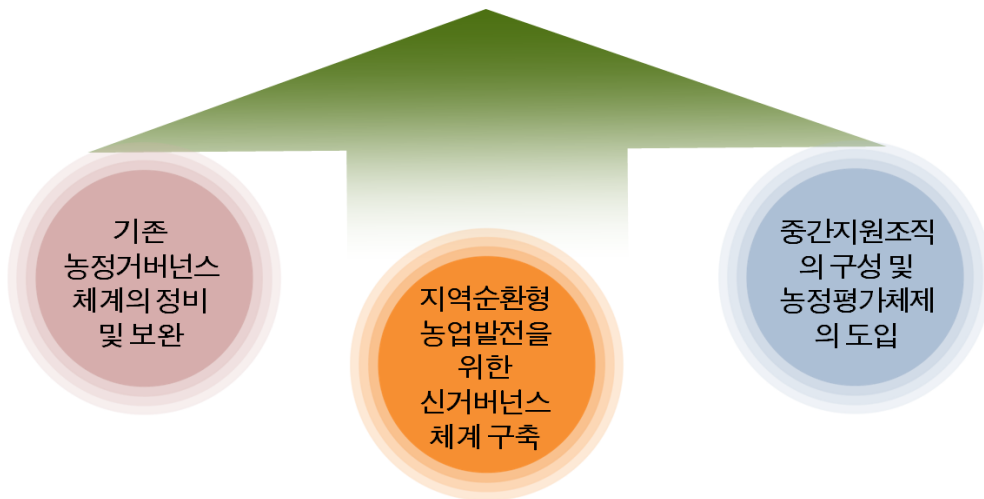
##### ■ 심의·의결, 기획·정책수립, 현장적용 및 지원, 사업관리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적용·발전

- 심의·의결기구는 우선 농림수산심의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발전시켜 농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기획·정책수립 기능강화를 위해 농정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향후 농정정책협의회와 농정기획단의 기능을 결합하여 농업회의소로 통합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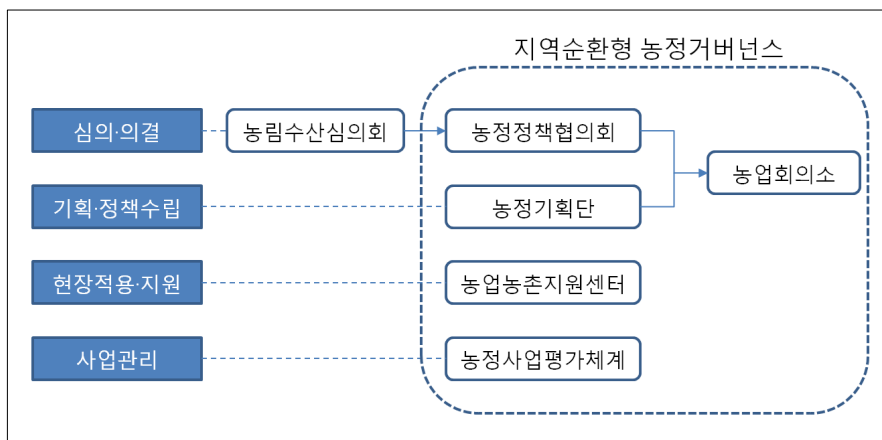
- 현장적용 및 지원을 위해서 농업농촌지원센터를, 사업관리를 위해서 농정평가체계를 도입운영

## 2) 개발방향

###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그림 4-15〉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개발방향



〈그림 4-16〉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체계

## 4. 주요추진사업

### 1) 기존 농정거버넌스체계의 정비 및 보완

#### (1) 농림수산심의회 운용 개선

##### ■ 배경 및 목적

- 합법적 농정 거버넌스로 농림수산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운용되는 제도 또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즉,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타당성과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군의 농정부서에서 제안한 안을 승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 농정심의회에 운용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① 농림수산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수정

- 법령에 명시된 농정심의회 업무를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이에 대한 실행담보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 주된 심의대상을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하고 이 계획에 대한 수립과 실질적인 심의,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담보력을 확보(농림수산 관련사업 및 자체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화시킴

#### ※ 예 : 프랑스 도농업지도위원회(CDOA)

#### ② 농림수산심의회 상설 운영과 실질적 심의에 관한 지침 구체화

-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월 1회 분과위 회의, 분기별 전체 회의)을 실시하고 상근직원을 채용하여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절차를 제도화 함
- 관 주도의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거나 실무간사를 농업 종사자 또는 농민단체에서 선발하는 방안 검토

### ③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대상 확대

-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농정의 지방사무 중 경상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함
-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예산군 자체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여 농정심의회가 예산농정의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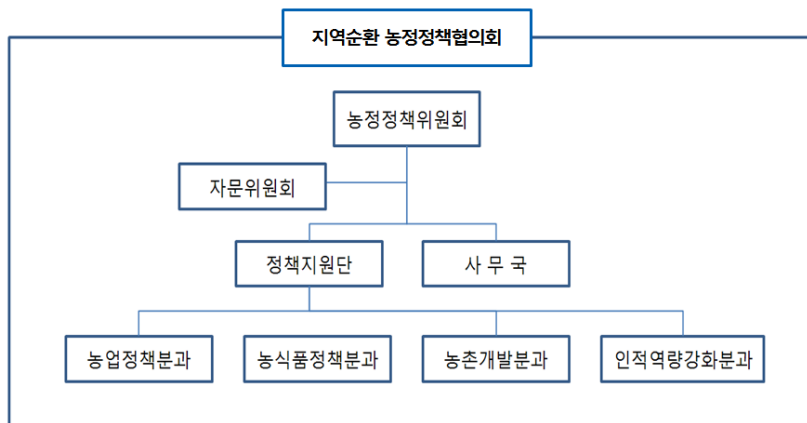
## (2) 지역순환 농정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배경 및 목적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수산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대체하고, 농정 관련 다양한 주체가 직·간접적으로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농정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농정정책협의회는 농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및 네트워크 구축,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결, 새로운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함

### ■ 사업내용

- 농정정책협의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농정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정책·사업·재정부문의 대한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회, 분과별로 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정책지원단, 그리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등 4개 조직으로 구성



〈그림 4-17〉 예산군 친환경 농정정책협의회 구성(안)

## ■ 추진방법

### ① 농정정책위원회

-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자문하는 협의체의 성격으로 기존의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기능을 흡수·대체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함
- 민·관 조직, 이익그룹 등의 동등한 참여를 원칙으로 전·현직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 단체장 및 전문가, 시민단체 단체장, 의회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 기능
  -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해결방안을 마련
  - 농업·농촌 관련정책 수립시 참여하여 자문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중간 네트워크 역할 수행
  -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자문·조정 역할 담당
  - 정책지원단의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시책을 개발

### ② 자문위원회

- 농정정책협의회의 자문기구로서 정책자문, 사업자문, 재정자문 등의 역할 수행
  - 정책자문 :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다양한 분야의 실무전문가 참여
  - 사업자문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사업방향 제시, 사업 타당성 검토
  - 재정자문 :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 및 재정동원가능성 자문, 인사 및 재정운영에 대한 자문과 감사기능 수행
- 지자체 대표, 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③ 정책지원단

- 농정정책협의회의 연구지원기구로서 농업·농촌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각종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여 농업·농촌 정책협의회의 의사결정시 관련 자료를 제공함
- 소분과를 나누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분과별로 관련조직 및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과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과 행정, 관련 조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 ④ 사무국

- 농정정책위원회를 보좌하고 정책지원단의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설기구로서 정책협의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및 기업,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회비를 통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책협의회의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각종 연구 및 행사, 교육지원, 관련정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홍보, 발간 등의 역할 담당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 옥천군은 WTO,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2006년 11월에 충청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발전위원회를 발족

#### ■ 기능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

-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
- 친환경 농업육성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축산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함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옥천군의회의원,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 및 옥천군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 2)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신거버넌스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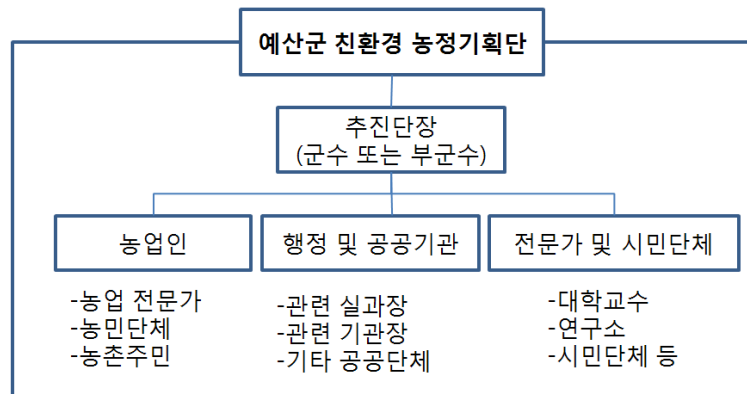
### (1) 지역순환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 ■ 배경 및 목적

- 예산군 농정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선도할 새로운 거버넌스체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조직이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한 ‘(가칭)예산군 친환경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 ■ 사업내용 : 예산군 친환경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예산군수를 단장으로 외부전문가, 민간 농업전문가 및 농어촌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함
-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 역할
  - ① 예산군 친환경 농정을 혁신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
  - ②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과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③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유치
  - ④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관련분야의 조사 연구 수행
  - ⑤ 지방농정 거버넌스 조직인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기초조직 역할 수행



〈그림 4-18〉 예산군 친환경 농정기획단 구성(안)

##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 ■ 조직구성

- 시기: 2011년 10월 19일
- 단장: 부군수
- 전문위원: 외부전문가(박사급)
- 민간 농업전문가 및 농업인들과 군청의 농업 관련 부서장 등 15명
- 근거: 조례

### ■ 역할

-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과 농업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유치
- 조사 연구 수행
- 농촌 문화·복지·교육 방안 모색

### ■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4대 추진 전략	12개 핵심과제	2014년 목표치
고품질 생산, 유통·마케팅 혁신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	매년 167동 지원, 14년까지 500동 지원
	친환경 축산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인증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농가 한우 90, 양돈 90농가로 확대
	홍성군 실정에 맞는 유통 체계 구축	TMR 조사료 가공공장 가동으로 조사료 자급율 40% → 70%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14년 학교급식지원 센터 설치 및 유통센터 1개소 설치. DB 구축 및 유통전문인력 50명 양성
농산업 발굴 및 육성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내포천애 150건 상표등록, 홍성한우 판매처 10개소 확보
	농어업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년 700t 쌀 소비 → 300t 추가 소비
내생적 발전 유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66개 마을계획수립 (333개 중 20%)
	프로 농업인 집중육성	프로농업인 1130명, 핵심인력 1800명 양성
	귀농귀촌 지원으로 지역활력유도	680명 유치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통협력단체, 희망마을지원센터 설치및 운영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친환경 전환 및 지역자원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자원순환형 시범사례 발굴 및 홍보, 친환경 농업특구지정여부 결정(12년)
	농어촌 자원 보전 및 활용	관내 자원DB구축, 농어업유산제도 1건 지정

자료: 홍성신문 (2012.5.17)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68>



## (2)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 ■ 배경 및 목적

- 예산군은 농업인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농정의 집행 및 지역단위 농정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농어업인 조직이 지방농정 의사결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가 농업회의소라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6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시·군 단위로 확대할 예정임
- 예산군 농정정책협의회 및 농정기획단의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회의소 설립

### ■ 사업내용 :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 구성 :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조직을 구성하되, 총회, 이사회, 회장을 의결 및 집행조직으로 하고 감독기관으로 별도의 감사위원회 설치
- 역할 : 대농민 서비스 업무로서 ①농업경영, 생산기술 및 유통문제의 상담·지도, ②농업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③시장정보 제공 및 직불금 신청서 작성지원, 내외적 업무로서 농업인의 대의기구 자격으로 지방농정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심의

### ■ 실무조직 설치방안

- ① 제1안 :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회의소 실무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
  - 장점 : 대농민 서비스 업무의 중복성을 줄일 수 있고, 예산군내의 ‘농정조직’ 과 ‘지도조직’ 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단점 :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문제점 발생
- ② 제2안 : 농협조직을 실무조직으로 개편
  - 장점 :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기구설립의 물적, 인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
  - 단점 : 농민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설립 이후 농업회의소의 독립성 및 대의기구적 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③ 제3안 : 농업회의소 독자의 실무조직 구성

- 장점 : 조직개편의 어려움이 없고 실질적인 대농민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으로 실무조직 구성 가능
- 단점 : 대농민 서비스 업무의 중복가능성이 있고, 농업회의소 자력으로 대농민 서비스 업무를 감당할 경우 재정조달의 어려움 발생 가능

■ 세부추진방안

구 분	제1단계 도입기	제2단계 정착기
농업계 대표의 구성	o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기존 농업인단체 및 작목단체를 중심으로 개별농업인 포함)	o 농업회의소에 새로운 단체 추가 및 개별 농업경영인 등 영입
농정협의 방식	o 농업회의소와 행정의 협의방식 (농협, 지역전문가 참여)	o 도입기와 동일
의사결정 방식	o 농정협의(의사결정권한 있음)	o 도입기와 동일
예산사업 관련활동	o 농업농촌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o 주요 현안사업 o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업 등	o 도입기 항목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o 농업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적은 사업에서 점차 큰 사업으로 확대 o 전문성이 낮은 사업에서 점차 큰 사업으로 확대
활동의 범위	o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참여 o 작목별 생산기술 개발 요청 o 농업기반시설 계획 등	o 도입기 항목 + 지역농업발전계획 시행과정에 참여 o 작목별 생산기술 개발 o 작목별 생산 및 유통 조절
자립화 방안	o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정부위탁사업 및 자체 수익사업 확보·시행 o 정부지원 : 전문위원, 연합조직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o 정부지원 비중의 단계적 축소, 재정자립도 향상 o 참여단체의 분담금 o 정부위탁사업을 통한 수익금 o 자체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금 o 작목별 경제사업을 통한 수익금
사업추진	o 예산군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 시범사업추진단 설치를 통한 사업추진 - 예산군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후 해체 - 예산군수, 농업행정담당자, 학계전문가, 농협대표, 주요 농업인단체, 읍·면 농업인 대표, 직능단체, 품목단체 등으로 구성	

자료 : 최세현, 2010, 지역 단위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방안, 일부수정

### 3)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농정평가체제의 도입

#### (1)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 배경 및 목적

- 농정정책 추진에 있어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대농업인 업무를 중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 즉, 예산군 농정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제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 사업내용 : 예산군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구성 : 기획, 운영, 교육지원, 전문가지원, 연대지원, 정책 및 연구지원, 사무국 등의 조직구성
- 역할
  - ① 농업농촌 관련 정책 및 사업개발, 기획
  - ② 농업농촌 관련 사업 안내 및 상담, 정보제공 및 공유
  - ③ 농업농촌 관련 기초조사·분석 등 연구 활동
  - ④ 농업농촌 관련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추진 지원
  - ⑤ 주민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 ⑥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파견, 컨설팅 및 자문
  - ⑦ 연구회, 학습 동아리 등 운영, 포럼, 워크숍, 세미나 개최
  - ⑧ 농업농촌 관련 단체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조성

##### ■ 추진방법(운영방법)

- 예산군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법인, 협의회, 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예산군에서 운영비 및 활동비, 사업비 지원
- 중장기적으로 기부 등에 의한 기금마련으로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 ■ 구성

중간지원조직	조직과제	근무지정
지역경제순환센터 (총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지역마케팅</li> <li>•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협력 지원</li> <li>• 행정조직과의 소통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장/ 전임계약직</li> <li>완주 농정기획단 겸임</li> </ul>
마을회사육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총괄</li> <li>• 공동체회사창업보육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 전임계약직</li> </ul>
로컬푸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총괄</li> <li>•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li> <li>• 완주 로컬푸드영농법인 활성화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 전임계약직</li> <li>- 무기계약직1</li> <li>- 청원경찰1</li> </ul>
도농순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커뮤니티 마을 연계사업</li> <li>• 귀농귀촌활성화사업</li> <li>• 농촌노인두레농장 활성화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 전임계약직</li> <li>- 기간제 근로1</li> </ul>
(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주형 CB모델 발굴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장 외3</li> <li>- 재단법인 소속 연구원</li> </ul>
공감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센터 내 문화공간 관리</li> <li>• 마을지원형 문화공동체사업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근로1</li> </ul>

## [임실군 농업농촌활력센터]

### ■ 목적

- 단계적으로 자체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의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중간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역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개선 목표

### ■ 추진경과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벤치마킹
- 2012.2.22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2~2014 설립추진기획단 구성

### ■ 주요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로컬푸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 지역 향토자원 조사연구를 통한 사업모델 발굴
-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주체를 발굴, 체계적인 인재 양성
- 행복임실마을만들기 등 기존 지역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사업 지원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로컬푸드 사업 지원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 ■ 조직구성(안)

- 사무국(센터 실무 총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팀, 로컬푸드지원팀, 귀농·귀촌활성화지원팀, 운영위원회(의결기관)

## (2) 예산농정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의 공표

###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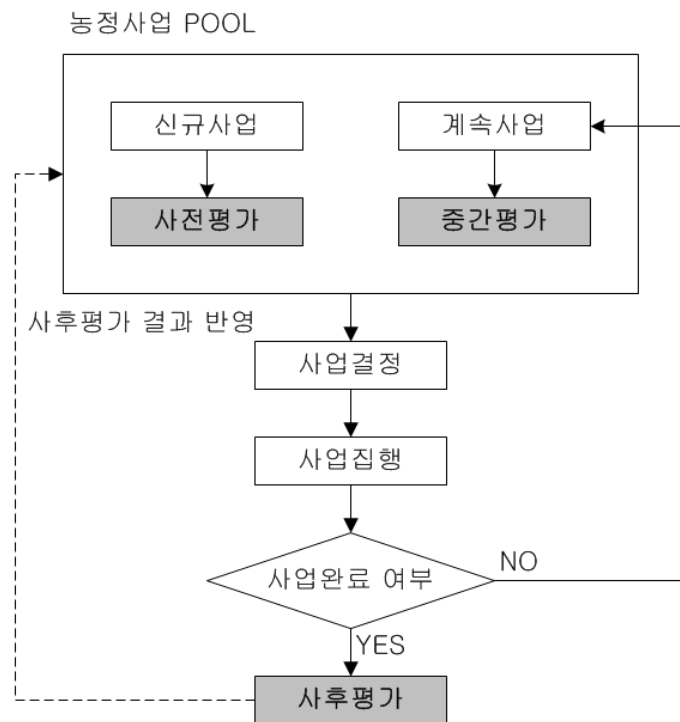
- 예산군의 농정사업은 대부분 사업집행 과정과 사후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평가체계의 도입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집행,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류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 사업내용 : 농정사업 평가체계의 도입

-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환류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 도모
- 사업평가는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주요 사업이나 시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나 주민공청회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
  - ① 사전평가 :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의 내용이 주민의 수요나 사회적 여건에 타당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부합한지, 필요성이 높으며 투자비용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중복투자부분이 없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 우선순위를 검토. 또한, 유사사업이나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부서간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협조체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② 중간평가 : 다년간에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상황(공정달성 여부)이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 사업착수시 비용대비 효과분석요인의 변화, 투자비용절감이나 대체사업 추진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업중지를 검토
  - ③ 사후평가 : 사업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관하여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효과, 사업을 둘러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합리성, 주민 만족도, 시설의 활용 및 관리상황 등을 평가.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업효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유사사업 계획입안이나 사업결정, 사업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 세부추진방안

구 분	대 상	평 가 내 용	조 치
사전평가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수요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타당성</li> <li>-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대한 부합성</li> <li>- 투자대비 효과성 및 사업 필요성</li> <li>- 중복투자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여부, 우선순위 검토</li> <li>- 업무분담 및 협조 체계 구축</li> </ul>
중간평가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상황(공정달성 여부)</li> <li>-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성</li> <li>- 사업착수시 비용대비 효과분석요인의 변화</li> <li>- 투자비용절감이나 대체사업 추진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정 또는 사업 중지 검토</li> </ul>
사후평가	완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효과 및 당초 목적 달성여부</li> <li>-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합리성</li> <li>- 주민 만족도</li> <li>- 시설의 활용 및 관리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조치</li> <li>- 사업효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마련</li> <li>- 유사사업에 반영</li> </ul>



〈그림 4-19〉 농정사업 평가체계(안)

## 5. 세부추진계획

〈표 4-22〉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세부추진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농림수산심의회 운용 개선	→				
지역순환 농정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	→	→
지역순환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	→	→	→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	→	→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	→	→
예산농정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의 공표	→	→	→	→	→





# 제5장 투자 및 운영관리

---

1. 투자사업비
2. 재원확보 및 추진방안
3. 성과관리방안



## 제1절 투자사업비

### 1. 총사업비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위한 총사업비는 46,890백만원임

■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는 8,100백만원(17.3%),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는 11,650백만원(24.8%),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는 6,500백만원(13.9%),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은 9,000백만원(19.2%),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은 6,600백만원(14.1%),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은 4,260백만원(9.1%),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은 780백만원(1.7%)임

〈표 5-1〉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총계	46,890	11,160	10,680	19,150	5,900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8,100	1,600	1,850	3,600	1,050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11,650	3,200	2,650	4,050	1,750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6,500	1,300	1,700	2,450	1,05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9,000	2,100	2,150	3,700	1,050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6,600	2,600	1,350	1,850	800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4,260	300	950	2,810	200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780	60	30	690	0

- 부문별로 보면,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와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그리고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함

■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160백만원(23.8%), 도비가 10,680백만원(22.8%), 군비가 19,150백만원(40.8%), 민자가 5,900백만원(12.6%)임

-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군의 투자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비와 민자의 효과적 유치가 필요함

## 2.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3년에 7,360백만원(15.7%), 2014년에 11,090백만원(23.7%), 2015년에 10,060백만원(21.5%), 2016년에 9,390백만원(20.0%), 2017년에 8,940백만원(19.1%)이 투자됨

〈표 5-2〉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46,840	7,360	11,090	10,060	9,390	8,940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8,100	900	900	500	2,900	2,900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11,650	1,450	1,600	3,000	2,900	2,700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6,500	1,250	1,550	1,500	1,000	1,20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9,000	850	3,250	3,100	900	900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6,550	2,150	2,650	1,250	450	50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4,260	700	1,000	520	1,020	1,020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780	60	140	190	220	170

### 3. 세부사업비

〈표 5-3〉 세부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8,100	1,600	1,850	3,600	1,050
친환경·고품질쌀 작목반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	1,000	200	200	400	200
친환경·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700	200	200	300	0
친환경·고품질쌀 체험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	300	100	100	100	0
예산군 친환경 RPC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건립	200	0	0	200	0
예산쌀의 통합브랜드화 및 상품수준의 기준 마련	400	0	200	200	0
예산쌀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의 확립 및 소비 촉진 운동의 전개	500	0	150	200	150
쌀산업의 전방관련산업의 육성 및 판로구조의 다양화	1,500	300	250	750	200
소규모 정미/도정업체의 육성 및 쌀가투산업의 육성	2,000	500	500	700	300
예산쌀(가루)과 사과산업(가루/액체)의 융복합화 산업의 육성	1,500	300	250	750	200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11,650	3,200	2,650	4,050	1,750
아름다운 과원조성 및 친환경 작목반의 활성화	2,000	300	200	500	1000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의 도입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재배기술의 보급	900	200	300	300	100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예산사과의 통합브랜드화 및 예산사과의 품질기준 정립	750	0	300	400	50
저급사과 및 가공부산물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900	300	200	400	0
예산사과 전방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한 가공용 사과의 확보	1,500	750	200	250	300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기술보급 및 사과산업 인큐베이터 설립·운영	1,300	600	350	350	0
예산사과와인의 확산 및 식초산업의 활성화	1,500	750	200	250	300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6,500	1,300	1,700	2,450	1,050
자비용/저투입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연구 및 매뉴얼 보급	300	0	150	150	0
예산군 전략육성 품목 중심의 친환경 및 GAP 인증 확대	600	100	150	200	150
원예시설 리뉴얼화 사업 및 시설채소단지 주변 경관개선	1,100	100	250	250	500
산지중심의 시설채소 종합유통센터 설립	1,200	400	400	400	0
시설채소 계약재배 확대 및 포전매매의 행정 감시 강화	300	0	100	200	0
시설채소 공동작업 체계구축 및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적용	600	100	200	300	0
시설채소류 브랜드화 및 연합마케팅 추진	500	100	0	300	100
시설채소 예산지역 우선공급제도의 도입	400	0	150	250	0
양념채소류 1·2차 원물가공산업 육성(조미/양념산업 등)	1,500	500	300	400	300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9,000	2,100	2,150	3,700	1,05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영농조직화, 공동영농작업	400	0	200	200	0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평가제 도입	400	0	100	300	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 선포와 무농약 마을 지정, 저투입농법운동 확산	500	0	200	300	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자재 공동수급 및 제조기반의 구축	600	0	150	250	200
친환경 곡물사료기반 확충과 이모작 경작구조, 경종·축산 순환구조 확립	1,600	200	300	350	75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농촌경관개선 추진	1,000	300	300	400	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환경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500	100	100	200	100
소농마을 공동체 마을 조성 및 공동영농기반 조성	3,000	1500	600	900	0
예산환경학교 및 소농학교의 운영	1,000	0	200	800	0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6,600	2,600	1,350	1,850	800
농가직판장의 브랜드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1,000	500	250	250	0
농가직판 조직화 지원	1,000	400	200	200	200
농가가공 활성화를 통한 직판 활성화 지원	1,000	500	250	250	0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입	1,000	500	0	300	200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텃밭활동 지원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500	200	150	150	0
예산 로컬푸드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500	0	250	250	0
로컬푸드 식당지구의 선정 및 창업지원	1,000	500	150	150	200
지역내 기업체 및 단체와 지역발전협약 체결(우선구매제 등)	300	0	100	200	0
대형유통업체 내 예산로컬푸드 코너의 운영	300	0	0	100	200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4,260	300	950	2,810	200
단순농업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600	0	0	500	100
외국인 이주자 노동력 확보	300	0	0	300	0
마을단위의 영농인력시장의 확보 및 품앗이 수첩 도입	360	0	0	360	0
전문교육농장 및 영농강사 발굴	400	0	200	200	0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학교의 운영	800	0	300	400	100
우수 영농인력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배포	100	0	0	100	0
지역리더 발굴사업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300	0	150	150	0
지역리더 학습회 조직 및 교류지원	400	0	0	400	0
예산군 통합인력센터 설립	1,000	300	300	400	0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780	60	30	690	0
농림수산심의회 운용 개선	40	0	0	40	0
지역순환 농정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0	0	0	100	0
지역순환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160	0	0	160	0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120	60	30	30	0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300	0	0	300	0
예산농정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의 공표	60	0	0	60	0

#### 4. 연차별 세부사업비

〈표 5-4〉 연차별 세부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8,100	900	900	500	2,900	2,900
친환경·고품질쌀 작목반 및 농업기반 확대 조성	1,000	200	200	200	200	200
친환경·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의 확대 및 계약재배의 확대	700	300	300	100	0	0
친환경·고품질쌀 체험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	300	0	0	100	100	100
예산군 친환경 RPC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건립	200	100	100	0	0	0
예산쌀의 통합브랜드화 및 상품수준의 기준 마련	400	200	200	0	0	0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쌀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의 확립 및 소비 촉진 운동의 전개	500	100	100	100	100	100
쌀산업의 전방관련산업의 육성 및 판로구조의 다양화	1,500	0	0	0	750	750
소규모 정미/도정업체의 육성 및 쌀가루산업의 육성	2,000	0	0	0	1,000	1,000
예산쌀(가루)과 사과산업(가루/액체)의 융복합화 산업의 육성	1,500	0	0	0	750	750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	11,650	1,450	1,600	3,000	2,900	2,700
아름다운 과원조성 및 친환경 작목반의 활성화	2,000	1000	1000	0	0	0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의 도입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재배기술의 보급	900	300	300	300	0	0
예산사과의 통합브랜드화 및 예산사과의 품질기준 정립	1,800	0	0	600	600	600
저급사과 및 가공부산물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1,000	0	0	0	500	500
예산사과 전방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한 가공용 사과의 확보	750	150	300	300	0	0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기술보급 및 사과산업 인큐베이터 설립·운영	900	0	0	300	300	300
예산사과와인의 확산 및 식초산업의 활성화	1,500	0	0	500	500	500
예산사과를 활용한 가공기술보급 및 사과산업 인큐베이터 설립·운영	1,300	0	0	500	500	300
예산사과와인의 확산 및 식초산업의 활성화	1,500	0	0	500	500	500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6,500	1,250	1,550	1,500	1,000	1,200
저비용/저투입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연구 및 매뉴얼 보급	300	150	150	0	0	0
예산군 전략육성 품목 중심의 친환경 및 GAP 인증 확대	600	300	300	0	0	0
원예시설 리뉴얼화 사업 및 시설채소단지 주변 경관개선	1,100	500	500	100	0	0
산지중심의 시설채소 종합유통센터 설립	1,200	0	0	400	400	400
시설채소 계약재배 확대 및 포전매매의 행정 감시 강화	300	0	0	100	100	100
시설채소 공동작업 체계구축 및 농산물재해보험 확대 적용	600	100	200	300	0	0
시설채소류 브랜드화 및 연합마케팅 추진	500	0	0	100	200	200
시설채소 예산지역 우선공급제도의 도입	400	0	200	200	0	0
양념채소류 1·2차 원물가공산업 육성(조미/양념산업 등)	1,500	200	200	300	300	50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9,000	850	3,250	3,100	900	90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영농조직화, 공동영농작업	400	200	200	0	0	0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평가제 도입	400	200	200	0	0	0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 선포와 무농약 마을 지정, 저투입농법운동 확산	500	250	250	0	0	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자재 공동수급 및 제조기반의 구축	600	0	300	300	0	0
친환경 곡물사료기반 확충과 이모작 경작구조, 경종·축산 순환구조 확립	1,600	0	100	500	500	50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농촌경관개선 추진	1,000	0	500	500	0	0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환경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500	0	0	100	200	200
소농마을 공동체 마을 조성 및 공동영농기반 조성	3,000	0	1500	1500	0	0
예산환경학교 및 소농학교의 운영	1,000	200	200	200	200	200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 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6,550	2,150	2,650	1,250	450	50
농가직판장의 브랜드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1,000	500	500	0	0	0
농가직판 조직화 지원	1,000	500	500	0	0	0
농가가공 활성화를 통한 직판 활성화 지원	1,000	0	0	600	400	0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입	1,000	500	500	0	0	0
텃밭활동 지원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500	250	250	0	0	0
예산 로컬푸드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500	250	250	0	0	0
로컬푸드 식당지구의 선정 및 창업지원	1,000	0	500	500	0	0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내 기업체 및 단체와 지역발전협약 체결(우선구매제 등)	300	100	100	100	0	0
대형유통업체 내 예산로컬푸드 코너의 운영	250	50	50	50	50	50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4,260	700	1,000	520	1,020	1,020
단순농업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600	300	300	0	0	0
외국인 이주자 노동력 확보	300	0	0	100	100	100
마을단위의 영농인력시장의 확보 및 품앗이 수첩 도입	360	0	0	120	120	120
전문교육농장 및 영농강사 발굴	400	200	200	0	0	0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학교의 운영	800	0	200	200	200	200
우수 영농인력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배포	100	50	50	0	0	0
지역리더 발굴사업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300	150	150	0	0	0
지역리더 학습회 조직 및 교류지원	400	0	100	100	100	100
예산군 통합인력센터 설립	1,000	0	0	0	500	500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780	60	140	190	220	170
농림수산심의회 운용 개선	40	20	20	0	0	0
지역순환 농정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0	20	20	20	20	20
지역순환 농정기획단 구성 및 운영	160	0	40	40	40	40
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120	0	0	20	50	50
농업농촌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300	0	50	100	100	50
예산농정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의 공표	60	20	10	10	10	10

## 제2절 재원확보 및 추진방안

### 1. 재원확보방안

#### 1) 국가사업의 지방사업화

##### ■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혹은 광특회계사업과 연계화

-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다기능적 예산사와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등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책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또한 이들 사업은 기존의 광특회계사업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임
- 따라서 이들 사업들은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예산군에서 개별 사업별로 추진을 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임. 특히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의 경우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에 있음

##### ■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과 연계하여 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유도

- 충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예산군과 연계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그리고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등이 있음
- 따라서 이들 사업은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군에서 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예산군에는 충남도의 농업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 바, 충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산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충남도의 3농혁신사업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 지방사업의 국가사업화

### ■ 다기능적 농업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 최근 우리나라의 농정패러다임도 다기능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형태로 방향이 재설정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와 저비용·저투입 친환경 농업구조로의 전환은 예산군의 주요 농정정책인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농정방향과 일치하는 것임
- 따라서 이들 2개의 프로젝트는 충남도와 연계하여 시범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농정의 현안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예산지역의 특수한 농업문제이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 향후 농업문제로 등장하게 될 시설채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모색이 요구됨
- 따라서 지속가능한 시설채소 기반확충 및 브랜드화, 그리고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의 경우 예산군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국가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3) 관련기관의 사업연계화

### ■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의 사과관련 사업계획서와 연계화

-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외국의 새로운 품종 도입 등 사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다기능적 예산사과 프로젝트의 연계화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함은 물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 ■ 지역교육청의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정책의 연계화

- 예산지역은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적 측면에서도 매우 많음. 최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의 경우는 1차적으로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지역내의 다양한 공공기관의 급식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 4) 민간재원의 적극적 유치

### ■ 작목반과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투자 유인

- 예산쌀과 사과의 경우는 작목반 및 영농조합의 결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향후 이들 품종에 대한 조직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는 예산쌀과 사과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 형태로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익창출과 시장성이 높은 지역내 유통기반의 조성의 경우는 전통시장 및 농민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도록 함

### ■ 예산군 차원의 지역순환형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 예산군에서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의 지역순환형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기금은 초기에는 지역의 공공 및 유관기관에서 출자형태로 구성을 하고,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기부와 후원을 통해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한편 지역순환형 농업발전기금은 단순한 재정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외부인사의 재능 풀을 구성하여 재능기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정책추진방안

### 1) 내면화 방안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에 대해서 예산군 전체 공무원과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의 소개 책자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예산군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통합화로 효율적인 자원동원

-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통합화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동원(예산, 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산군의 거의 모든 정책이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사회화 방안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성과 확산

####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강화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지역내의 공공 및 유관기관과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역내의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성과 관리 및 성공사례의 발굴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의 추진에 대한 성과관리와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각 아젠다별로 구체적인 성과치를 제시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도록 함

- 아울러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의 소개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예산지역사회에서 정책적·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3절 성과관리방안

### ■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를 위해 성과분석평가시스템 도입

-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연차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함. 이를 위해 사업의 성과를 사전·사후에 비교·검토하기 위한 성과분석평가시스템을 도입
- 즉 사업별로 시행에 앞서 사업성과 및 사업만족도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함과 동시에 기 집행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수행토록 함

### ■ 사업별 성과지표와 지표관리방법 설정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평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별로 성과지표와 지표관리방법을 설정토록 함
- 선정된 성과지표와 지표관리에 의해 예산군과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매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익년도 2월에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과 사업평가를 수행토록 함

###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 도입

- 사업성과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 연구원 및 민간컨설팅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연차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혼합평가방식 도입

- 예산군이 지역순환형 농업발전 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평가하는 내부평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부문별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외부 평가방식과 양자를 혼합한 혼합 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 사업의 평가는 사업추진 수준과 성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문별 및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목적과 상황을 감안하여 내부평가, 외부평가 그리고 혼합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함





##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원

## 연구총괄

이관률 책임연구원

## 연구간사

송주연 연구원

## 내부연구진

조영재 책임연구원  
허남혁 책임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  
유학열 책임연구원  
홍성호 책임연구원  
김종수 책임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여민수 연구원  
엄성준 연구원  
김정하 연구원

## 자문연구진

송두범 선임연구위원  
김양중 책임연구원

## 행정지원

한민수 예산군 농정유통과장  
이용범 예산군 농정담당계장  
신일호 예산군 농정담당